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지배스는 힘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이라는 다짐으로 출발한 현대불교신문이 15일로 창간 2돌을 맞는다. 한국불교 종단의 수장 격인 조계종이 개혁의 기치를 세웠던 2년전부터 신행전문지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위해 달려왔다. 부처님은 2540년전 운회의 마지막 단계였던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면서 부촉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一心) 이 가르침(法)을 전파해 널리 증익되도록 하라." 또한 바른 법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가도 자상하게 일러 주셨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부처님의 유촉을 정론으로 펴나가며 받들고 있다. 불자에게는 더없는 자부심으로, 나아가 이 시대의 목탁으로 큰 울림을 보일 것을 재 다짐한다. (편집자 주)

가르침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널리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와 모든 사문 바라문을 위해 전파하고 설하라. 심지어 모든 악마 외도 나건자 따위의 그릇된 견해를 지녀 부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바른 가르침을 듣고 깊은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고 바른 견해를 낳아 바른 가르침을 똑똑히 이해하도록 하라.
〈신불공덕경〉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가르침 중에서 잘 생각해 비록 하나의 사구게라도 좋으니 남을 위해 밝혀 설함으로써 그들로 하여 수희해 의심을 내지 않도록 하고, 또 일러 주어서 많은 중생이 수호하고 찬탄해서 삼세제불의 더없이 뛰어난 가르침에 안주토록 해야 한다.
〈보살장정법경〉

너희들은 말법시대에서 마땅히 무량겁에 걸쳐 모아진 이 가르침의 곳집을 잘 열어 사람들에게 주며, 널리 사부대중을 분별해 해설함으로써, 이 바른 가르침의 씨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지세경〉

어떤속에 보물이 있다해도 등불 없이는 못 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와도 깨닫지 못한다.
〈화엄경〉

남을 위해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가르치면, 이런 사람은 응당 부처님을 가까이 하여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 될 것이다.
〈발보리심경〉

어리석은 사람은 대승경전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 그 제 마음을 따라 그릇 생각하고, 이것을 남에게도 자세히 전함으로써 대죄를 얻고 있다. 〈선계경〉

중생의 감각기관이 지닌 습성과 욕구를 살펴보건대, 습성과 욕구의 기능이 갖가지여서 무한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설법도 무한할 수밖에 없고, 설법이 무한한 까닭에 도리 또한 무한하게 되는 것이다. 〈무량의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자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신경〉

"가야산 골프장 반대" 60%

수행 환경권·문화재보호 제도화 필요 '공감'

현대불교 창간 2주년 기념
국회 정각회의원 신행의식 설문

제15대 국회정각회 소속 불자의원의 대다수가 가야산 골프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창간 2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흡)과 지난 8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공동 실시한 '국회 정각회의원 신행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정각회의원 49명 중 35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야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문제점이 많으니 건설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불자 의원 21명(60%)이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반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데는 4명(11.4%)이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의원은 7명(20%)이었다.(무응답 3명)

이같은 불자의원들의 인식은 현재 해인사를 중심으로 전국민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건설 반대운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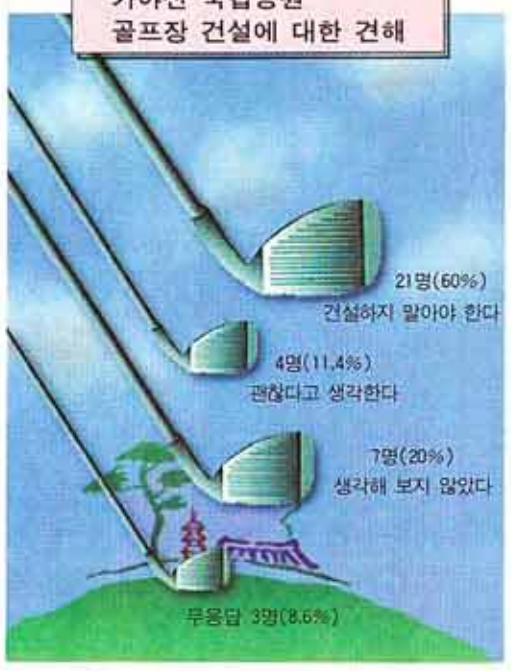
특히 이번 설문에서 불자의원들은 해인사를 비롯한 사찰 주변의 골프장, 고층아파트, 대형빌딩 건설이 문화재보호와 수행환경의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했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사찰의 수행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데 26명(74.3%)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계의 문화재보호와 사찰환경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한 국회의원 불자들의 관심도를 알려주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부고속철의 경주통과에 대한 불자의원들의 의지도 반대 14명(40%) 우회노선지지 16명(45.9%)이어서 대다수의 불자의원들이 교계와 생각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불자의원들은 불교계 현안이 사회문제화 된다면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는데 25명(71.4%)이 응답해 불교계 권익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관련 급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관심은 갖겠다는 의견도 8명(22.9%)이 보임으로 불자의원들과 교계 현안을 다루는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불자의원들은 불교계가 대사회적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분야를 도덕성 회복, 지역사회 기여, 교육, 환경, 복지, 인권, 통일, 경제정의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임연태 기자〉

관련기사 3면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견해



창간 2주년 특집 28면 발행

특 집 Ⅰ 직장 · 직능법회
좌담-이렇게 활성화 하자 ⑭
단체현황 ⑮ 모범사례 ⑯
특 집 Ⅱ 불교의 세계화
오늘의 지구촌 불교 ⑰
화보-세계 불교문화유산 13곳 ⑱⑲
우바이 산악인 히말라야 등정 ⑪
산문밖의 선 신호그룹 이순국회장 ⑤
박이문박사 특별기고 ⑬
고승한담- '석주스님 : 숭산스님' ⑳㉑
권상로스님 미발표 유고 발굴 ㉓
세계만불전 현장 와우정사 ㉔
일타스님 일가 출가기 ㉕
가족과 함께 경주 남산순례 ㉖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시회를 따라 잡는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 · 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교육 장소
· 삼보컴퓨터 교육센타
-서울 :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전철역)
-부산 :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삼보컴퓨터 사옥 2층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문의 :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협찬 : 삼보컴퓨터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정				
		1차(서울)	2차(서울)	3차(서울)	4차(부산)	5차(광주)
windows 기본	10:00~17:00	10. 19(토)	10. 26(토)	11. 16(토)	11. 9(토)	11. 23(토)
인터넷 기본	〃	11. 2(토)	11. 9(토)	11. 23(토)	11. 30(토)	12. 14(토)
인터넷 중급	〃	11. 9(토)	11. 16(토)	12. 7(토)	12. 7(토)	12. 21(토)
인터넷 고급	〃	11. 16(토)	11. 23(토)	12. 21(토)	12. 14(토)	12. 28(토)

"사보(寺報)의 세계로 초대"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및 책방 여시아문 개점 2주년을 맞아 교계 최초로 사찰 사보(寺報)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는 사보를 비롯 각 신행단체의 회보(會報) 소식지 문서포교지 등 1백여점이 한자리에 모아집니다. 신행과 포교의 최일선 현장에서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온 사찰 사보를 살펴보면서 사보문화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시회에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시기간 : 1996년10월23일~29일(7일간)
◇전시장소 :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1층)
◇전시내용
· 사보의 최초 발행관 및 최근 발행관 각 1부
· 사보의 연혁, 관형 및 사찰소개
◇특별 이벤트 : '재미있는 사보' '인상깊은 사보' '발아보고싶은 사보'를 선정(관람객 투표), 시상.
■이번 전시회와 관련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시아문 : (02)737-0695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법륜 (사)JTS 이사장: (2구좌) △대연 신청 정각사주지: (3구좌) △성오 의정부 회룡사스님: 의정부여고(1구좌) △김혜진외 2명: (3구좌) △문중님외 5명: 안성여고 안성여중(2구좌) △권문조: 목포고(1구좌) △권혁진: 경기고(1구좌) △김재선외 3명:



◇법륜스님

경인여상(2구좌) 〈10월10일 현재 총 494구좌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주년을 온佛子와 함께 축하합니다

同體大悲 四海一家

"부처님은
一切平等 · 萬有佛性과
무한한 자비심의 보살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同體大悲
四海一家의 정신으로
이 世上을 살아가야 합니다"
(96.9.16 연등회 창립시 김대중 총재)



同體大悲 四海一家를 실천하는
새정치 국민회의 蓮燈會 一同

사 설

승가대학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사상 최초로 승가대학원이 은해사에 개설돼 지난 7일 개원식을 가졌다. 불교의 존립과 미래 세계에서의 한국불교위상을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한 이번 교육불사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

돌이켜 보면, 중국을 비롯한 한국의 불교는 정통의 교학을 기축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외별전의 파격을 기조로 하느냐에 따라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다. 교(敎)와 선(禪)의 대립이 그것이다. 아시다시피 선은 신라말에 선문구산을 통해 선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 이래 고려 불교의 역사는 교와 선의 대립과 융합이라는 테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융합의 모색은 처음에는 교가 주축이 되어 선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대각국사 의천을 그 대표자로 꼽을 수 있다. 다음에는 선이 중심이 되어 교를 통합하고자 했다. 보조 지눌이 그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선이 결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한국불교는 조계 선종을 주축으로 전승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전개되는 이른바 삼종선(三種禪) 논쟁은 조사(祖師)를 여래(如來)보다 더 우위에 세움으로써 완연한 파격을 표방하는 선의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알려준 사건이었다.

지금 산문의 현실은 이같은 역사성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 조실이 우대받고 강주가 그 아래에 교무 정도의 위상으로 잡혀있는 것은 교종에 대한 선종 우위라는 한국불교의 연장선에 있다. 지방 강원에 강사수는 점점 줄어들어 대본사에서조차 강사를 구하기 힘들며, 기껏 모신 강사들도 얼마 안가 떠나고 만다는 이 통탄할 현실을 불교계는 진작부터 우려하고 대처해야 했다. 늦게나마 조계종이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승가대학원을 개설했다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학적 전통의 위축에 있다. 대승 공관도 공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지루하고 치밀한 변증을 거친다. 언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선의 전통은 언어 너머를 지향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지평을 간과해버렸다. 만세의 스승 원효 큰 스님도 일찍이 이언(離言)의 진리(眞如)와 함께 의언(依言)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과제는 교학적 전통의 재건립이라고 확신한다. 교학은 언어를 통한 공감과 이해의 전파이며, 이를 통해 불교공동체의 확산과 단합, 그리고 집단적 귀의가 가능하다.

이제까지 한국불교는 선의 개별적 자득을 표방해오면서 집단적 신행의 근거는 정토에 기대는 양면성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다. 대응전과 심검당(尋劍堂)의 분리된 이원적 공간이 한국불교를 상징적으로 일깨워주는 징표였던 것이다. 그 이원적 분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관건이 바로 교학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의 지적 심리적 이해의 지평을 획득하고 그를 통해 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은 교학의 육성에 있고, 그런 점에서 강사와 강주의 교육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강사와 강주들은 전통 교학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대적 화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근대의 제 학문과의 변별 융섭의 모색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참으로 수승한 근기를 필요로 한다. 당연히 그에 걸맞는 위상과 예우,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일에 전 불교인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격려를 기대한다.

열 린 마 당

윤리선언 —각 종교대표에 듣는다 (후순)

지난 3일 개천절 통일광복민족회의 소속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 등 각 종교지도자들은 통일과 미래사회를 위한 윤리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물신숭배 성개방 감각위주의 유행풍조배격, 도덕선양과 경제성장을 국가경영의 양대 기조로 수립하고 정치지도자와 공직자의 공명정대와 청렴성실, 영상매체의 건전한 프로제작, 윤리와 도덕에 입각한 교육자상 확립, 밝고 바른 모습의 가정확립을 촉구했다. 또 종교인들은 사랑 자비 인의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회복운동과 민족공동체의 일체감을 불어넣는 윤리제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각 종교의 윤리사회를 이루기위한 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 회복

월주 〈불교종단협의회장〉



윤리는 가정과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경제성장에 매달려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우리민족을 유지시켜온 공동체정신은 말살되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21세기 통일시대를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붕괴되는 윤리의식을 올바로 세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우리선조들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윤리로 생활속에서 상부상조의 전통을 구현했다. 이런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정신, 곧 전래의 아름다운 공동체정신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 윤리를 정립하는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새윤리 확립 종교인 앞장

김몽은 〈천주교 KCRP회장〉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고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비인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에서 민족의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윤리질서를 확립하여, 이를 실천해나가고 종교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면 윤리질서는 바로서리라 본다. 이 새로운 윤리질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인들은 정성을 모아 앞장서 실천하고 기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공직자 청렴 촉구

최근덕 〈성균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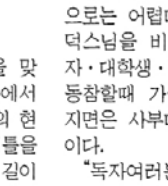
평화로운 삶을 누려온 우리겨레는 역사의 흐름에따라 합하고 혹은 나뉘는 역사의 전개법칙에 따랐을 뿐 한시도 한 핏줄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민족은 이산의 슬픔을 안고 기약없는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과 미래사회를 위한 윤리관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맨먼저 도덕적 신의를 망가뜨려버린 정치지도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는 그 일거일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윤리의 타락은 가정윤리의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정은 국가사회의 핵인만큼 가정을 바로세우면 나라가 바로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를위해 내일에 대비하는 윤리관 제시에 종교인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국민 참되고 선한마음 갖도록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자리하여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고 사랑의 정신이 가난할대로 가난해진 이 사회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서는 민족의 미래가 어둡다는 공감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우리 종교계는 윤리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모든 국민에게 우매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납고 악한 마음을 훈훈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바르고 참된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얻게하여야 한다. 국민 개개인마다 죄업의 근원이 청정하고 이 나라의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덕선진국이 되게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정신으로 민족상잔 극복

김동완 〈기독교회협 총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 속에서도 자랑스런 문화를 꽃피우며 외국의 문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파고가 높은 시점에서 반쪽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이 전쟁준비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으며, 국태민안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정치는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때 종교인들이 하나되어 민족 상잔의 고통을 극복하고 협력과 화해로 하나되어 분열과 갈등이 새로운 창조로 승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우리민족의 윤리규범이 되어 즐거운 가정과 살만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전통 되살리자

김재중 〈천도교교령〉



오늘날 우리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져가고 있다.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심과 배금사상이 함몰되어 인간성을 파괴하는 퇴폐와 향락주의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폭력과 살인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아까지 생기고 있는 현실은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해온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와 도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 실천덕목으로 30가지의 실천지침을 정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실천토록 할 것이다.

실천지침 만들어 교당에 배포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회장〉



근래 우리사회는 더이상 예의지국의 민족이 아니며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윤리의식의 타락은 극악무도함에 이르렀고 반만년을 지켜온 단일민족은 반백년이 되도록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때 윤리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어제를 뉘우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마음 한 뜻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겨레의 윤리를 다시 밝히고 민족을 통일시켜 선대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 한국민족종교협회에서는 이달 안으로 윤리실천요강 지침을 만들어 모든 교당에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한번쯤 읽어봐야 할 사람

목어

지난 9월18일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보브 돌이 유세연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졌다. 이튿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장면을 1면 머리사진(노트한권 크기)으로 처리했다. 경쟁지 뉴욕 타임스는 이 사진을 속지로 다뤘다.

신문이 나가자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 독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2분 간격으로 2백5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항의 요지는 "정론지가 과연 이럴 수 있느냐"는 규탄이었다. 특히 이 항의 전화 가운데 한 통화만 빼고는 모두 클린턴 지지자였다고 한다.

어느 주미특파원이 '살아있는 미국독자들의 양식'을 전한 기사의 줄거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하는 것이 발행목적인 교계신문도 기사화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날때가 있다. 밖으로 널리 알려 불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그렇게 축소보도해도 됩니까."

미국독자들의 항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현대불교'는 이러한 소리까지도 '기사선정에 더 신중하라'는 독자의 애정으로 받아들인다.

10월15일자로 창간2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각계각층에서 보내는 성원에 힘입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그 전법의 길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오늘'이라는 옷을 입히고 사회가 바로 가르침의 실천도량이 되게하자"고 다짐한 창간사를 오늘 두들을 맞아 다시 확인한다. 그 마음은 초발심과도 같다.

우리는 전법이 세계화 될 때까지 가일층 정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사는 '현대불교' 인력만으로는 어렵다. 교계의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하여 포교사·학자·대학생·주부 등 사부대중이 동참할때 가능하다. '현대불교'지면은 사부대중의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여러분의 더 큰 질책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기대합니다."

'현대불교'의 주인은…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진정한 친구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다.
〈숫타니파타〉

협찬 청룡사 주지 법운 TEL.(02)612-0609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귀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불교방송
BBS Broadcasting System
대표전화 : 705-5114 FAX : 705-5229

"교계-정각회 유대 필요" 65.7%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문화원 공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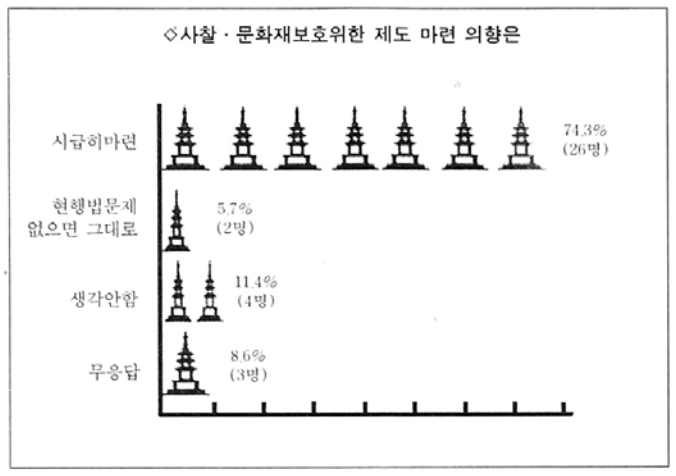
불교관계법 개정 신중 86.6% … "재적사찰있다" 20%

당면 과제 '수행풍토 확립' '사회참여' '신도조직 활성' 順

국회정각회 소속 불자의원들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등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성을 보인 반면 '불교관계법 개정' '교계 숙원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 등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본사가 창간2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원과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불자의원 35명 가운데 74.3%(26명)가 불교계 숙원사업을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안을 참작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꼭 참여하여 풀겠다(17.1% 6명)와 좀더 생각해 보겠다(5.7% 2명)는 대답과 상당한 거리를 보인 것으로 불자의원들의 신중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신중론은 불교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불교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6.6%(24명)의 의원이 문제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정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 이 역시 즉각 개정을 주장한 의원(5.7% 2명)과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의원(5.7% 2명)보다 압도적이었다.

◇사찰 · 문화재보호위한 제도 마련 의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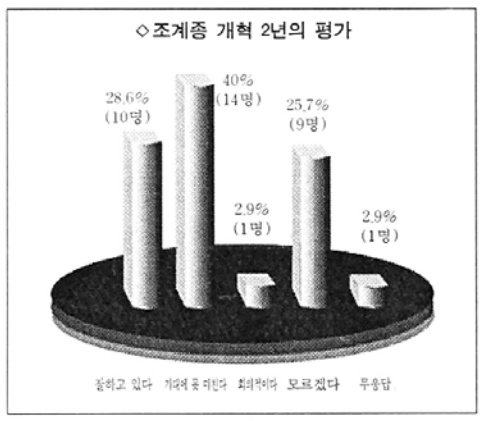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 부처님의 가피가 컸다는데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 66%(23명)의 의원이 가피가 컸다고 답했으며 다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의원 23%(8명)과 합하면 88%의 불자의원들이 당선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차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 가운데 불교계 숙원 사업과 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운 의원은 똑같이 69.6%(16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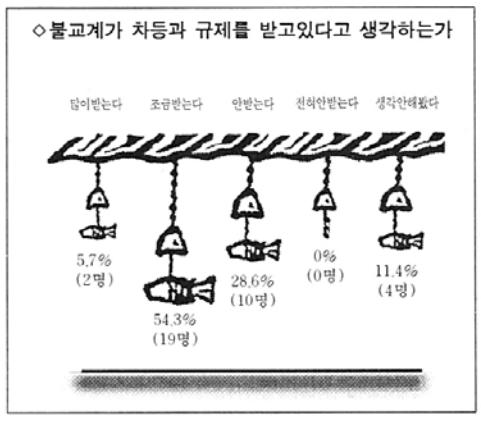
'불교차등 인정' 54%

불교계가 중요시 하는 사안들에 대한 불자의원들의 신중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설문의 결과는 불교계가 불자의원들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을 주고있다. 불자의원들은 불교계 움직임을 친분있는 스님이나 불교계 인사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68.6% 24명) 교계가 정각회를 위해 해주길 바라는 사안으로 불교관련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기(65.7% 23명)때문이다. 지역 스님과의 대화를 자주 갖는다고 답한 의원은 22.9%(8명)이었고 가끔 갖는다고 답한 의원은 57.1%(20명)인 점도 불자의원들이 불교계와 공식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조계종 개혁 2년의 평가



◇불교계가 차등과 규제를 받고있다고 생각하는가



불자의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차등이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의원들의 답은 차등이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이 받고있다는 답은 5.7%(2명)이었으나 조금 받고 있다는 대답은 54.3%(19명)이나 됐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응답을 피한 의원은 4명(11.4%)이었다. 이는 불교계와 정각회간의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면 불교계 권익 보호를 위한 불자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고무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자의원들은 불교신도와 스님들의 정치 관심도를 그다지 높게 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불교신도들의 정치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원들은 보통이다(37.1%)와 적다(23% 8명)는 의견을 각각 보였다. 스님들의 정치관심도에 대해서도 많다고 생각한 의원은 28.6%(10명)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51.4%(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계인사 통해 정보수집

자신이 불자라는 사실이 지역구 관리에 대체로 도움을 준다는 대답이 19명(54.3%)에게서 나온 반면 지역구의 종교인을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45.7% 16명)는 대답보다는 그렇지 않다(54.3% 19명)는 답이 조금 많아 정치와 종교의 분리된 의식을 보여 주기도 했다.

10년이상 불교를 신행해 온 의원은 33명(94.3%) 이었으며 5년이하라 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본지가 95년 신년특집(본지 12호)으로 14대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년이상 신행하고 있다는 답이 8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할 때 불자의원들의 신행햇수가 상당히 길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신행동기 집안영향" 71%

10년이상 신행활동을 해 온 불자의원들 가운데 5계를 받은 의원은 9명(27.3%) 이었고 보살계를 받았다는 의원도 4명(12.3%)이 있었다. 곧 받을 예정이라 답한 의원은 10명(31%)인데 비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답도 9명(27.3%)이나 있어 정각회 활동 가운데 수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불자의원들의 신행동기는 부모님과 집안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25명, 71.4%) 상당히 타율적 현상을 보였다.

학생회나 청년회등 신행단체 참여로 인연맺은 의원도 4명(11.4%)이 있었으며 아내의 권유로 불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의원들은 재적사찰을 두고 신행활동을 하는 경우(7명, 20%)보다는 사찰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행생활은 하는 경우(14명, 40%)가 많았다.

조계종 개혁2년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은 잘하고 있다(28.6%, 10명) 보다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대답이 많았다.(40%, 14명) 의원들은 불교계 현안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수행풍토 확립, 대사회 참여폭 확대, 신도조직활성, 불교관계악법 개정을 꼽았다.

불자의원들은 또 불교계에 대해 △불교자체 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자체 개혁 △국민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자세 확립 △분쟁 종식 △포교 강화등의 개인적 주문을 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협찬 梵鐘社 (02)735-1045

국회정각회 의원 신행의식 설문 내용

1. 불교의 인연을 맺으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① 1년미만(0%) ② 5년이하(5.7%) ③ 5년이상(0%) ④ 10년이상(94.3%)

2. 어떻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① 부모님과 집안이 불교이므로(71.4%) ② 배우자의 권유로(8.6%) ③ 본인이 학생회나 청년회등 신행단체 참여로(11.4%) ④ 아는 스님과의 인연으로(8.6%) ⑤ 불교서적을 읽고 발심하여(0%)

3. 수계를 받으셨습니까?
① 오계를 받았다(25.7%) ② 보살계를 받았다(11.4%) ③ 기회가 있으면 곧 받을 예정이다(34.3%) ④ 생각해보지 못했다(25.7%) ※ 무응답 2.9%(1명)

4. 신행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20%) ② 사찰에 가서 기도한다.(40%) ③ 가정에서 참선, 기도, 불교서적 읽기.(22.9%) ④ 실천의 기회가 적다.(17.1%)

5. 절에 가시면 꼭 시주를 하십니까?
① 갈때마다 한다.(77.1%) ② 자주 한다.(5.7%) ③ 가끔한다.(17.1%) ④ 창을 사루고 촛불 밝힌후 절만 한다.(0%)

6. 이번 15대 국회의원이 되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피가 컸다.(65.7%) ② 다소 있었다고 생각한다.(22.9%) ③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0%) ④ 생각해보지 못했다.(11.4%)

7. 15대 국회 불자의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정각회 가입 의원은 49여명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신행활동은 자유이므로 선택에 맡겨 놓아야 한다.(54.3%) ② 대책을 세워 회원으로 영입해야 한다.(14.3%) ③ 정각회 이미지를 고양시켜 가입회원이 늘어나도록 해야.(20%) ④ 앞으로 다들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11.4%)

8. 불교계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세히 알고 있다.(31.4%) ② 보통이다.(25.7%) ③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 알고있다.(40%) ④ 거의 모르고 있다.(2.9%)

9. 불교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알고 계십니까?
①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있다.(0%) ② 친분있는 스님이나 불교계인사를 통해.(68.6%) ③ 불교계 신문 방송을 통해.(14.3%) ④ 부인이나 어머니등 가족을 통해.(8.6%)- ※ 무응답 8.6%(3명)

10. 불교계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① 자주 접한다.(37.1%) ② 보통이다.(31.4%) ③ 잘 접하지 못한다.(28.6%) ④ 전혀 접하지 못한다.(2.9%)

11. 불교계 현안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를 1, 2, 3번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순위)
① 불교관계 악법 개정(4위) ② 신도조직 미약(3위) ③ 수행풍토 확립(1위) ④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훼손방지(5위) ⑤ 대사회 참여폭 확대(2위)

12. 불교계의 숙원사업을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꼭 참여하여 풀도록 하겠다.(17.1%) ② 사안을 참작하여 대응하겠다.(74.3%) ③ 불교계만의 문제이면 참여치 않겠다.(0%) ④ 좀더 생각해보겠다.(5.7%) ※ 무응답 2.9%(1명)

13.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8.6%) ② 반대한다.(40%) ③ 현재 추진되는 있는 우회노선안을 지지한다.(45.7%) ④ 생각해보지 않았다.(5.7%)

14. 불교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5.7%) ② 문제점을 검토 점진적으로 개정.(68.6%) ③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5.7%) ④ 생각해보지 못했다.(14.3%) ※ 무응답 5.7%(2명)

15.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건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환경및 문화재 보존에 문제점이 많으니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60%) ②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관철하고 생각한다.(11.4%) ③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20%) ※ 무응답 8.6%(3명)

16. 많은 사찰들이 주변의 골프장 · 이파트 · 대형빌딩 건설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와 사찰의 수행기능의 저하가 예견되는데 '수행환경권' 등의 사찰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① 시급히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74.3%) ② 현행법상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5.7%) ③ 생각해 보겠다.(11.4%) ※ 무응답 8.6%(3명)

17. 재임시에 불교현안 사업에 참여하셨다면 이 사실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하실 것입니까?
① 적극 홍보하겠다.(37.1%) ② 사안을 봐서 홍보하겠다.(54.3%) ③ 홍보할 생각이 없다.(5.7%) ※ 무응답 2.9%(1명)

18. 불교계의 현안이 사회문제화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71.4%) ② 급히 신경은 쓰지 않지만 관심은 갖는다.(22.9%) ③ 별로 중요치 않게 흘려 버린다.(0%) ④ 생각해보지 못했다.(5.7%)

19. 불교계가 대사회적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어떤 분야에 우선 관심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순서를 1, 2, 3번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순위)
① 환경(4위) ② 인권(6위) ③ 통일(7위) ④ 경제정의(8위) ⑤ 지역사회 기여(2위) ⑥ 복지(5위) ⑦ 도덕성회복(1위) ⑧ 교육(3위) ⑨ 기타

20. 불교신도들의 정치관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다.(8.6%) ② 많다.(25.7%) ③ 보통이다.(37.1%) ④ 적다.(22.9%) ⑤ 전혀 없다.(2.9%)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12.9%)

21. 스님들의 정치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많다.(2.9%) ② 많다.(28.6%) ③ 보통이다.(51.4%) ④ 적다.(11.4%) ⑤ 전혀 없다.(2.9%)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2.9%)

22. '불자'라는 사실이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준다.(11.4%) ② 대체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54.3%) ③ 그저 그렇다.(20%) ④ 도움이 안된다.(14.3%)

23. 지역구의 종교인을 분석, 정책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45.7%) ② 그렇지 않다.(54.3%)

24. 지역 스님들과 대화 시간을 갖습니까?
① 자주 갖는다.(22.9%) ② 가끔 갖는다.(57.1%) ③ 갖으려고 한다.(17.1%) ④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2.9%)

25. 조계종이 개혁의 기치를 내세운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잘하고 있다.(28.6%) ②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40%) ③ 회의적이다.(2.9%) ④ 모르겠다.(25.7%) ※무응답 2.9%(1명)

26. 정각회를 위해 불교계가 해 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① 재정적 후원(11.4%) ② 불교관련 정보 제공(65.7%) ③ 불자의원 초청 강연회(2.9%) ④ 불교교리 교육(14.3%) ⑤ 기타(5.7%)

27. 15대 국회가 21세기를 여는 국회라는 점에서 가장 선행해야할 국정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선진국을 위한 준비(22.9%) ② 통일을 위한 준비(22.9%) ③ 환경, 문화, 복지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준비(51.4%) ④ 기타(2.9%)

28. 현재 불교계의 사회와 국가를 위한 참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면 좋다.(28.6%) ② 부족하니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60%) ③ 너무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 같다.(2.9%) ④ 생각해보지 않았다.(5.7%) ※무응답 2.9%(1명)

29. 사회제반 문제 해결에 불교의 기르침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①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22.9%) ② 대체로 활용하고 있다.(48.6%) ③ 활용할 계획이다.(22.9%) ④ 활용하지 않는다.(5.7%)

30.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차등과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받고 있다.(5.7%) ② 조금 받고 있다.(54.3%) ③ 받고 있지않다.(28.6%) ④ 전혀 받고 있지않다.(0%) ⑤ 생각해 보지 않았다.(11.4%)

31.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0%) ② 다소 높다.(40%) ③ 보통이다.(42.9%) ④ 다소 낮다.(8.6%) ④ 매우 낮다.(2.9%)

32. 불교계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① 자체 정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 ② 일대쇄신이 필요하다 ③ 국민계도에 앞장 ④ 통일 조국의 주체적 역할 ⑤ 교계내 분쟁의 소멸

50th 창간 반세기 1946·1996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신문, 미래를 열어주는 신문 -
변화의 시대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독자를 우선할 수 없다는 정신 -
광고를 대신하여 정보를 담은 1면을 시작으로
경향이 속속들이, 시원시원하게 바뀌었습니다.
1면부터 다른 신문, 독자가 먼저 평가한 경향 -
경향을 보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京鄕新聞

광고없는 1면, 독자를 위한 1면
● 하루의 기사가 한눈에 보이는 - 뉴스인덱스
● 시원한 10Cm 김상택 정치풍자 - 경향만평
● 1면에서 미리 읽는 요약뉴스 - 투데이포커스
새로운 신문의 혁신
● 국내 유일의 신세대, 신감각 정보 - 매거진X

● 한주일의 생활정보를 알차게 엮은 - 주말매거진
● 부모와 함께 보는 중학생학습지 - TOP-10
● 가장 높은 적중도 대입수능예상문제 - 대입수능

京鄕新聞社
뉴스메이커 레이디경향 FIGARO TVTimes

경향을 보면 미래가 열립니다

'광고없는 1면'에서, 신세대 '매거진 X'까지 -
'원하는 정보, 미래의 정보'가 경향에 있습니다.



법회 안내

실상선원(02)499-4442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5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경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봉원사(02)392-3007

반야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청수사(02)816-1290

자성일 동참불사 일 오전10시
수요정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한문교실 매주 월~금 오후4시

금수선원(051)783-2184

인등법회
매월 첫째주 금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셋째 금 오전10시30분

동암사(032)423-5369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후3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단 매주 금 오후2시

명법사(0333)655-3215

거사림법회 첫째 셋째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영선사(042)523-0813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월경사(0591)5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합창단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영남포교 중추역할 기대하세요"

대구불교방송 지사장 법타스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성실한 방송국운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국으로서 면모를 다지고, 불교포교의 극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오는 11월11일개국을 앞둔 불교대구방송 초대 지사장에 지난 7일 선임된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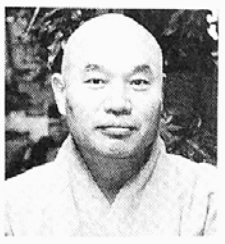
스님은 "불교대구방송은 타 지역 불교방송과 달리 경북지역 조계종 5개 본산사찰과 태고종, 진각종, 대구주지사암연합회 등이 개국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 대구 경북지역 불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은 힘을 바탕으로 불교대구방송개국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불자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사장 선임과 더불어 지난 9일에 불교방송 서울 중앙국과 불교TV를 방문하기도 한 법타스님은 "서울 중앙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인사교류는 물론이고 불교TV와의 공조체계도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승가교육의 새 틀 마련에 전력"

조계종 승가대학원 초대 원장 무비스님



"종단사에 큰 획을 그을만한 초유의 교육불사인지라 도제양성과 승려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져 놓겠습니다." 지난 7일 개원한 조계종 승가대학원의 초대 대학원장으로 부임한 무비스님은 큰 소임이 맡겨진데 대해 한국불교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승가교육의 새로운 전통을 창출한다는 사명감으로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스님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장점은 취하고 비능률적인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스님은 논문평가는 경전의 현대적·대중적인 해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업적물은 언론이나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한데 모아 책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비스님은 학인들이 학문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스님의 호를 딴 '여천(如天)장학회'도 설립했다. 여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전액 학인들의 의료비와 연구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천=이윤호 기자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성라 실버타운 원장 정덕스님



"효행은 부처님께서 늘상 강조하셨던 중요한 실천덕목입니다. 부처님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성라 실버타운을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실버타운 원장으로 취임하는 정덕스님(자비의전화 회장)은 취임에 앞서 "불교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라원 이사장 법성스님의 권유로 실버타운 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정덕스님은 "법성스님이 그동안 이룩해놓은 불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덕스님은 '자비의 전화' 2대회장을 맡아 5년여동안 혼신을 다하는 등 불교사회복지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경기도 가평에 자리해 있는 성라 실버타운은 총 96개의 생활방과 각종 문화, 체육, 오락, 진료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겸비하고 있어 최적의 노인복지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0356-85-3323~4)

이준엽 기자

교차로

'가장 문학적인 상' 수상





법성스님〈사진 위〉 이근후 본지 논설위원(이대 신경정신과 교수)등 67명은 지난 6일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한국문인협회(이사장 황명)로부터 종교·체육분야에서 '가장 문학적인 상'을 수상했다.

'복지관' 개원 1돌 기념행사

영담 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장애인가족나들이, 27일 덕유가족가요제를 개최한다.

삼존상 봉안 및 점안법회

동봉 우리절 주지는 지난 7일 삼존상 봉안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돕기 공연차 귀국



자은불은사(하와이)주지는 오는 11월 16일 춘천문화예술극장에서의 장애인돕기 자선공연 준비차 지난 8일 귀국했다.

대구 관오사 개원



지도 동화사포교원 불교사회교육원 관오사 주지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소재 관오사 개원식을 봉행했다.

(053)788-3669

K-TV '체험 삶의…' 출연



삼중 자비사주지는 오는 21일 KBS1 TV '체험 삶의현장'에 출연 호박추수에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3개종교의 성직자들로 특별 구성된 삶의현장에서 스님은 영천 호박농장의 호박 추수에 도전했다.

'수월스님의 생애' 특강

김진태검사(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12일 조계사불교대학 초청으로 문화교육관에서 '수월스님의 생애'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묵 '시심마' 시리즈 개인전

김대열 덕원미술관장은 오는 17일까지 청담동 최갤러리에서 6번째 개인전을 갖고 있다.

마라톤 TV해설가 데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 불자 황영조씨가 지난 6일 개막된 제77회 강원전국체전 마라톤 경기의 TV 해설을 맡아 달리기 실력 못지 않은 입담실력을 발휘했다.

평생을 불교종무행정에 종사하다 타계한 故 김태중 거사의 49재가 지난 14일 관촉사에서 있었다. 고인과 함께 줄곧 불교일을 해온 불교텔레비전 강정기부국장의 추모의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故 김태중거사 49재 영전에

영전(靈前)에 합장하고 올립니다

어느 날 홀연히 허물을 벗고 본래 자리로 가시더니 벌써 49재를 맞이 하였습니다.

우제(愚弟)의 미욱한 머리 속에는 아직도 어딘가에 생존해 계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불쑥 나타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된 계산으로 길고 긴 20여 성상을 탈속의 면모와 후덕한 아량으로 감싸주고 자실인의(慈室忍衣) 화안애어(和顔愛語)하던 형의 그늘이 이제와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제를 비롯하여 주변 동료와 후배들의 인생속에 형의 자리가 너무 크게 자리잡았음이 아닌가 반추하여 봅니다.

49재를 맞이하여 형을 회고하게되니 뒤늦게 설움이 복받치고 회오가 막급합니다.

함께한 지난 세월이 평탄치 못했을 뿐 아니라 우여곡절이 많았던 불교의 격변기였기에 우교애종(憂教愛宗)의 높은 뜻 마음껏 펼쳐보이지 못하시고 자탄하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호 슬프다

아직도 연부역강(年富力强)할 나이에

아직도 불법홍포를 위해 하실 일이 중첩한데,

무엇이 바쁘기에 그리도 서둘러 가셨습니까?

우치(愚痴)한 후배들은 차치하고라도 연약한 형수님과 미혼의 자녀들까지 놓아 두시고 그렇게 쉽사리 발길이 돌려지던 가요.

형!

49재를 지내고 가시는 즉시 돌쳐서 오십시오

형의 못 다한 대원(大願)을 이루기 위하여 사바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會者定離)의 가르침이 있고

형은 우리를 버리고 가셨지만

우리는 누구도 형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정토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거듭거듭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못 다한 불사를 더욱 큰 힘으로 추진합시다.

한 조각 뜬구름 흩날리듯 허공에 자취를 지웠으면

한 조각 뜬구름 일어나듯 자취를 다시 나타내소서.

불기 2540년 10월 14일
우제 강정기 합장 배례

게시판

모집 보육사=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2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숙식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보육사 3명을 모집한다. (0371)762-3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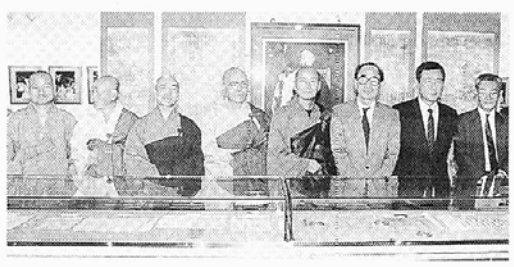
행사 숭산스님 초청대법회=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은 15일 오후4시 정각원 법당에서 숭산 행원스님(화계사 조실)을 초청하여 '현대불교와 선'이라는 주제로 고승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2)260-3015



조계종 원로 수산스님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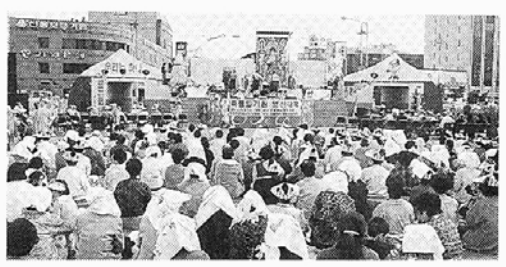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 만오당(晩悟堂) 수산(嵩山)스님 영결식이 지난 5일 대구 염불선원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도건스님을 비롯 화산 성타 설정 원명스님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하여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진 다비식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대구 시립화장장에서 봉행됐다.



효봉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전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종정을 지낸 효봉스님의 열반 30주기 추모전이 지난 9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막됐다.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추모전 개막식에는 보성 원명 설정 현호 현고 명정 암도 태응스님, 고은 김동현 심재룡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김용덕교수가 지은 효봉스님일대기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도 출간돼 스님영전에 봉안됐다.



의정부 사암련, 통일기원 영산재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승)는 지난 5일 시청앞 청소년광장에서 '남북통일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의정부 시민축제인 회룡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영산대재에는 회룡무가 선보였다.

이날 사암련회장 혜승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신도의 슬기와 지혜를 계승하고 영산대재를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문화재수리 기능인 작품전

(사)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문화재수리기능인작품전이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개막식 〈사진〉에는 설정 현호 혜창스님, 박찬종(신한국당 상임고문) 손주환(전주대사습놀이회장) 정기영(문화재관리국장)씨를 비롯 同협회 전홍수 회장과 회원등 총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성 명 서

해인총림 산중중진회의 및 수습대책위원회 입장

대저 叢林이라함은 경장, 율장, 논장을 一攝하여 불교적 삶의 가치체계를 실현하는 수행공간이며, 또 최후의 일인까지도 더불어 함께 구경각에 이르고자하는 불교의 원력과 誓願이기도 합니다.

和合으로 상징되어지는 총림의 승가공동체인 모습은 역사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대안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 있어 총림은 역사적으로 태동한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불교집단의 기능으로서 축소되어져서 총림으로써의 제 위상과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해인총림은 성철큰스님께서 제방의 납자들을 제접하실 때 까지만하여도 한국교단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산중공의"에 의한 승가전통을 최후까지 담지하여 왔던 귀의처였으나, 큰스님 열반이후 해인총림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총림운영으로 말미암아 "원융살림"이 파괴되어지고 급기야 사부대중의 화합마저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림이 총림으로써 제 구실을 상실한 채 한낱 한 문중의 불모로 전락함은 한국불교의 손실이며, 빛나는 승가전통의 몰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림의 대표인 方丈이란 상징성은 修行의 사표이며 납자들의 표본으로서 "존중받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곧 法座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종무행정까지 일일이 관여하여 방장의 권위가 세속화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인총림의 "산중공의"와 "원융살림"을 대대전승하기 위해서는, 향후 방장스님의 권속문중이 종무행정을 독점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일어난 해인사 사태는 해인사 방장스님이신 혜암큰스님을 그 문도들이 올바로 보필하지 못하고, 큰스님의 위덕을 빌미삼아 문도 몇몇 승려들이 해인총림을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해인사 사부대중을 비롯하여 산내암자 및 말사 주지, 전승려 학인 그리고 선원수좌 스님들이 한 목소리로 "원융살림"으로 회복코자 "주지이하 7직의 완전한 퇴진"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무행정을 담당했던 소임자들을 배척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책임을 묻고 해인사의 승가전통과 "산중공의" 정신을 復活시켜 총림으로써의 제자리에 회귀시키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그간 일사천리로 감행했던 독단적인 인사전횡, 선원폐쇄, 강원폐강 등의 어처구니 없는 폐단적인 행정은 繙門의 부끄러움인 것을, 어찌 원융살림에서 대중이 그것을 묵과하겠습니까.

오늘 해인사의 고통은 해인사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승단에 있어 叢林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엄중한 채찍이며 질타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바로 작금에 이르러 성법스님 등 전소임자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한 허위날조 기자회견 등의 갖가지 시비거리에 대한 응대는 한낱, 주도권 싸움으로 대중에게 비쳐질까 우려되며, 그러한 것은 불교내외적으로 큰 소모전이요 승단의 위상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성법스님 등 전소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만에 하나 세속법에 의탁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결단코, 승가전통으로 단호하게 척결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증단의 원로 대덕, 그리고 중진 및 사부대중 여러분께 그동안 해인사 문제로 인해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됨을 해인총림대중과 함께 참회드립니다. 모쪼록 원로 대덕스님 및 사부대중의 협조와 지혜의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저희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1. 아직도 잘못을 뉘우쳐 자숙하지 않는 성법, 무착 등에 대해서는 산문출송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을 취합하여 증단의 징계에 회부할 것이다.
2. 혜암 큰스님께서는 더 이상 부덕하고 파행적인 잘못을 저지른 성법, 무착을 비호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3. 성법은 해인사주지로 발령받기 위해 호적정정까지 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지로 부임된 직후부터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파행적 종무운영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는 바, 총무원은 주지임명직을 즉각 취소하고 징계에 회부하여 해인총림의 위상과 한국불교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0년 9월 26일

해인총림 산중 중진회의
해인총림산중수습대책위원회

해인총림 산중수습대책 위원회

- 고 문 : 법전화상, 일타화상, 도견화상, 지관화상
- 지도위원 : 봉주, 고봉, 운범, 도선, 도성, 정원, 송월, 일미, 중천, 종진, 원융, 일호, 무비, 법혜, 각 산내암자 강원
- 위 원 장 : 보광
- 부위원장 : 수진, 돈각
- 위 원 : 선룡, 원택, 무관, 종림, 수완, 법장, 적광, 선각, 경암, 원창, 보선, 지산

해인총림 산중 중진회의

- 의 장 : 고봉
- 부위원장 : 선룡, 혜안
- 위 원 : 법전(부방장), 일타(수좌), 도견(원로위원), 지관(전주지), 봉주, 고봉, 도선, 운범, 송월, 정원, 중천, 일미, 종진, 선룡, 반야, 혜범, 현조, 수완, 무관, 관후, 종림, 원융, 돈각, 적광, 금홍, 선각, 수진, 법장, 무애, 철운, 서봉, 경암, 원창, 지산, 무아, 원택(백련암), 혜관(지족암), 명진(길상암), 종성(홍제암), 보광(희랑대), 순민(용탑), 원타(청량사), 각안(원당암), 성원(국일암), 보선(약수암), 혜안(삼선암), 혜춘(보현암), 법모(고운암), 도명(금강굴), 도연(금선암)

해인사의 내부 사정으로 10월 10일 예정되었던 성법주지 진산식은 취소되었음을 사부대중께 알려드립니다.

산문밖의 선禪

신호그룹 이순국 회장



"기업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환자치료하듯 부실기업 살려내
"기업소유는 집착…필요로하니 경영할뿐"
'사원집단주주제' 선언 "가족상속 없다"
자택을 智德寺로…집무실에 경전 가득

지난 9일 아침 7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 조찬을 겸한 경제인들의 모임에서 신호그룹 이순국(李淳國·54)회장이 '기업경영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강의 주제 '성공사례'에서 보여주듯이 李회장은 일단 경제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날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李회장 자신은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18개, 해외 10개 등 모두 28개의 계열사에 지난해 매출액 1조 4천억원인 대그룹의 회장. 李회장은 '단지 기업체가 자신을 거쳐갈 뿐이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갔다.

회사의 말단 봉급쟁이로 출발한 李회장은 77년 부도가 난 중소제지업체 동방펄프를 인수하면서 경영자가 되었다. 이후 오늘까지 30여개의 쓰러져가는 기업을 인수하여 흑자기업으로 키워냈다. 이런 연유로 그에게는 언제나 '마이더스의 손-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왕으로 손만대면 황금으로 변함' '인수합병(M&A)의 귀재' '부실기업 조련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기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듯 존엄한 기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고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영에 뛰어들었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냈다는 것이다. 물론 명의가 죽을 사람은 미리 알듯이 무조건 기업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을 말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기업인수가 아니라 단지 관리차원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李회장은 이렇게 말은 기업에 두가지 경영방침으로 활력을 불어넣는다. '멍석 경영론'과 '24시간 경영생활화'.

"예전에 우리는 집마당에 멍석을 깔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영자가 멍석을 깔고 구성원이 신바람 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멍석 경영론입니다."

실제 이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했을 때 '점령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의 문제점은 그 기업 사람들이 잘알고 있고 문제해결도 결국 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李회장의 신념이다.

또한 부지런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놀 것 다 놀고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심보라는 것이다.

'기업 무소유' '기업 생명론' '더불어사는 삶'. 李회장에게서 나는 냄새가 눈물나도록 맵다. 이 냄새의 근원을 찾기위해서는 그의 생활 내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호그룹 회장실. 李회장의 집무실인 이곳은 사방이 경전과 경구가 쓰인 액자가 가득하다. 李회장에게 이 글귀들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늘상 독경으로 자신을 점검한다. '기업도 생명이 있다'는 정신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립됐다. 출퇴근이나 출장길에는 법문테잎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 이처럼 李회장은 자신의 기업경영관이 불교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위해 기업 경영을 하지않습니다. 회사를 키울생각도 없습니다. 산이 있어 그곳에 오른다는 어느 등산가의 말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 일을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李회장에게 뚜렷한 취미는 없다. 다만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는다. 산은 사찰을 참배할 수 있어 더할 나위없는 취미이자 신행생활인 것이다. 어떤때는 집근처에 있는 청계산을 하루에 두 번 넘기도 한다.

李회장은 매일 새벽 4시30분이면 일어나 1시간 가량 조깅을 한다. 10년전 어느날, 새벽 조깅길에 른득 집을 절로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 이생각은 회사에서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사회초년시절 11번의 이사 끝에 마련한 화곡동집을 지덕사(智德寺)라는 사찰로 바꾸고 전세방으로 옮기고 말았다.

李회장 부부의 신심이 불자로서의 최고 원력인 사찰건립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李회장이지만 그에게도 생각만해도 가슴뭉클한 계열사가 하나 있다. 94년 11월에 설립한 '신호페이퍼 타일랜드사'.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1백42㎞ 떨어진 싱부리시 근교(태국 최대 강인 챠오프라야강에서 8백m 거리)에 신문용지 생산공장을 세운 것이다. 이 회사는 태국 유일의 신문용지 공장이면서 신호그룹 해외진출의 발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李회장에게는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보람이 마음 든든하게 한다.

신호그룹의 창업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주주와 종업원 그리고 고객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87년, 李회장은 자신의 주식 2/3를 내놓아 '사원복지기금'을 설립했다. 94년에는 전재산을 털어 '사원집단주주제' 실현을 선언했다. 94년 한국강관의 경영권이 李회장에게 맡겨졌지만 이제껏 주식을 한 장도 소유하지 않았다. 소유와 경영을 사원들에게 넘기고 가족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전문기업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윤리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다.

'소유하지 않고 경영할 뿐'이라는 李회장의 말이 믿기지 않았는지 강연이 끝나자 어느 경영인이 물었다.

"창업자에게 기업은 자식과 같다. 내 것이라는 생각없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기업은 유한합니다. 단지 목숨까지 담보하여 경영에 전념할 뿐입니다."

이준엽 기자

진정한 사랑이란

문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천하기란 무척 힘들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결국 이기적인 사랑, 즉 '자기애'일 것인데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매도할 수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진문용 · 대구 서구 중리동〉

답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물에 빠진걸 보고 부모가 그냥 뛰어들 때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에는 가지가지 종류도 많지만 대체로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지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놓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착을 두고 그럽니다. 그건 다 자기 사랑이지요.

자비란 그야말로 한 점의 티끌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없이 주는 사랑은 자비에 가깝지요. 그런데 부모의 자식사랑도 때로는 자기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기대가 따른단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나 아님이 없다는 경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생사랑은 그야말로 저 풀벌레조차도 둘로 보지않는 사랑이기에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그건 일체가 나 아닌게 없을때, 내 자리 아닌게 없고 내 아픔 아닌게 없을 때라야 하는데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내가 어디서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로 들고 난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니까 진짜 사랑을 알려면 이 도리를 공부해서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성을 깨달으려면…

문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대자유인으로 사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실 것입니다만 불성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닫고나서도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답 말하고 묻고 생각하는게 다 생명의 근본이 있어서 가능하고 육신이 있어서 가능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들 몸뚱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꼭 우주가 돌아가는 것 같지요? 우리들은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서말한 세가지가 종합해서 돌아가는 그 근본을 불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지요?

누가 한 선사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르쳐 줄께" 했더랍니다. 그래 가까이 다가가니까 주먹으로 한방 내리쳤고 "어이쿠" 하고 쓰러지니까 "이놈, 지금 어이쿠 한 놈이 누구더냐, 얼른 대답해봐라" 했더랍니다. 지금 나를 끌고 다니고 과거에도 끌고 다녔고 앞으로도 끌고 다닐 그 주인공이 바로 불법이고 불성이지 어디 딴데가서 찾으려느냐 하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말하고 행하고 듣고 마음내고 하는게 다 불성의 나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여여할줄 어찌 알았으랴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유마힐 거사에게 병문안 갔을때 하시는 말씀이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내 몸뚱이는 소우주나 다름없어서 중생 안에 또 수많은 중생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그 중생들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둘이 아니니 그렇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불성이 뭔지를 알고 싶거든 너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가령 불성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불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해서는 한방 먹인 것이지요. 한방 먹인 것도 불성의 나툼이고 "어이쿠" 한 것도 불성의 나툼이니 그 자리에서 네가 찾아보고 네가 맛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가끔 비유해서 말해줍니다만 저 바퀴가 구르려면 심봉(축)도 있어야 하고 바퀴 살, 테도 있어야 하고 힘도 가해져야 하는데 심봉은 가만히 있으면서 힘을 넣어주기만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본인 불성이 있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먹고 자고 알하고 자유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자유인이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듯 불성의 여여한 나툼인줄 안다면 그대로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왜냐? 그냥 다 놓고 가니까, 다 믿고 턱 맡기고 가니까 그대로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은 외면하고 밖으로 물질에만 매달리니까 불성이 뭐냐 했을때 뭔가 모양있는 것, 아니면 그려낼 수 있는 것 쯤으로 생각이 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주좌와가 다 불성이 있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불성은 거기서 찾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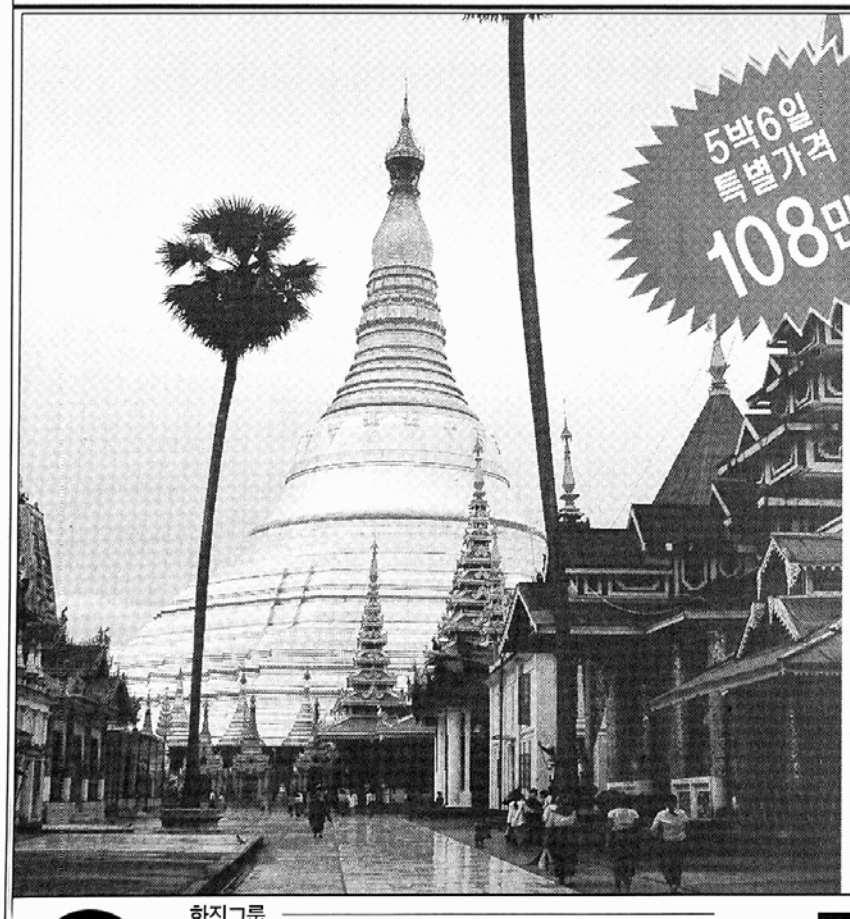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KATA 광고 심의필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02)779-6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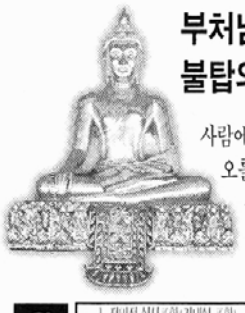
불기 2540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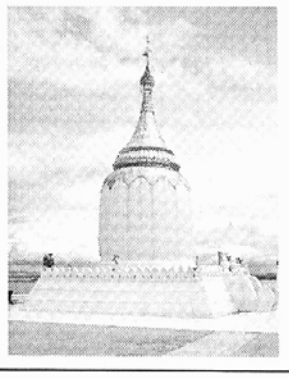
5박6일 특별가격 108만원

KAL 전세기 운항
(관계당국 승인조건)
1차:96.11.1~11.6 2차:96.11.5~11.10

부처님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비록 보화가 쌓인 산에 오를 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심의 손이 없는 사람은 삼보(불·법·승)를 만난다 할지라도 얻는것이 없으리라
- 심지관경 중에서





여행조건
1. 전일정 책식조찬(기내식 포함)
2. 왕복공항 리무진 버스
3. 특급 및 일급호텔 이상 사용 (2인1실 기준)
4. 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명 이상 출발
5. 최고 1억원 보상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 전문투어 가이드 동행
※ 상기요금은 서울 김포공항 출발기준 요금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1일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양곤 행발. 미얀마 양곤의 잉글라돈 국제공항 도착 지체공항우 오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중-기내식, 석-한식

2일 오텔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파간 행발. 도착우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으로 조성된 유적지 순례(쉐지곤, 쉐산도, 탓빈유, 아난다, 부파야, 틴로민로사원)
■HOTEL : 일급 HOTEL ■식사: 조-오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 오텔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도착 시가잉 이동 (1시간소요). 100여개의 파고다 순례우 만달레이 귀환 쿠소도, 마하간다요수도원, 마이라무파고다 등 순례우 오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오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 오텔에서 아침공항우 항공편으로 양곤 이동, 전일 양곤지역순례 (마하위자야, 보타타웅파고다, 차욱탓지와불, 마하시수도원) 오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오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5일 오텔에서 아침공항 오전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 순례. 오후 부처님 진신사리 천건 정대법회 (메바에파고다) 및 한 미 불교대법회 우 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HOTEL : 기내박 ■식사: 조-오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6일 김포국제공항 도착
※ 성불하십시요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문체부 일반여행업8호

예약·문의 726-5763~6

후원 :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미얀마 종교성 / 주한미얀마대사관

부산 : 463-2115 / 대전 : 252-2034~5 / 대구 : 426-6706~8 / 광주 : 228-0041~2 / 경주 : 745-3070~3 / 제주 : 42-7217

"생태계 보존노력은 보살심"

불교자원봉사련 '제1회 환경세미나'

여성 생활속 자연보호 운동 앞장서야
사섭법 '자연-인간공존' 방법 구체 제시



◇자연보호 실천운동에 대한 여성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불교사상이야말로 병든 자연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믿음에서다. 〈사진은 경물련 환경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

불교사상이야말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주장은 여러차례 제시돼 왔다. 불자 여성들의 자원봉사단체인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불교의 사상을 생활속에 용해시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견해 외에 눈앞의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남성의 단세포적 사고·행동방식이 환경위기를 초래했기에 생활의 주창조자인 여성들이 앞장서 폭넓고 적극적인 환경보존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제1회 불교여성환경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4일 조계사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 환경세미나에서 박정례씨(前 MBC PD·환경지도관)는 '불교사상과 환경실천운동' 발표를 통해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원상복구나 자연보존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제 대한 발상전환과 함께 불교사상 전개를 통한 환경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환경문제와 불교사상과의 연계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환경위기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위의 업보라는 연기법. 따라서 박씨는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전환과 근원적 치유책으로 인간존중 사상·사섭법(四攝法)·무욕(無慾)사상·불국토사상을 제시했다.

일체의 생물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인간존중 사상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공존과 조화의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사섭법은 인간상호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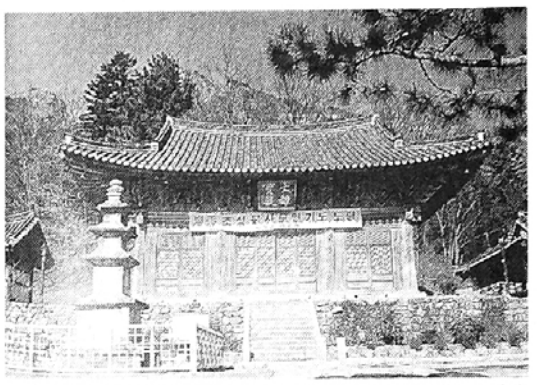
또 환경위기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과도한 욕구에서 비롯된 만큼 '족함을 아는 생활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무욕사상이야말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인간의 물질적 다툼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유마경〉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는 〈법구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불국토사상을 강조하고 불교계는 불교사상을 생활의 실천으로 연계시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아씨(한국여성환경네트워크 위원장)는 '여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발표에서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생태학적 차원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눈앞의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는 남성의 단세포적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개인적 환경운동 실천과 사회적 의사표시 등 여성들간의 연대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림씨(명예환경감시원 중앙회 강사)는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에서 8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는 있으나 실천적·조직적 환경운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의 행사위주 환경운동을 지양, 전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직 구성과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계, 지역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조선중기의 목조건축물인 내소사 대웅전(보물 제291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건물로 정면 3칸은 모두 정교하게 소슬빗살창호를 달았다.

내소사

대웅전

鐸鳴鐘落又竹篁
(탁명종락우죽비)
鳳飛銀山鐵城外
(봉비은산철성외)
若人問我喜消息
(약인문아희소식)
會僧堂裡滿鉢供
(회승당리만발공)

목탁소리 종소리 죽비소리 어울리니
은빛 산 속에 봉황새가 날아드네
누가 내게 무슨 기쁜 일 있나 묻는다면
당우(堂宇)에서 스님들께 발우가득 공양 올린다고 하리

해설 내소사(來蘇寺)는 전북 부안군 진서면 방가산에 위치해 있다. 신라 선덕여왕 2년에 창건된 내소사의 원래 이름은 소래사(蘇來寺)였다. 절 이름이 바뀐데는 중국의 소정방이 변산반도 석포리에 상륙한뒤 이 절에 찾아와 많은 재물을 시주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또 이 절의 대웅전은 매우 독특한 기법으로 지어 졌다. 못을 전혀 쓰지 않고 나무를 짜 맞춘 기법으로 세워진 것이다. 법당의 관세음보살상도 매우 아름답게 조성돼 있는데 관음보살의 화신인 황금빛 날개를 가진 새가 날아와 그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대웅전의 주련은 산 속에서 수행하며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양 올리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첫 구절의 목탁소리 종소리 죽비소리는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님들은 새벽을 여는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해 예불을 하며 목탁을 치고 참선이나 대중생활을 하며 죽비를 치는 것이다. 그러한 수행생활의 궁극에서는 성불의 소식을 듣는 것이니 산중에 봉황이 날아드는 기쁨이 바로 해탈의 소식일 것이다.

해탈의 소식은 모든 일의 자유로움이다. 당우에서 스님들께 발우 가득 공양 올림도 넉넉한 법열을 나눠 함께 성불하는 길을 여는 일일터이니 누가 기쁜 소식이 있느냐고 물으면 실상 그대로를 말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발우가득 공양 올리는 법열 나눔

"세계각국 대장경 CD한장에 담자"

美 랭카스터교수 '국제불전단체' 통해 추진

세계의 유수한 대장경을 한 장의 CD만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EBTI(The 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국제불전단체)에 의한 불경전산화(이하 불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BTI는 90년대초 랭카스터교수(美 버클리大)의 발의에 의해 조직된 국제적인 단체로 고려·신수·불광대장경, 빠알리어·산스크리트경전 등의 불전작업에 필요한 학술적 기술적 교류를 꾀하고 전산화에 필요한 통합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단체이다. 현재 불전작업은 경전전산화, 선적(禪積)전산화, 멀티미디어화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경전전산화는·지난 87년 태국이 빠알리어경전에 대한 전산화를 시작한 것이 처음. 그러나 빠알리어 경전은 분량과 내용에서 고려·신수대장경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90년대에 이르러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고려·신수·불광대장경의 전산화에 참여하면서 불전작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미국 등에서 빠알리어·티벳어경전의 전산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티벳어 경전 전산화는 '아시아 고전 입력계획(ACIP)'에 따라 티벳난민의 협조를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CD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적전산화는 일본의 우르샵교수(日 하나조노大)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1년 선불교국제연구소(IRIZ)를 설립하고 선불교 관련 문학·예술 작품, 인물, 참고도서, 선계도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한편 전자출판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 맥레이교수(코넬대학, 미국)는 중국의 돈황 유적지에서 출토된 경전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스님) 역시 세계 불경전산화 작업에 발맞추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고려대장경 CD를 출시한 성과를 거두었다. 〈욱〉

한·일·태 등 경전 전산화 교류 모색

가을맞이 불교 학술행사 풍성

'21세기 문명과 불교' 등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교관련 각종 학술세미나가 풍성하게 열린다. '불교의 진로'를 진단하는 동국대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해 불교의 역사적 고찰과 사회적 기능, 불교문화재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있는 불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듯하다.

◇학술발표회 일정

주 최	주 제	일 시	장 소
보조사상연구원	불교와 도시문화	10. 19	법련사
문화재관리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공동	무형문화재 제도보급을 위한 국제정책회의	10. 22~25	서울 타워호텔
동국대	21C 문명과 불교	10. 24~25	동국대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	고려 수월관음도와 신앙	10. 25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불교와 문학	11월초	동국대
한국불교연구원	종교와 국가	11. 9	동국대
한국불교학회	자유주제	11. 15	동국대
한국종교교육학회	여성에 대한 종교의 사회교육적 기능	12. 20	동국대
한국종교학회	해방후 50년 종교연구사	11. 2	동국대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미술의 대외교섭 I	11. 2	서울대 박물관
신라문화연구소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12. 6~7	경주교육문화회관

창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생활광고란을 아껴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생활정보가
이란을 통하여 불자님들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생활광고 - 문의 - (02) 737-8881 영업국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함,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밀양
자비정사
연락처 : 0527)356-5968
※ 공부하실 스님도 연락주십시오

기도·공부·휴양하실 곳
위치 : 지리산, 경남 하동군 악양면
형제봉 청학사
특징 : 1인1실, 욕실완비, 숙식제공
비용 : 월25만원
연락처 : 0595)83-2933

반야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 초급반 : 기초교리, 초발심 자경문, 기도 바르게 하는법, 선체조 1(단전호흡)
▶ 중급반 : 천수경, 반야심경 선체조2(단전호흡)
▶ 참선수행반 : 육조단경(한문원전강의), 참선특강 선체조3(단전호흡), 정신통일법 1년이 2번 수련대회를 실시함
▶ 고급반 : 금강경(한문원전강의), 법화경(한문원전강의)
모집방법 : 정규반 40명(각반 선착순모집)
수 업 료 : 30,000원
개 강 일 : 불기 2540년 96년 10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9시
접 수 처 : (심담문의) (02)434-7806,011-574-8879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 (상봉동 전영2차APT 213동앞 반야사)
※ 개강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가족법회
※ 매주토요일 : 오후3시 어린이 법회(태권도 천자문)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 불교대학 학장 혜천 합장 ☎ 434-7806
관 인 반야유치원 ☎ 208-7806,432-7767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목재(원목) 수입판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심원B/D(을지로 2가)
문의: 02)266-2629 ,팩스: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하셔도 무방하고
가족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스님께서 약초로 보살펴 드립니다.
청명사 연락처 : 0374-34-1652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탈종 무효 공고
사찰명 : 한국불교 태고종 대승사
대표자 : 주지 이 철재(법명 : 운오)
소재지: 충암 언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상기 사찰은 1996년 10월 9일자 (제97호)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탈종공고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일
한국불교 태고종 대승사 주 지 이운오
신도회장 홍화자
총무 김진순

직인 무효 공고
사찰명 : 한국불교 태고종 대승사
대표자 : 주지 이 철재(법명 : 운오)
소재지: 충암 언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은 1996년 10월 9일 개인하였기에 전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일
한국불교 태고종 대승사 주지 이운오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음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당 안내
부산동래구 안락동
평수 : 35평
법당·주방시설완비
연락처 : 782-1923

포교하실 분
인구 밀집한 도심지역에 포교원력을 세운 불자를 찾습니다.
법당 : 40평(주방시설, 방 2개)
연락처 : 0331)252-5659(법성화보살)

사찰 및 기도도량 부지 안내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건평 : 2만7천여평(준농림지역)
인연으로 함께할 불자님께 염가로 제공합니다
※ 가격 상담후 결정
연락처 : 02)719-6362

도반을 구함
조계종 불자로 투철한 수행정신을 갖고 직업에 종사하는 60~65세의 독신거사로 도반으로 지낼분
연락처 : 3421-0527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성북리 393-1
대원사
☎ 0331-262-0606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 지 : 1400평 (가격 1억6천)
■법 당 : 12평, 요사채 : 20평(방3개)
■사무실 : 12평(방2개), 주차장 : 200평
■가 격 : 1억6천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완비, 지장보살 기도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사찰 안내
■위치 : 목포시내(교통편리)
■부지 : 548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채 30평 ■비용 : 3억 2천만원
연락처 0631-78-1055

불교예절 교육 자아형성 바탕

종립청담종고 '교학수업' 학생들 호응

목요일 5교시. 점심시간을 끝마치고 방송 예절교육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음악이 5분간 흐른다. 이어 입정들면서 10분간 명상이 이어지고 학생중 1명이 나와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5분 훈화시간에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는 스님께 합장인사하자는 얘기가 끝나면 음악이 5분간 흘러나온다. 곧이어 금주의 훌륭한 인물과 오늘의 찬불가가 이어지고 다음주 과제가 제시된다.

이것은 종립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의 수업현장이다.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불교교육을 자율적인 예절교육형태로 바꿔 불교적 인격형성을 이루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절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교학수업은 지난 11일 불교교육연합회의 제 26회 교육연구회에서 백미나교법사(청담종고)가 '불교적 자아형성을 위한 예절교육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발표, 참석한 각 종립학교 교법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자리에서는 종립학교 교학수업의 중요성으로 학습내용의 습득뿐 아니라 사회에서 예절과 사회규범 그리고 조화와 질서의식을 배우는 것을 꼽았다. 또한 종교의 이론습득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예절을 바탕으로 심신을 정화시키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자아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처럼 청담종고 예절교육은 교학수업의 궁극적 목표인 불교적 인간상 추구가 이론적이고 주입식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케 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종고 교학수업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교학수업을 통한 예절교육과 법당수업을 통한 실천적 예절교육,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적 예절교육이 그것. 1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매주 1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교학수업을 통한 예절교육은 불교의 기본교리와 사상을 교육함은 물론 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와 정신을 일반생활에 응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살의 길이라는 교과과정의 교육을 통해 보살의 의미와 '사홍서원'을 학습하고 예절교육내용으로 다함께 사는 사회를 통해 공동사회를 추구하는 것.

또 법당수업을 통한 실천적 예절교육은 법당출입시 합장반배를 통한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단정한 몸가짐을 통해 맑은 마음자세를 만들어 주며 예불의식을 통한 화합과 조화 용맹정진법회를 통한 단체행동규범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해온 백미나교법사는 "예절교육형태의 교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상을 고취시킬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담종고는 지난3월 1학년 신입생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시간에 대한 생각은 47%가 유익하고 배울점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35%가 입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법당수업을 한후 학생의 느낌에서는 친근감있고 편안하다가 46%인 반면 24%가 무섭다는 반응을 나타내 불교에 친근감을 주는 새로운 교학수업의 실시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김원우 기자



◇ 예절교육을 통한 교학수업은 예절을 바탕으로 심신을 조화시켜 불교적 자아형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학·법당·방송등 자율교육 매주 실시

"법당수업 무섭다"24%…포용 대책 필요

청소년 게시판

파라미타 전주지회 발대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 전주지회(지회장 혜일)는 오는 26일 전북교육대학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다.

전주고, 중앙여고를 비롯 21개교를 중심으로 출범하는 전주지회는 △민족문화 답사및 연구 △극토대행진 △극보보를 주변 정화 △건전놀이 보급 △백일장 △마음수련대회(참선) 등의 사업을 괄칠 계획이다.

(0652)251-4942

'청소년 범죄와…' 세미나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와 선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3442-0470

불교 레크리에이션 강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14일부터 4개월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교리, 찬불가, 싱어롱, 레크리에이션 댄스, 탈춤 등이 진행된다. (02)738-3933

조계사·능인선원등 사찰체육대회

'포교마당' 정착

신도·지역주민 신심함양 일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체육대회가 새로운 신행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찰체육대회는 불자들의 결속과 신심증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불자들만을 위한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사회적인 실천운동으로 회향코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체육대회를 통해 불법홍포와 신심을 증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각 사찰을 비롯 신행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신도들간의 결속과 지역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능인체육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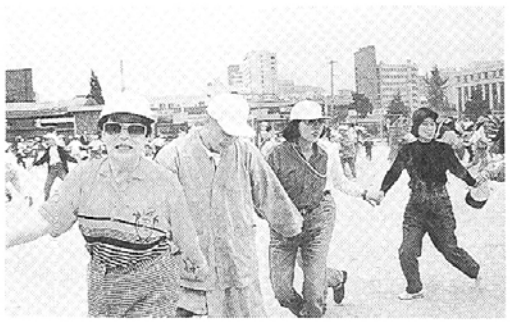
이번 체육대회는 그동안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생과 지역별 가정법회회원들이 참석, 줄다리기, 피구, OX게임, 가장행렬 등 화합의 한마당을 펼친다.

상계동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오는 27일 마들근린공원에서 제5회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물경기, 줄다리기, 춤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27일 육화제를 개최한다.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를 비롯 모든 신행단체가 참석하는 이번 육화제는 신행단체간의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회장 서정락·금정중교장)가 지난 13일 금정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대한불교청년회 강원지부(지부장 임철혁)가 20일, 청교련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26일, 각각 체육대회를 연다.

〈근〉



◇ 도심사찰의 체육대회는 불자들의 결속 및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다지는 새 '포교마당'으로 부각되고있다. 사진은 조계사 체육대회.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부처님은
자비스런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이 향 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외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라는 도구를 빌리기는 했지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벌스럽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법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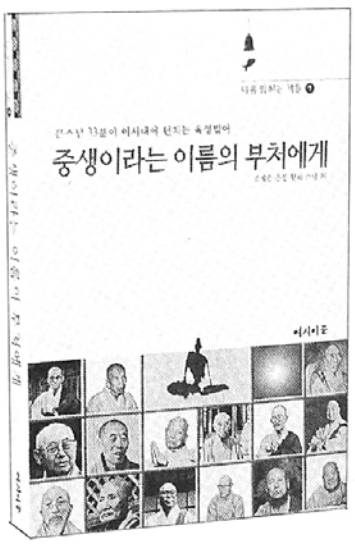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의 마음 밝혀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살아야 할까" 33고승에게 듣는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본지 지상법석 1차묶음

수행의 결정 쉽게 이야기한 생활 活句
한국 불교선맥 가늠하는 법어집 평가

살아있는 전설, 한국불교의 큰스님 33인이 이 시대 불자들을 향해 토해 낸 사자후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본사 부설 도서출판 여시아문은 본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현대 한국불교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는 33인 스님이 이 시대에 던지는 육성법어를 한 데 모은 법어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펴냈다.

〈…부처에게〉는 본지 창간부터 독자들에게 최고의 인기코너로 자리매김하며 인기리에 연재중인 '지상법석(紙上法席)'에 출연한 큰스님 가운데 종정 및 전 종정, 원로회의 의장, 5대총림의 방장스님들과 오랜 정진을 한 원로스님들 가운데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한 33인의 법어를 여과없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 입적한 송광사 방장 승찬스님을 제외하고 전원이 생존하는 현대 고승이란 점에서 살아있는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법어집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처에게〉는 또한 생존하는 큰스님들의 상당법어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는 사실도 관심을 모으지만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전국 각지의 산간오지에 주석하고 있는 큰스님을 직접 친견하기도 힘들뿐더러, 생존하는 큰스님의 법어를 현재의 사진과 함께 기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큰스님이 불자들을 마주해 얘기해 주는듯한 구어체 법문이 큰스님들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사자후를 생동감있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책에 수록된 스님은 월하 서옹 혜암 원담 승찬, (이하 가나다 순) 고송 관응 능가 대정 덕암 도원 범룡 범행 벽암 비룡 서암 석주 성수 성찬 송담 송월 숭산 우룡 운제 월산 일타 지종 진제 철응 청하 청화 화산 활안 스님. 속세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고승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33인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적인 대표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2부중(二部衆)'이라는 오랜 승가의 전통에도 불구 비구니 스님이 한 분도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부처에게〉는 독자들에게 시사성있는 신문 지면을 통해 시의적절한 생활속의 수행 방편을 현실감 있게 전한 큰스님들의 법문이란 점에서 그야말로 어지러운 현세에 '활구(活句)의 법음(法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국판 336쪽, 7천원.

김재경 기자

법장의 화엄교학사상 규명

계환스님 '중국화엄사상사 연구' 펴내


◇계환스님

중국화엄사상을 집대성한 법장(法藏; 643~712)의 화엄교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등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계환스님이 펴낸 〈중국화엄사상사연구〉(불광 刊)가 그것. 계환스님이 일본 교토(京都)불교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연구〉를 번역 수정한 이 책은 종래 법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화엄사상이 중국인의 의식구조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를 밝힌 이 책은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杜順)으로부터 5조인 종밀(宗密)을 비롯, 이통현장자(李通玄長者)와 혜원(慧苑)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화엄종장들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화엄사상사는 물론 중국불교사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제1장 〈화엄경〉 역경의 전모와 화엄종 성립 이전까지의 연구 경향, 제2장 화엄교학 성립의 모체인 지론(地論)·섭론(攝論)학파의 교학 규명, 제3장 법장의 전기, 제4장 법장 저작에 관한 제문제, 제5장 법장교학의 사상사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고찰, 중국불교사에서의 법장의 위치를 재검토했다. 법장은 전불교의 종합화를 지향한 중국화엄사상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다.



출판학제

반야심경 해설서 2권 동시출간

백운스님·송지호법사

〈반야심경〉 해설서 2종이 도서출판 대흥기획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백운스님(강원불교대학장)의 〈반야의 세계〉와 송지호법사(전 군산수산대 교수)의 〈반야의 가르침〉이 그것.


◇백운스님


◇송지호법사

백운스님의 〈반야의 세계〉가 전통적인 〈반야심경〉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 원전 해석에 치중한 반면, 송지호법사의 〈반야의 가르침〉은 심경에 나타난 난해한 용어를 다양한 경전과 구체적인 예를 들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반야의 세계〉는 〈반야심경〉 주석서인 〈반야심경 사관해(事觀解)〉와 〈반야심경 이성해(理性解)〉를 원전으로 하여 자세한 해석을 달았다.

〈반야의 가르침〉은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야 지혜(마음자리의 밝은 빛) △바라밀다(본바탕으로 돌아가는 마음) △6바라밀(원래 간직한 마음) △5온 개공(몸과 마음의 정체) △색즉시공(의심을 끊은 상쾌한 마음) △12인연법(탐욕과 애욕을 버리는 마음)△구경 열반(얻을 없는얻음의 마음) 등 어려운 용어를 예를 들며 쉽게 설명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4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그 마음을 바꿔라	김 재 웅	용 화
7	법화경 요품강의	현 해	민 족 사
8	무소유	법 정	샘 터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금강경 육조대사 구결 — 이동형 옮김



〈대장부론〉의 저자 이동형씨가 펴낸 〈금강경육조대사구결〉은 1084년 고려 나적(羅適)스님이 서문을 쓰고 편찬한 〈금강경〉 육조해의(六祖解義)와 구결(口訣)을 번역한 책이다.

조계선(曹溪禪) 이해의 필독서로 널리 읽혀 온 〈육조단경〉과 〈금강경구결〉의 번역서는 다수 나와 있지만 나적스님 판본의 육조해의와 구결이 번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본이 기존의 다른 판본과 3백여자 이상이나 다른 한자가 발견된 점도 서지학·교학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부록에 소개한 △5온과 100法의 관계도표 △18계 12처 5온과 색심(色心) 2법의 관계도표 △12연기와 3세인과 관계도표 등 4개의 도표는 유식학 관계의 도표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운주사 6천5백원〉

발굴이야기 — 조유전 지음



30년 넘게 고고학의 외길을 걸어 온 조유전 국립민속박물관장(54)이 펴낸 〈발굴이야기〉. 1946년 경주 신라 호우총발굴이래 반세기에 걸친 발굴성과와 뒷얘기를 담은 이 책은 한국 고고학의 영욕과 저자 개인의 애환이 흥미롭게 묘사돼 있어 쉽게 읽을만한 고고학 저술이다.

저자가 참여한 대표적인 발굴작업으로는 무녕왕릉(1971년), 천마총(1973년), 황룡사터(1976년), 감은사터(1979년), 익산 미륵사터(198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저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발굴은 황룡사지 발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왜곡된 황룡사 가람 배치를 우리의 손으로 정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반면 감은사지 발굴 당시 허탕으로 끝난 대왕암 앞바다 '감은사 대종 찾기 작전'은 불확실한 제보로 느낀 허탈감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대원사 8천5백원〉

화제의 책 — 외책

고려 나적스님 판본 국내최초 번역

한국 고고학 애환 50년 뒷얘기 담아

명사추천 불서 100선

밀린다왕문경



김 종 명
(수필가·원각회보 편집인)

한글 대장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의 번역본과 쉬운 불교서적들이 잇달아 발행되어 불교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에서 간행한 현대불교신서 가운데 서경수(徐景洙)역 〈밀린다왕문경(彌蘭陀王問經)〉도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경은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의 왕 밀린다(Milinda)와 불교의 승려인 나가세나(Nagasena)와의 대화 형식으로 엮어진 경전이다.

한역으로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이라고 한 이 경은 동진(東晋)시대에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나 역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장경에는 2권으로, 송나라 장경에는 3권본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팔리어본도 있다.

사실 이 경은 경이라고 하지만 불설(佛說)이 아니며 나가세나와 밀린다왕이 문답한 요지를 적은 것으로 팔리어 삼장(三藏)에서는 장외(藏外)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인 바크트리아국왕 밀린다가 불교의 선지식(善知識)인 나가세나스님에게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스님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화형식으로 된 성전이다.

이 경은 그리스적인 사유(思惟)와 인도 내지는 불교적 사유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동서의 만남이라고 일컬어진 두 현자의 문답을 담은 점에서 사상적인 의의와 가치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부유한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난 나가세나 비구의 출가수도한 차례를 적고, 이어서 밀린다왕과의 문답에 이르러서는 왕이 불교에 대하여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는 낱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들어 증거하면서 불교 교리에로 귀납하여 그 이치를 분명하게 말하였다.

역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경은 현대인을 위한 불교입문서라고 할만큼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대목들이 많다.

그리스 王과 비구승 대화록
풍부한 사례로 교리 쉽게 설명

라 장경에는 3권본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팔리어본도 있다.

사실 이 경은 경이라고 하지만 불설(佛說)이 아니며 나가세나와 밀린다왕이 문답한 요지를 적은 것으로 팔리어 삼장(三藏)에서는 장외(藏外)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2세기경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인 바크트리아국왕 밀린다가 불교의 선지식(善知識)인 나가세나스님에게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스님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화형식으로 된 성전이다.

이 경은 그리스적인 사유(思惟)와 인도 내지는 불교적 사유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동서의 만남이라고 일컬어진 두 현자의 문답을 담은 점에서 사상적인 의의와 가치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부유한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난 나가세나 비구의 출가수도한 차례를 적고, 이어서 밀린다왕과의 문답에 이르러서는 왕이 불교에 대하여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나가세나는 낱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들어 증거하면서 불교 교리에로 귀납하여 그 이치를 분명하게 말하였다.

역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경은 현대인을 위한 불교입문서라고 할만큼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대목들이 많다.

이 경을 읽어나가는데 있어서 느낄수 있는 것은 질문의 하나하나가 조금도 낡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자신이 질문하여 의문을 풀고 싶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제기되고 있다. 나가세나 비구의 해답도 우리들의 심금을 울린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인도 일반의 특색이지만 유식한 불교의 학승이, 알기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아주 쉽게 풀이하려고 한 자세에는 누구라도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2천여년이나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나가세나스님의 해답이 다소 초현실적인 설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와 사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 그 핵심적인 면에 있어서의 상이점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인도 어린이들. 우리의 예전 모습을 연상케 한다.

기아·질병앓는 아이에 자비를…

JTS 21~28일 '녹수청산'서 '인도 어린이 사진전'

(사)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스님)는 '제3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견지동 현대불교신문사옥 지하 다원 녹수청산(736-3782)에서 인도어린이 사진전을 갖는다.

기아와 질병 문맹의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도 원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이번 사진전은 우리한국이 지난날 궁핍했을 때 여러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았듯이, 세계로 눈을 돌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생각케 하는 취지로 열린다.

배고파도 먹을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인도인 특히 어린이들이 어려운 생활가운데도 티없이 맑은 눈동자로 밝은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울려준다. 올해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를 맞아 한층 뜻깊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JTS가 인도에 운영하고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마을 어린이들의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 30여점이 전시된다.

천년세파 견딘 '서화세계' 초대



▲실상사홍척국사 부도의 사천왕상.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입가에 띤 미소를 탁본에서는 잘 알아볼 수 있다.



◀미황사 설봉당 부도 연꽃문양.

미황사등 23개 고찰 탁본 1백93점 전시

서울·대구·광주등서 부도·비문 탁본展
육안엔 안보이는 섬세한 문양 볼 기회

불교신앙의 예배물로나 고승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부도, 탑, 비 등은 모양에 정성을 기울일 뿐 아니라 장엄과 찬탄을 위해 겉에 아름다운 문양들을 조각해 놓았다. 이러한 부도와 비문의 문양탁본을 한자리에 모은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달마산 미황사가 주최가 되어 오는 26~31일 서울 불일미술관(733-5591), 12월1~10일 대구 예술마당 솔(053-427-8141), 12월 17~21일 광주 라인문화관(062-672-1112)에서 개최되는 탁본전에는 미황사와 9산선문을 비롯한 전국 23개 고찰의 석탑과 비문에서 떠온 문양탁본 193점이 전시된다. 미황사의 고압당(孤鴨堂)부도, 태안사 혜철스님부도, 실상사 홍척국사 및 수철화상 부도, 굴산사지 석천신장상, 선운사 백파스님비문, 대흥사 추사글씨 무량수각, 화엄사석탑 비천주악상, 홍천물걸리 불상광배 등 빼어나면서도 시대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양들이 선보인다. 특히 30여기가 넘는 부도군으로 유명한 미황사의 문양은 연꽃 오리 거북이 방아찧는 토끼 사슴 물고기 도깨비 등 민속적이며 일상생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18세기 조선시대 민화와 같은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준다.

또한 9세기 구산선문의 석조물의 장식문양들은 우리나라 고대양식의 꽃이라 불릴만큼 화사하고도 사실적인 멋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이 들어가 있는 문양의 다양한 멋도 볼거리지만 천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풍우등으로 인한 마모때문에 육안으로는 보기힘든 섬세한 율동과 양괴감을 탁본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점도 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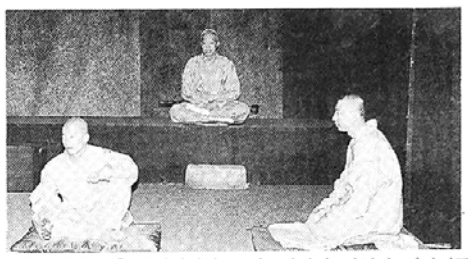
유홍준교수(영남대 미술사학)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탁본의 현장에 가보았던 사람은 육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양들의 수려한 자태에서 신비함마저 느끼게 될것이며 현장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탁본문양이 새겨져 있을 그 석조물의 실물을 현장에 달려가 보고픈 충동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며 말없는 돌덩이라고 예사로 볼일이 아니라는 깨우침을 주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

연극평

뜰앞에 잣나무

극단 '완자무늬'의 '뜰앞에 잣나무(원담스님 작 김태수 연출)'는 상연되는 2시간 내내 관객들을 긴장시키는 연극이다. 가벼운 연극이 판을 치는 동숭동 연극거리에서 '뜰앞에…'는 크게 두가지 사실을 통해 보는 관객들에게 화두를 던진다. 현대한국불교사의 최대 사건중 하나이면서도 아직까지 진상이 묻혀 있는 10·27 법난을 소재로 삼아 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치욕을, 피해당한 스님과 그 주변사람들을 그림으로써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우선 파격적이다. 80년 10월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스님들은 수백여명이지만 90년대 오늘을 사는 불자들 역시 연관되어 누구도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인도에서 귀국한 광렬(오광록 역)은 어머니의 권유로 일운스님(조종원 역)의 문상을 가고 곧 그 스님이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게되며 충격과 갈등이 깊어진다. 생부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운스님이 10·27때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10·27의 진상을 알게되면서 광렬은 자신과 어머니, 생부 일운스님, 그리고 친아버지인줄 알았던 양부 등이 서로 피할 수 없는 과보의 끈속에 얽혀있는 인과를 발견하게 되고 왜 일운스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묵묵히 견디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차츰 풀게 된다. 광렬은 10·27 당시 일운스님의 고문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어느덧 운동권이었던 자신이 모진 고문을 못견뎌 동료이름을 줄줄히 댔던 기억을 되살린다. 일운스님이 자비원(장애인 부랑아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버틴데 비해 고문에 끝내 굴복한 자신의 행위를 대비시키자 생부에 대한 이해가 솟아나며 개인의 행위가 그냥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나아가 사회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연극의 마지막부분에서 일운스님의 도반인 만화스님이 광렬에게 "네 눈에만 들려고 사시사철 국화를 가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욕심일뿐"이라는 말과 함께 '뜰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던져줄 때 관객들은 광렬과 함께 화두를 받아들게 되는 것이다.

극적 무대장치없이 조명만으로 변화를 준 것은 인물들의 대사에 한층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구어(口語)에 의지한 극의 진행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숙〉

개인과 사회 '인연고리' 풀어내

김달진시인 작품 엿보기

문학 심포지엄·백일장·도서전 등 다채

경남 진해서 18~20일 제1회 문학제



◇김달진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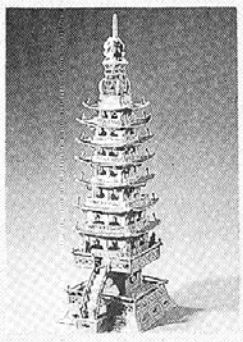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양적 정신세계를 시로 용해시켜 낸 시인 및 불교학자 월하 김달진의 삶과 작품세계를 기리는 문학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의 고향 경남 진해에서 펼쳐진다.

오는 18일 저녁 7시 진해시민회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동안 청소년문학의 밤, 백일장, 기념강연, 문학심포지엄, 김달진시인 생가방문 등의 행사와 한국근현대 교과용도서전시회가 개최된다. 19일 오후2시부터 진해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문학심포지엄은 '한국현대시와 생명문제'를 큰 주제로 정과리(충남대 교수) 김주연(문학평론가) 박준건(부산대 교수)씨가 발제자로 나서고 양운진(경남대교수) 김영호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김장호시인이 '김달진과 불교문학', 김윤식(서울대 교수)씨가 '이하석의 시세계' 유종호(연세대 교수)씨가 '한국시의 언어와 정신'이란 주제로 기념강연을, 올해 김달진문학상 수상자 시인 송수권씨가 자신의 시세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문학심포지엄에는 김종길 박완서 오세영 김재홍 최동호 박덕규씨 등 문인 1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월하 김달진 시인은 지난 1907년 진해시 소사동에서 태어나 1929년 〈문예공론〉을 통해 등단했다. 30년대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등과 '시인부락'의 등인으로 활동한 김달진은 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운악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39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 승려생활을 했으며 1964년부터 운허스님과 함께 동국대 동국역경원 심사위원 및 역경위원이 되어 고려대장경 역경작업에 몰두했다.

지난 83년 불교정신문화원에 의해 '한국고승석덕'으로 추대됐으며 지난 89년 별세했다. 저서로는 시집 〈청시〉, 김달진시전집〈올빼미의 노래〉, 장편서사시집〈큰 연꽃 한송이 피기까지〉와 〈한국선시〉 〈붓다차리카〉 〈보조국사전서〉 〈금강삼매경론〉 〈법구경〉 〈당시전서〉 〈한국漢詩〉 등의 번역서가 있다. 〈숙〉



불상등 고미술 230점 전시

다보성 전시관 26일까지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불상 3점과 범종, 고려시대 삼층·칠층(사진)·구층 청동탑과 소형 범종, 조선초기 분청철화어문병 등 아름다운 고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전시회가 열린다.

다보성고미술전시관은 오는 26일까지 불상 불탑 범종등 불교유물 20여점, 고려청자 백자 분청사기 토기등 도자기 80여점, 서화 50여점, 민화 30여점, 목기류 30여점등 총 230여점의 명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다보성고미술관측은 오는 11월 1일 전시현장에서 경매를 실시한다. (02)581-5600·

문화 소식

월하시조문학상 제정

원로 시조시인 월하(月河) 이태극씨(83)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월하 시조문학상'이 올해 제정된다. 민족문학인 시조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등단 10년이상의 시조시인 및 시조연구·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월하시조문학상은 △시조작품상 △시조 학술(평론)상 2개 부문으로 나뉘어 매년 10월께 시상될 예정이다.

동국청소년 연극 영화제

청소년 연극 영화인 발탁을 위한 '동국청소년 연극영화제'가 오는 2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개막된다. 미래 문화예술계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게 연극 및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작품창작 행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동국청소년 연극 영화제'에는 지금까지 경기 인천 광주 마산 청주 등 20여개교에서 참가를 신청했다.

준비위원회(위원장 신영섭 연극영상학부 교수)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대본심사로 결선참가작을 결정, 오는 26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연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체와 개인으로 나뉘 시상되며 개인상 수상자들에게는 동국대를 지원할 경우 입학시 특전도 부여한다. (02)260-3942

'찬불동요' 테잎2집 나와

어린이 청소년 찬불가전문제작기획사 '숲(대표 이종만)'은 '찬불동요 창작곡 제2집'〈사진〉을 펴냈다. 황학현 최미선 나동욱씨등이 작사를 하고 민선희 유익상 최미선 나동욱 박이제 정유탁씨등이 작곡에 참여한 이번 찬불동요집에는 '스님생각' '부처님 되리라' '끼리끼리' '나의 큰소원' '기릉빈가'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곡과 새로 작곡한 곡 등 16곡이 들어 있다. (02)730-7525



임이조 전통무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이매방류) 이수자 임이조씨(46)가 지난 13일 KBS홀에서 '춤인생 41년, 한이 깊으니 흥도 깊더라'를 주제로 한 전통무 공연을 가졌다. 제1부는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 한량무 등 대표적인 전통무와 경기민요창·판소리 등 노래와 춤의 만남으로 엮어졌고, 2부는 무속음악에 춤을 형상화시킨 창작무 '신무(神舞)'가 공연됐다.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이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한 줄의 광고카피가 상품의 인기를 결정하듯 한 컷의 사찰 광고가 사찰과 종단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다.

불교TV의 개국이후 불교영상포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홍보 또한 TV전파를 이용한 30초의 미학 '광고'가 도입돼 주목을 끈다.

낙산사, 옥천사, 남해 망운암, 우리절, 한마음선원, 제주 약천사등이 이미 이같은 사찰광고를 불교TV로 방송했으며



◇동해를 바라보는 해수관음상의 아름다운 자태를 영상에 담은 양양 낙산사의 btn 사찰광고.

업에 한창이며, 승가사와 진관사는 내년 4월까지 불교TV 간판프로그램의 하나인 '선재스님의 푸른요리' 협찬광고를 방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총지종, 진각종, 연주암, 봉은사, 조계사, 법련사, 여수 향일암, 부산 혜원정사, 화엄사, 마곡사, 직지사 등의 사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같은 사찰광고는 공중파 방송에 비해 낮은 광고수익을 만회하는 종교방송사만의 특이한 방법. 더불어 TV에 익숙한 불자들에게 영상으로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불교를 느끼게 하고 그들을 법당으로 이끌어내는 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 광고(제작 현대프로덕션)도 매일 '날마다 좋은날'(10:15~11:05) 프로그램에 이미지광고로 방송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btn

사찰홍보 CF 제작 '바람'

한마음선원 · 구룡사등 7곳 방영…13곳은 대기중

현재는 구룡사가 사찰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 도선사와 밀양보문사가 10월중 방송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중이다.

청담종고 개교 20돌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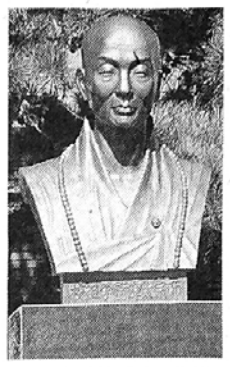
음악회 · 휘호전 · 성상제막식 등 다채

종립청담학원(이사장 통광스님)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예술제 전시회 한일청소년 교류행사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청담스님 25주기이기도해 지난 11일 스님의 성상 및 생애비건립 제막식은 개교기념행사의 하일라이트였다.

또한 지난 9일 개교기념식에 이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는 세종관현악단 초청연주회가 열렸다.

이어 10일에는 자매학교인 일본 부사학원 수학여행단이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눈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장기자랑과 축구경기를 갖기도 했다. 또 경기도 도립극단을 초청하여 '무엇이 될꼬하니'도 공연됐다.

이와함께 전시회로는 청담스님일대기와 청담학원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와 유품휘호 10여점이 최초로 전시된 청담스님 휘호전시회



◇청담종고에 세워진 청담스님 성상

청소년시화전 가사작품전시회 등도 개최됐다.

각원사 국내최대 대웅전 낙성식

착공 10년만에…삼천불 조성도 추진

천안 각원사(주지 법인)는 15일 단일건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10여년동안 총55억여원의 불사비로 낙성된 대웅보전은 2백평에 전면7간 측면 4간으로 외9포 내20포의 불교전통 양식으로 건립됐다.

주지 법인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부대중이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웅보전을 건립하게 됐다"며 "향후 포교와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원사는 지난 77년 남북통일 기원 청동대불사 조성을 시작으로 칠성전, 관음전, 범종루, 요사채 등의 불사를 회향했으며 앞으로 삼천불조성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TV 자체 제작율 83%

국감자료서 밝혀 CATV 26사중 9위

불교TV의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한 82.7%로 전체 26개 케이블TV가운데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최근 국회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TV의 재방송비율은 95년 54.5%에서 66.1%로 비교적 증가해 전체 케이블TV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종 소비자보호위 업무개시

5개 도시 사암련에 '창구' 마련 11월 불교소비자대학 개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총지종 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출범이후 3개월간 기초자료수집 및 준비작업을 거쳐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총지종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는 지난 7일 종단협으로부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자체기금 2천만원등 3천만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서동석(전 민불련의장)씨를 기획실장으로 영입했다. 이와함께 전문요원배출의 관건이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비롯한 장단기 주요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구체화된 피해구제사업으로 '불교소비자보호센터 고발전화'를 설치하며 소비자의 불만이나 상품구입 사용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전화 팩스 우편 또는 PC통신으로 접수받는다. 일단 접수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키로 했으며 수도권 및 부산 광주등 5대도시 사암연합회에 소비자불만처리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또 전문요원배출을 위해 11월 초부터 5주간 불교소비자대학(가칭)을 총지종 법장원에 개설, '불교의 경제윤리와 현대사회' '소비자 관련 법률의 이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정보화시대 소비' 등 10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기마다 2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보호위원회는 소비자운동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출판매체나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사업을 벌이기로하고 자체소식지 발간, PC통신망에 불교소비자보호방개설, 소비자보호관련 책자발간 등을 꾀하고 불교계 각종 언론을 활용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기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방송가 소식

대구불방 초대 지사장 법타스님 선임

불교대구방송은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초대 지사장에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을 선임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영위 부위원장에 락혜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법조스님(고운사 주지)을, 감사에는 혜공스님(관암사)과 법일스님(기림사)을 선출했다.

'한국의명찰' 2집 발매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은 '한국의 명찰' 제2집을 17일 부터 발매한다.

또한 11월에는 불교TV 다큐멘터리 '티벳불교'도 비디오로 출시할 계획이다.



천태대사 3국합동 추모재

도용종정, 명양중국불교협회부회장, 우메야마 좌주 등 한·중·일 천태종 대표들이 지난 1일 일본 연력사에서 봉행된 천태대사 열반 1400년주년기념 3국천태종 합동대법회에 참석했다. 합동법회에서는 일본 천태종 스님들이 성명(범패)의식을 시현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념비가 제막됐다. 〈본지 97호 참조〉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님 · 조항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며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튿날 선종 본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일시:1996년 10월 26일 (토, 음력 9월 보름) ~27일(일) 〈1박 2일〉

◇일정
- 26일: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철야정진도 가능)
- 27일:수덕사-방장 원담스님 친견 (주지 법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집결지
- 서울:10월 26일 오후4시 조계사앞 (관광버스 대기)
- 부산:10월26일 오후1시 부산시민회관 앞 (관광버스 대기)

◇참가비: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원로불자 코미디언 임희춘씨 체육대회 열어 2만노인 위안



원로 불자코미디언이자 대한노인복지후원회 회장인 임희춘씨〈사진〉가 지난 10일 전국 2만여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전국노인 체육대회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었다.

임씨가 지난해 동료코미디언들과 함께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는 지난해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또 지난 5월에는 제 1회 노인예술제를 열어 별다른 여가공간과 시간이 없는 노인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지난 83년 연예인 불교신도회를 만들기도 했던 임희춘씨는 요즘도 부인과 함께 도선사를 찾는 신심깊은 불자다.

목탁소리

자리잡는 '인간방생'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어류나 조류를 놓아주며 가족이나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던 방생이 고아원 양로원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생명공양' '인간불사'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장(場)으로 확대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지난 13일 수덕사에서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형식의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또 봉선사(주지 운경)도 오는 17일 원주 소쩍새마을에서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으로 '인간방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소극적인 과거의 방생형태가 생활속에서 동체대비정신을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방생의 의미와 실천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기복성의 조장과 무분별한 방생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자들의 자연보호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간불사' '생명공양'에 대한 교계 내부의 자각의 소리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방생의 형태 변화는 사회적으로 불교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실장은 과거 기복적 행사로 그치는 방생형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군부대 교도소 병원 고아원 양로원 특수장애시설 등을 자비실현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구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방생의 형태는 '봉사하는 불교'가 곧 '수행하는 불교'라는 한차원 높은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단발적인 구호성 행사를 지양하고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성숙된 불자로서 '생명공양'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알리는 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比丘 鏡潭道光 禪師께서는 世緣이 다하여 佛紀 2540년 9月 30日(1996年 陰 8月 18日)午前 2時 40分에 스님의 토굴인 경주시 율동(두대리) 산 60-1 聖住庵에서 入寂하시어 스님의 뜻에 따라 10月 2日(陰 8月 20日) 午前 11時 聖住庵에서 永訣式과 茶毘式을 엄숙히 봉행하였음을 늦게 나마 紙面으로 알려드립니다.

佛紀 2540年 10月 日
慶州市 聖住庵
上座 空摩
巨芙 合掌

49齊 안내

지난 10月 2日(陰 8月 20日) 西部大衆이 지켜보는 가운데 茶毘式을 봉행하여 스님의 영롱한 법신사리 10과를 수습하였습니다.

49齊日은 오는 11月17日(陰 10月7日)午前 10時 聖住庵에서 봉행하겠습니다.

佛紀2540年 10月 日
慶州市 聖住庵
上座 空摩
巨芙 合掌

- 강제연행 구속된 진관스님의 즉각 석방을 발원하면서 -

자비와 평등의 실현이 곧 불국정토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오후 8시경 전북 김제에 소재한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종무감사를 마치고(금산사 주지스님, 중앙종의원 스님 4명, 총무원 호법부장, 총무원 직원4명) 전주 시내 모식당 앞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신 진관스님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직원과 경찰 2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슬퍼렇던 군부통치 시절부터 부처님의 파사현정의지로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서서 헌신하였던 진관스님의 행적은 불교계 안팎을 떠나 고마운 모습 중의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시대라 일컫는 이 시대에 진관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고유 업무인 종무감사를 수행 중인데, 종회의장단 및 종단 책임자에 대해 정부나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전격구속한 것은 진관스님 개인문제를 떠난 불교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르샤바에서 북한측 인사와 회담한 천주교 문성현 신부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수사가 기각되었던 전례를 생각할 때 법의 형평성에도 진관스님의 강제연행 구속 수사는 맞지 않습니다.

진관스님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로서 인권보호활동 등 소외되고 그늘진 이들의 편에서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미전향 장기수 노인들의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그 어른들의 송환문제를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우리 겨레의 끝없는 소망입니다. 성직자로서 진관스님의 소박했던 통일염원의 행동들이 관계당국의 지나친 노력으로 강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간 진관스님의 신변을 걱정하며 부당한 구속에 대해 조속한 석방을 노력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건강한 석방을 위해 계속되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심귀명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0(1996)년 10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동국대학 법학과 교수, 교수불자회 회장
법조학회 회장 한상범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보내주실 분은 아래구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구좌 : 006-21-0673-366 (박용모)

현불뉴스

불교산악회 합동산행

대한불교산악회(가칭)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월악산 세계사에서 창립을 앞두고 합동산행법회를 갖는다.

대한불교산악회는 불교산악인들의 전국적인 연합기구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 발기모임을 갖고 창립준비위(위원장 한계수)를 구성, 내년 창립 예정이다.

이날 산행은 전국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창립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운동단체 한마당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대표 지선)는 오는 27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불교운동단체 및 활동인력의 연대와 공동체의식 확보를 위한 한마당을 개최한다.

불교계 제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 및 상근인력 1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단체간 공동체의식을 도모하고, 불교개혁의 밑거름이 될 활동인력들의 불교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동국대 8백명 17일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은 오는 17일 체육관에서 제4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직지사 회주)을 계사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등 8백여명이 수계를 받을 예정이다. (0561)770-2016

부경대 불자교수회 창립

부경대학교불자교수회(회장 하만경)가 오는 17일 부경대학(구 수산대) 대강당에서 서암스님을 초청,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부경대학불자교수회는 수산대교수불자회와 부산공업대교수불자회로 각각의 조직을 갖고 활동해오다가 두 대학이 통합됨에 따라 부경대불자교수회로 창립되었다.

13회 방송작가 세미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6, 17일 백양사에서 제13회 방송작가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및 불교방송 불교TV 작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신영훈 불일문화원장과 진철승 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소사 참배로 진행된다.

불자산악인 히말라야 무산소 등정

변미정씨 여성 최초 초오유봉(8,201m) 정복

"관세음보살 염송하며 죽음공포 극복했어요"

"8천m 고지를 넘어섰을 때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고비를 넘겨 그 하얀 산의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 6위 히말라야 초오유봉(8,201m)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우바이(여성불자) 산악인 변미정(29)씨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무사히 등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변미정씨는 양산 마스터즈 산악회 회원으로 구성된 총 6명의 등정대원중 남자대원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산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8천m 고봉을 무산소등정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3일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른 변미정씨 일행 6명 모두가 불자여서 일까? 이들은 이번 등정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다. 바로 네팔 현지에서 수행중이던 한국의 영봉스님을 만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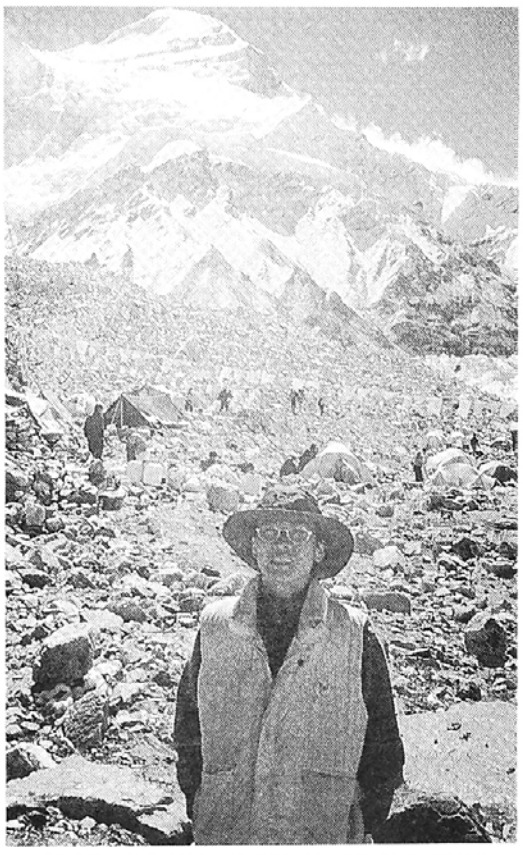
영봉스님(전 혜종스님)은 산악인들에게는 안나푸르나사봉을 등정한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산증으로 병원에 갔던 노종백(47)대원과 인연이 되어 5700m에서 합류해 조석예불을 해주며 6일동안 같이 머물렀다. 그러나 고산증을 극복하지 못해 하산한 스님은 등정 성공을 축원한다며 자신이 아끼는 염주를 대장의 목에 걸어주며 불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산행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산악인들이 산을 대하는 마음자세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산앞에서도 항상 겸손하며 산행중에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꿈꾸었던 법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산악인으로 최선을 다해 불법(佛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다른 정상 에베레스트를 향한 꿈을 꾸는 변씨는 적극적인 지원자이자 자신의 산행을 냉정하게 평가, 충고해주는 남편과 함께 네팔 트래킹을 계획중이다.

"앞으로 여성산악인으로서, 불자로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가꾸어 갈 것입니다."

〈마산=천미희 기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이겨내며 여성최초로 히말라야 초오유봉을 무산소 등정한 변미정불자. "산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며 겸손·생명존엄을 강조한다.



◇청와대 불교신행회 1백여명이 창립법회에 앞서 조계사 법당에서 108참회를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청와대불자회 5일 창립

1백여회원 보현행 실천 다짐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사회복지수석비서관) 창립법회가 지난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과 혜초 태고종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단대표, 신행단체장, 청불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개회에 앞서 청불회원들은 108참회로 순수신행모임으로 보현행 실천을 다짐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회장인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불회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자 1백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회장에 박세일 비서관, 부회장에 배재욱 사정비서관을 선출했다.

법회에 앞서 박세일회장과 이각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배재욱비서관은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하고 월주 총무원장에게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의 대형사진을 전달했다.

해인총림 방장에 법전스님 추대

산중대책위·중진회의

해인총림 산중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보광)와 해인총림 산중 중진회의(의장 고봉)는 지난 4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중진스님으로 구성된 방장추대위원회를 열고 부방장 법전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중진회의는 오전에 법전 일타 도견 지관스님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후에 회의를 열어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법전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했다.

분당한방병원 개원

동대, 7개 진료과 개설

동국대 한의대부속 분당한방병원(원장 이종형)이 지난 11일 개원됐다. 분당한방병원은 대지 5백40평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32실 1백여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침구과 한방내과 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등 7개 진료과가 개설됐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체질개선, 보양, 중풍클리닉 등 10여개의 특설클리닉을 운영한다.

조계종 승가대학원 개원

7일 은해사서 11명 입학…전문 교수인력 양성교육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원장 무비) 개원 및 입학식이 지난 7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법타)에서 봉행됐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개원·입학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월주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종하스님 법조스님 성관스님 이석수 경북도정무부지사 영천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승가대학원에 우리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인도 결사의 정신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승가대학원 및 일연학연구원 현판식이 함께 봉행됐다.

한편 승가대학원 교수진은 우룡 각성 종진 호진 상묵 현해스님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1기 입학생은 응각 대혜 법장스님 등 총 11명이며 2기는 3년후 모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양성을 위한 승가대학원이 은해사에 개설됐다.

학인스님 1백여명 골프장반대 거리행진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전국학인법회가 지난 14일 오후1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해인강원과 전국 승가대학 학인연합(전승련) 대의원 1백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개발의 미명아래 사찰환경 및 수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은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회를 마친 후 모조 대장경판과 해인골프장 반대문구를 적은 만장과 현수막을 들고 조계사를 출발, 교보문고 종합청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구독신청: 737-0691

"가야골프장 환경평가 잘못"

조성준의원 대구환경청 감사서 주장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사업주인 (주)가야개발이 지난 94년 사업을 재신청하면서 당초 18홀에서 27홀로 사업규모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 △골프장 건설예정지가 국립공원인 점 △식수원인 노리저수지가 골프장과 불과 4㎞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영재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채 오는 14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키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해인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등을 감사키 위해 국민회의가 신청한 해인총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산스님의 증인채택은 신한국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제모악산 놀이시설 개발 안된다"

금산사대책위 절 입구 호텔·눈썰매장 반대

금산사 모악랜드 조성사업 중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악산자락 현장에서 지난 6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장이 주관하는 김제개발공사의 모악랜드사업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모악랜드조성사업은 1백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악산 금산사 입구 1만9천평의 터에 눈썰매장과 놀이시설 가족호텔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원확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산사는 민족의 미륵성지인 모악산의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제시에 모악랜드 조성사업 재고를 요청하고 전북도에 모악산주변의 생태계와 문화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음 번뇌 애써 끊으려 하면…

번뇌 망상을 애써 끊으려 하지 말고 쫓아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 더 달라붙습니다. 그냥 주인공에 맡기면 됩니다. 허다 맡기면 그게 목석 놓는 것이지요.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제 21차 동학동문회 정기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맑은 가을하늘아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동학동문회 제21차 정기총회가 다음과 같이 열릴 계획이오니 각 분야에서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문회에 발전이 있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회 장학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 2540년 10월 21일 (陰9月10日)
오후 5시(저녁공양전까지)
장 소 : 계룡산 동학사 강설전
연락처 : 동학사 종무소(전화)042-825-2570
(팩스)042-825-6068

※ 10월9일자 공고된 양력 10월20일을 10월 21일로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특히 각 期대표 스님들은 연락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원들의 연락처를 책임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

성 명 서

- 모악랜드 조성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모악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미륵 성지이며 이천만 불자들의 귀의처인 금산사는 국보 1점, 보물 10점등 소장 민족 문화 유산과 더불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김제 시장이 주관하고 김제 개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악랜드 조성공사는 민족의 영산인 모악산과 미륵 제일 성지인 금산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니 이천만 불자들이 어찌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악산과 금산사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 영원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여야 할 것입니다.

천사백년의 수도 교화의 도량이 하루 아침에 유원지화 되는 일이 어찌 불교인들의 아픔으로 그치겠습니까.

김제시와 김제 개발 공사는 대오 각성하여 모악랜드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더이상 모악산과 금산사를 훼손하는 일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정한 도량, 맑고 아름다운 불국 정토 건설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모악산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 유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0월 일

모악산 금산사 모악랜드 조성공사 저지 대책위원회

건강백세 ㉕

폐 ①



공기 나빠져 폐암 확산
금연등 폐조직 보호 필요

폐(肺)는 인체의 호흡기능(呼吸機能)을 주관하는 장기이다.

호흡은 공기를 흡입(吸入)하는 흡기(吸氣)와 탄산가스를 포함한 노폐공기를 내쉬는 호기(呼氣)를 합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이다. 숨이 끊어지는 것을 생명이 끝나는 현상으로 보는것도 이 때문이다. 호흡은 피부를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역시 대부분은 폐가 담당한다. 공기중의 산소가 우리 인체에 공급되는 기전(機轉)은 폐포(肺胞)에서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이 산화되는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진다. 이때에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 가슴을 서늘하게 하라고 했던 선인들의 지혜가 새삼 놀라울 뿐이다.

호흡기능은 공기의 출입 외에도 수증기 배출을 통한 체온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수분흡수 기능을 갖는 대장(大腸)과 폐는 한의학에서 표리(表裏) 관계로 보아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열이 심할때에 변비가 생기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어서 진단이나 치료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기가 필요하다. 맑고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하며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된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가 이상적인 양질의 공기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느것 하나 걸리지 않는게 없는 불량질의 공기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오싹할 일이다.

예전에는 어느정도 습거나 더운 온도 또는 습기 따위에 시달려 왔지만 이정도는 콧속에서부터 인체가 잘 적응되도록 설계된 비강(鼻腔)을 거치는 사이에 먼지나 불순물이 거의 제거되고 온도습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어 폐속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요즘은 인체 자체로는 감당할 적응능력의 한계를 넘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함유한 유독성 가스등이 마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비점막(鼻粘膜)을 자극하여 분비물이 증가하고 재채기가 나는 등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전에는 폐의 병이란 주로 결핵을 의미했었다. 영양이 부족하고 위생관념이 희박했던 시절이라 무서운 속도로 만연했다. 그러나 영양조건의 향상등에 힘입어 폐결핵은 눈에 띄게 감소된 반면에 폐암은 우리들에게 '폐암공포신드롬'을 줄만큼 늘어났다. 담배를 마약의 일종이라고 볼 아 세우게 된것도 실은 직간접으로 흡연피해를 줄여 폐암을 막아 보자는 몸부림의 하나이다.

폐조직은 신경이 잘 분포되지 않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기때문에 조기치료의 기회를 잃는 수가 많다. 자각증상을 느낄때는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 주변조직이나 기관을 압박하거나 출혈 분비물에 의한 천식(喘息), 각혈등을 통해 알게되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轉移)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 병소의 진단과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마음에 쓴 금강경 ①

주부신행담

"불경으로 펜글씨 연습을 하는구나" 친구는 웃으며 따라 하라고 했다

친구의 권유로 법당이란 곳에 가게 되었다. 나는 종교에 대한 매력같은 걸 느끼거나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유교적 경향이 있다면 제사를 잘 챙기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조상 제사 모시는 일은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의 차원이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큰범한 집안의 살림꾼으로 살아오는 동안에도 나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나 초파일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던 내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법당이란 곳엘 가게 된것이다.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거기 가서 뭐하니?"

"뭐하긴, 부처님을 만나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께 절도 하고 불교를 배우기도 하는 거지."

"난 법당이나 절에 가면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싫어."

"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 그렇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 봐. 좋아질꺼야."

나는 정말 법당이 무서웠다. 울긋불긋한 색칠도 싫었고 향내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한번도 절에 안 가본 것은 아니다. 수학여행길에 들린 불국사에서 나는 절이란 곳도 참 멋진 구경거리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러나 절이 내 종교생활의 터전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두려운 인식의 벽에 갇혀있던 나는 절에 가게 되었다. 산속깊은 곳 경치좋은 절이 아니라 아파트촌 상가 건물의 절이었다.

"스님, 이 친구가 글쎄, 절은 무서운 곳이라지 뭐예요."

어색하게 절에 들어가 법당에서 친구가 시키는대로 절을 하고 스님방에 들어갔다. 스님께도 법당에서처럼 세번이나 절을 했는데 절을 마치지마자 친구는 재미있다는듯 그렇게 일러바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보살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게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챙피스런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삼세라고 해요. 이 삼세를 벗어 나지 못한 삶을 중생이라 하지요. 중생과 반대 되는 개념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벗어난 대자유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 기초교리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곧 불교가 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에 오는 것이 무서운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아무리 불교와 상관없이 살았어도 인연이나 윤회나 중생, 부처님등의 단어를 모를리는 없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법회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어색한 자세로 법당 한 구석에서 남들따라 절을 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스님을 따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염불을 곧잘 외우거나 책보고 따라 읽었다. 그 곡조가 너무 어색한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입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법회가 아니라 고역이었다.

대충 시간이 지나고 주지스님이 나오시더니 "오늘은 사경을 하는 날입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라고 했다. "네" 50여명의 신도들이 무슨 공책같은 걸 꺼내기 시작했다. 붓펜이나 싸인펜도 함께 꺼냈다.

"네 것도 준비 했어."

친구는 내게 공책과 붓펜을 주었다.



그림 · 이준석

"이게 뭐냐? 절에는 펜글씨 연습하는 시간도 있니?"

친구는 다시한번 재미나게 웃더니 그냥 따라만 하라고 했다.

책을 펴니 정말 펜글씨 교본같았다. 그런데 그 글씨가 좀 이상한 내용이었다. 첫장에는 한자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 점선으로 씌어 있었다. 나는 '불경으로 글씨연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오판이었다. 글씨연습이 아니었다.

최 선 덕 행
〈서울 노원구 중계동〉

♦ Hemavata said: Who in this world crosses the stream? who in this world crosses the sea? who does not sink into the deep, where there is no footing and no support?

설산아차가 물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 Bhagavat said : He who is always endowed with virtue, possessed of understanding, well composed, reflecting within himself, and thoughtful, crosses the stream that is difficult to cross.

현자가 말했다. 항상 계(戒)를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 He who is disgusted with sensual pleasures, who has overcome all bonds and destroyed joy, such a one does not sink into the deep.'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㊽

♦ Hemavata said: He who is endowed with a profound understanding, seeing what is subtile, possessing nothing, not clinging to sensual pleasures, behold him who is in every respect liberated, the great Isi, walking in the divine path.

설산아차가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에 통달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관능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해탈하여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facing (a) 붙잡을 것, 근거지(집), 지위
*composed (a) 구성되어, 모아두어, 침착한
*subtle (a) 심오한, 불가사의한
*clinging (a) 집착하는 달라붙는
*behold (v) 바라보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연 꽃 ③·<끝>

아나뚤리 김 作

"끝이야" 어머니 손에는 오렌지 연꽃이…



그림 · 심민섭

로효프가 도착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오렌지 연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로효프는 고통스럽게 헉헉거리는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힘들게 나오는 그 숨소리에 로효프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침대 속에서 남은 이불을 덮고 옹색한 약간의 온기를 보존하려고 애쓰는 동안 잃어나서 방에 불을 지펴야 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그때 '아직 살아 있는 어머니도 추울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서의 그녀의 도피도 더이상 어쩔 수 없는 큰 잃이지만 더 큰 잃인 것은 그녀가 추위와 고통을 계다가 사람의 결핍을 느낀다'는 걱정이 갑자기 든 것이다.

"아직 안 죽었니?"

문이 열리고 현관 바닥에 햇살이 펼어져 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은 어머니의 남편 늙은 박(朴)이었다. 그의 코밑에는 고드름이 붙어 있었다. 로효프는 그들의 인사를 못들은채 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 여자의 아들인가요?"

"이번이 세번째요. 뇌졸증 발작이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했소.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소."

로효프는 그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을 중단시켰다. 그럼지만 어머니의 병과 죽음에 대해 얘기하려는 의사의 의지는 계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냈다. 로효프는 그가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는 얼만큼 잘 알고 있을지라도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자체는 부처 서걱거리는 모래톱의 부딪힘을 연상케했다.

의사는 낫시간 다른 곳을 다녀왔다. 로효프는 자신의 피로도 잊은 채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어떤 고통의 연주처럼 들리는 것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곧 죽음에 든다는 사실이 사실같지 않은 혼돈 속에 역시 로효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지역 병원 의사요."

로효프는 그제서야 남자의 용모를 보았다. 그는 하얀 방한복을 입었고 그 밑에는 캠프 장화를 신고 있는 바지가 광공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가 앉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소."

의사가 말했다.

"그럴리가 없소."

로효프는 소리치며 충혈된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의사를 보았다. 어머니는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다가는 자기 승결의 폭풍같은 힘을 더이상 이겨내지 못하겠다는 듯이 쓰러지게 신음하기 시작했다.

"끝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마지막 숨이 몰려나갔고 얼굴은 금새 변해가기 시작했다. 로효프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와 난로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충분히 고통받았소…. 사랑하는 어머님."

로효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반듯하고 차가운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오렌지 연꽃이 쥐어져 있었다. 하나의 우주를 쥐고 떠난 어머니의 평온을 위해 로효프는 그 연꽃이 어머니와 함께 피어난 것임을 굳게 믿었다.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의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日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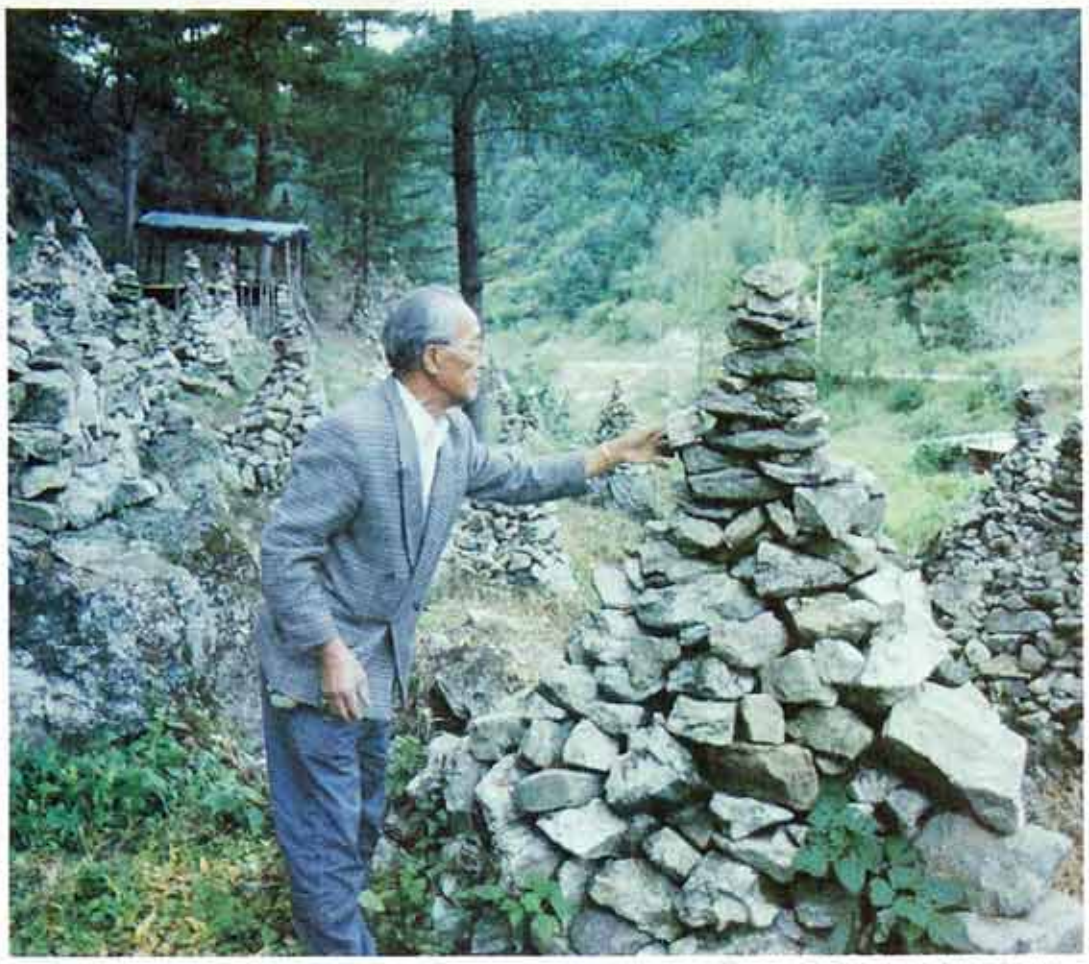
효능·효과: 피로회복,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용량: 1일1병1~2회
医藥品

일양약품

창간 2주년 특집

현대불교

특집 I 직장·직능법회
특집 II 불교의 세계화



약사여래 부처님 오시는 날까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의 허동발옹(70세)은 모든 중생의 건강을 기원하며 유명산 노룻골에 돌탑을 쌓고 있다. 현대판 마이산 탑사를 연상시키는 허옹의 탑쌓기 작업은 4년 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80여기의 크고작은 탑이 완성됐다. 허옹은 죽는날까지 노룻골에 탑을 쌓고 인류건강을 기원하는 도량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중생들 병없이 살라고 돌탑 쌓는다네

탑을 세운다네.
중생들 병없이 살라고
두진겁 재울물의 무진법륜 다 돌고
돌관의 바람과 햇살로 물려진 돌을 모아
탑을 쌓는다네.
중생들 건강의 염원을 쌓는다네.
저혼자는 일어서지 못하는 돌을 탑으로 세운다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유명산 노룻골
許東發옹은 마이산에 塔寺 세운 이갑용의 후신인가
돈독 둬들아 본 세월의 無常함은 돌낼 돌맹이를 모아
탑을 쌓는다네 중생들 건강의 비원을 쌓는다네.
아장아장 막내손주 키만한 탑도 쌓고
경쟁경쟁 산마을 총각 장대키보다 큰 탑도 쌓는다네.
세상 사는데 뭘그리 따지고 싸우는가
돈 벌어 부자되면 돈부자 아니라 욕심부자 되는 것을
마음에 병들면 몸 괴롭고 몸 괴로우면 세상이 괴로워
중생의 보배중에 으뜸이 건강아닌가

許노인의 소망은 건강한 중생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뿐이네.
도시생활 청산하고 찾아든 엄소리 노룻골에
사계절이 네번 바뀌도록 80기의 돌탑을 세우면서
許노인은 배웠다네
마음이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웠다네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 고목이 있으면 고목의 발치에다
돌탑을 쌓으며 許노인은 즐겁다네 즐거워 혼자 웃는다네.
처음에야 아흔아홉개만 쌓았으면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비어 갈 수록 돌탑은 늘어가네
천개를 쌓을거나 만개를 쌓을거나
노룻골이 마침내 탑숲이 되는 날에
약사여래 부처님이 오셔서 감로약수 단비를 내리시리.
그날에 중생들은 잔칫상을 차릴테니
널다란 흰두막도 짓는다네.

〈임연태 기자〉

특별기고

인류영혼의 의사



〈포항공대교수 · 철학〉

유교의 전통을 지켜온 시골 한학자의 집안에서 자란 나는 어린시절 좁은 뜻에서의 종교 밖에서 살았다. 내가 어려서 살아 온 세계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신념은 있었지만 절대자에 대한 기도(祈禱)나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명상(瞑想)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후자의 세계를 종교적이라 한다면 그러한 세계는 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우리집 사랑 대청에서 바라다보일 정도로 가까운 300여미터 정도 높이의 고룡산(高龍山) 골짜기 중턱에 절이 있었고, 20리 밖에 떨어진 공서지라는 동네 가의 환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성당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모두 너무나 멀고, 불교나 기독교가 모두 너무나 생소한 세계였다.

사월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이면 진달래꽃으로 붉게 덮힌 고룡산에 있는 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불교신자이건 아니건 주변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봄 하루를 즐기곤 했다. 어린 나에게는 무척 높고 무척 먼 가기 힘든 곳이기는 했으나 한학자이신 할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서 그분이 사주시는 눈깔사탕, 엿가락 그리고 쑥떡 등을 즐겨 먹던 기억이 난다. 절은 단청으로 울긋불긋하다. 절 집 전체가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몸을 비집고 들여다 본 대웅전의 불당 역시 그렇다. 울긋불긋한 색깔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아니 '귀신같다'는 느낌을 준다.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갔던 프랑스인들이 살던 20리 밖 성당 안 벽에 그려진 성화(聖畵)들을 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 것들이 종교라는 것과 관계된다면, 그것이 불교이던 기독교이던 상관없이 종교란 '이상스러운 것',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부처 앞에 촛불을 켜놓고 엎드려 불공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행위가 아무리해도 기이하게만 보였다.

아직도 나는 회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엄밀한 뜻에서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았다. 사찰을 장식한 단청이나 성당을 장식한 여러가지 십자가 모양이나 역시 울긋불긋한 성화들은 아직도 내 미학적 기호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나는 그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목탁을 치며 크게 불경을 외우는 스님들의 청량한 목소리를 듣기 좋아 한다. 나는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말없이 기도하는 삼들의 경건한 모습을 볼때 나 스스로 흐뭇함을 느낀다. 모스케 지붕에 올라가 내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랍어로 '알라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회교신자의 우렁찬 목소리는 나의 심금을 울린다. 내가 그동안 위와같은 종교에 대해 피상적이나마 공부를 했기 때문만은 아닌듯 싶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내 마음을 다같이 사로잡고 깊숙히 울린다면 불경낭독, 기도의 자세, '알라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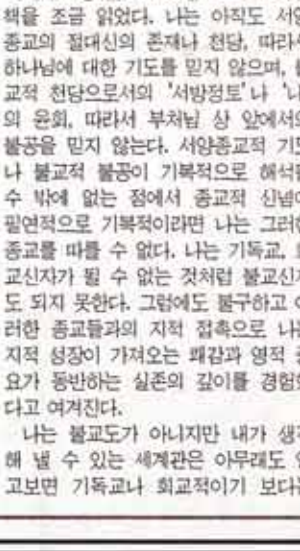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불교의 명상성, 기독교의 경건성 그리고 회교의 철저성에 끌린다. 나는 절대신과 천당을 전제하는 기독교 및 회교의 교리와 아울러 무아무존(無我無存)과 궁극적 '무(無)·공(空)'에 대한 교리에 관한 책을 조금 읽었다. 나는 아직도 서양종교의 절대신의 존재나 천당,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믿지 않으며, 불교적 천당으로서의 '서방정토'나 '나'의 윤회, 따라서 부처님 상 앞에서의 불공을 믿지 않는다. 서양종교적 기도나 불교적 불공이 기복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 필연적으로 기복적이라면 나는 그러한 종교를 따를 수 없다. 나는 기독교, 회교신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불교신자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들과의 지적 접촉으로 나는 지적 성장이 가져오는 쾌감과 영적 충요가 동반하는 실존의 깊이를 경험했다고 여겨진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세계관은 아무래도 알고보면 기독교나 회교적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불교적이다. 나는 차츰 철학적으로 불교에 매료된다. 불교가 부처라는 하나의 인간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고, 그 가르침이 사성제(四聖諦), 고(苦) 즉 삶의 고통, 집(集) 즉 그러한 고통의 원인, 멸(滅) 즉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 도(道) 즉 그 방법으로 요약된다면 언뜻보아 불교는 깊은 철학적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친 부처는 철학자이기 전에 인류 영혼의 의사였으며, 의사이기 전에 평범한 그러나 자비로운 심성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위와같은 부처의 평범해 보이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철학자도 쉽게 미칠 수 없던 철학적 깊은 통찰력과 한없이 따뜻한 인간적 심성에 뿌리박고 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그의 욕망이며, 이같은 욕망은 자아(自我)에 대한 집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데카르트의 철학적 호소력은 자아의 확실성을 확인해준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無我)·무이기는 했으나 한학자이신 할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서 그분이 사주시는 눈깔사탕, 엿가락 그리고 쑥떡 등을 즐겨 먹던 기억이 난다. 절은 단청으로 울긋불긋하다. 절 집 전체가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몸을 비집고 들여다 본 대웅전의 불당 역시 그렇다. 울긋불긋한 색깔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아니 '귀신같다'는 느낌을 준다.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갔던 프랑스인들이 살던 20리 밖 성당 안 벽에 그려진 성화(聖畵)들을 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 것들이 종교라는 것과 관계된다면, 그것이 불교이던 기독교이던 상관없이 종교란 '이상스러운 것',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부처 앞에 촛불을 켜놓고 엎드려 불공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행위가 아무리해도 기이하게만 보였다.

아직도 나는 회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엄밀한 뜻에서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았다. 사찰을 장식한 단청이나 성당을 장식한 여러가지 십자가 모양이나 역시 울긋불긋한 성화들은 아직도 내 미학적 기호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나는 그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목탁을 치며 크게 불경을 외우는 스님들의 청량한 목소리를 듣기 좋아 한다. 나는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말없이 기도하는 삼들의 경건한 모습을 볼때 나 스스로 흐뭇함을 느낀다. 모스케 지붕에 올라가 내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랍어로 '알라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회교신자의 우렁찬 목소리는 나의 심금을 울린다. 내가 그동안 위와같은 종교에 대해 피상적이나마 공부를 했기 때문만은 아



〈포항공대교수 · 철학〉

근본적으로 불교적이다. 나는 차츰 철학적으로 불교에 매료된다. 불교가 부처라는 하나의 인간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고, 그 가르침이 사성제(四聖諦), 고(苦) 즉 삶의 고통, 집(集) 즉 그러한 고통의 원인, 멸(滅) 즉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 도(道) 즉 그 방법으로 요약된다면 언뜻보아 불교는 깊은 철학적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친 부처는 철학자이기 전에 인류 영혼의 의사였으며, 의사이기 전에 평범한 그러나 자비로운 심성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위와같은 부처의 평범해 보이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철학자도 쉽게 미칠 수 없던 철학적 깊은 통찰력과 한없이 따뜻한 인간적 심성에 뿌리박고 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그의 욕망이며, 이같은 욕망은 자아(自我)에 대한 집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데카르트의 철학적 호소력은 자아의 확실성을 확인해준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無我)·무존(無存)·공(空)'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데카르트적 형이상학, 즉 우리들의 보편적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자아 즉,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물론 어떠한 사물현상도 고정된 것은 없다. 즉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있음'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으로서의 '되어감'이다. 윤회(輪廻)란 불멸하는 '나'의 재생이 아니라 부단히 그리고 영원히 변하는 나의 다양한 양상을 지칭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무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모든 것들을 고정된 영원불변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름' 즉 '환상' 즉 공(空)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무아·무존·공은 '나' '존재' '유(有)'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임은 두말할 것 없다. 현대 첨단과학은 모든 현상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영원한 변화·되어감의 우주에서 '나'가 하나의 환상인 이상 '나'의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삶과 존재일반에 대한 불교적 직관은 철학적으로 옳고 아름답다. 길은 골짜기 아름다운 숲속 깊이 자리잡은 한국의 절로 들어가는 긴 길을 걸어가면서 불교적 공(空)과 만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해도 나는 해방감과 기쁨으로 가득차진다.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기, 송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반전기,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빌딩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우리는 도반"…공동체의식 배양

문명의 흐름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장생활은 현대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일차적인 가정공동체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직장공동체. 이에따른 직장법회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저변화의 핵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신행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직장 직능법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조계종 포교원 소임자와 직장법회를 적극 후원하는 경영자, 그리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직장법회의 활성화라는 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3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편집자 주〉

참석자

화암스님 (조계종 포교원 연수국장)

이건국씨 (일흥기업 사장)

안정황씨 (수협중앙회불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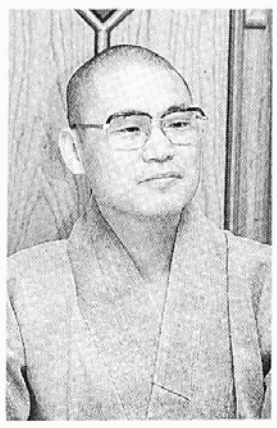
▨ 일시: 1996년 10월2일 오후3시

▨ 장소: 녹수청산





이건국씨



화암스님



안정황씨

"종단-회사 지도법사·재정지원을"… '젊은 불교' 기대
직능법회 전국 조직화 되면 전문인력 불교발전 기여

"직장·직능단체 종단등록 추진" 화암스님

"언행일치 실천 불자 선도해야" 이건국씨

'불교믿으면 모범사원' 인식 확대 안정황씨

안정황=현대사회가 물질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가정교육이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윤리 및 가정교육의 토대가 되는 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회윤리며 질서등을 익히는 현시대에서 직장법회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품성과 품위, 윤리 도덕성을 기르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의 중심 '직장'

이건국=불교모임의 일차적인 역할이 흩어진 개인이 모여 서로 도움이 되는 도반이 되자는 것이고, 포교는 그러한 도반을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직장직능법회는 직업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법회를 보기 때문에 자연 화제와 정서의 공유가 이뤄져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포교의 효과도 를 것입니다.

화암스님=맞습니다. 그렇게 모인 직장과 직능단체의 대중이 많을 때 불교는 탄력을 얻을 수 있고, 불교인구의 저변화와 대중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역량있는 불자와 불교단체의 양성을 위해 종단과 일반불자, 기업경영인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돌아봐야 할 때 입니다.

안정황=금년 3월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직장직능법회를 종책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한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직장법회는 1백31곳, 직능법회는 49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립시기는 90년대에 47%로 가장 많고, 동참회원은 20~1백여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법당이 있는 곳이 불과 26%에 머무르고, 법회횟수는 52%가 월1회, 18%가 주1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나마도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화암스님=부처님 당시에도 대상(隊商)이라고 불리는 무역하는 상인들의 무리가 집단적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육로이동이나 해상이동 등 무역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위하여 부처님께 귀의한 바 있습니다. 직장법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직장직능법회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80년대 중반에 융성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활동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건국=사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직장직능단체들의 신행형태와 지속적이지 못한 신행생활, 스님들의 무관심, 전무한 종단의 종책적 지원이 직장직능법회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 연구개발 절실

화암스님=전국의 청·장년불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회원간의 연락부재와 회원의 소극성, 그리고 시간부족, 법사부족, 경제적 부담, 프로그램의 부족 또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안정황=각 시도별, 회원지구별 직장직능법회와 유사직종별 전국합동법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는 물론 불자간의 우호증진의 기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국=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장직능법회에 헌신한 모범불자 및 우수법회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 방안 모색도 중요합니다.

화암스님=포교원은 내년에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단기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장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지요. 또 현재 직장직능단체가 종단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금년말 정기종회에 상정, 신도법과 포교법 중에서 상충된 법개정을 통해 단체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법사 파견, 직장직능인을 위한 자료개발, 각종 연수자료와 프로그램개발제공 계획 등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단의 노력은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종단의 노력뿐 아니라 회원 각자의 노력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찰 스님과의 관계 모색을 통한 신뢰구축인데 불자회 운영의 필수요건이라고 봅니다.

안정황=많은 직장직능법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불자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92년 6월3일 창립해 40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 잠실불광사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때때로 가족동반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유발과 신행을 통한 생활의 잇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월급날이면 일괄적으로 내는 회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회원들이라 회사내에서는 언제나 모범사원이라는 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불교가 사회윤리 도덕성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익 비전 제시

이건국=같은 불자로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도 올초 공식출범한 '이타원'이라는 불자들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자인 제가 아무래도 불자라 보니 회비모금활동에서부터 법회일, 초파일 등켜는 일까지 일일이 신경쓰게 되고 후원할 일이 없나하고 살펴보게 되더군요. 물론 그 모임이 어느정도 기업이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화암스님=종단의 지원이 전무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뜻있고 신심있는 여러분의 정진으로 불자회 모임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종단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내에서 신행활동을 전개하자면 종교적 특성과 자본주의 논리와의 적절한 이해가 선결돼야 하리라 봅니다.

이건국=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익이 우선인 회사내에 불교모임이 있어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시의 희생적 불교 정신이 기업내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회사의 외호가 모임과 단체의 결집과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내 직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행일치를 실천해가는 불자들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안정황=기업이익 차원에서 본다면 대중적 호응, 화합과 번영 윤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윤리와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윤리의 융화는 꼭 필요할 것 입니다. 요익중생의 진리를 직장내에서 활용, 화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죠.

이건국=부처님의 기본교리는 변화할 수 없지만 보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내에 또는 불자회내에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종교인에게도 불교의 정신적인 우수성을 보여줘 융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암스님=직장직능법회의 불교윤리가 기업내에서 제창되고 사회속에서 자리매김할 때 분명 현시대에 맞는, 나아가 2천년대 불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튼실하고도 광범위한 조직을 엮어내는 그 단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정황=그러자면 불자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이 필요합니다. 불자들은 자신이 불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심불교를 표방하고 대중화를 내세우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신행형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민중생, 구제중생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볼 때 적극적인 도반의식과 활동 참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통한 법회 질향상

화암스님=활성화된 직장직능법회는 거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어 가는 불교인구를 젊은 층의 불교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직장직능법회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종단을 외호하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법조인, 의료인, 교사, 정치인, 세무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직장과 직능인들의 모임은 교단과 소속 사찰스님, 불자들이 부당한 외침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직능조직마다 전국적이며 유기적인 연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국=직장직능법회는 자신의 신심을 진작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회사에 요익중생의 분배원칙과 기업이윤에 일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윤리 도덕성은 물론, 화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거가 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될 것 입니다.

화암스님=지방화시대에서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자양분으로서의 역할과 불교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불자 개개인의 돈독한 불심과 각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구축, 적극적인 종책차원의 계획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봉 고불 총림 백양사 방장 추대식 축

일시 : 불기2540년 10월 25일 (금) 오후2시

장소 : 백양사 대웅전

백양사에서는 한국최초의 총림인 고불총림이 복원됨에 따라 전종정이신 西翁大宗師께서 방장으로 추대되어 원로대덕 큰스님과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고불총림 방장추대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고불 총림 백양사 방장추대식 준비위원장 석천운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지 선 합장

전국 190여곳 활동 '소폭 증가세'

교사·법조인등 조직화 '뚜렷'…언론인·작가 '열악'
법당등 법회장소 마련 26%…회비의존 '재정난'

전국 직장·직능법회는 모두 190여곳. 이 가운데 법조인 교수 교사 등 같은 직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법회를 구성, 운영하는 직능법회는 46곳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창간2주년을 맞아 본사 및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지사망과 통신원을 통해 지난 9월 1개월 동안 조사한 직장·직능법회 현황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월간 〈대중불교〉에 의뢰해 조사한 '전국 직장·직능법회 현황'을 바탕으로 각 법회의 재확인 및 누락된 법회를 찾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디게나마 법회 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월간 〈대중불교〉의 91년과 올해초 조사에서는 각각 95곳, 131곳이었다.

직능법회의 경우, 교사 운전자 교수들의 법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분야의 불자들을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 문인 음악 미술인 등 문화예술인 및 전문인 법회의 확산이 과제로 제기됐다.

직장·직능법회는 포교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대생활에서 직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한국불교의 노령화 여성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또 직장·직능법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각 법회의 운영상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구북구청불자회의 경우 회장이 퇴직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미8군불교수오회는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직적 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회 봉행 횟수도 월 1회가 절반을 넘고 있어 매우 느슨한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 스님을 모셔 법문을 청해 듣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법회 장소 또한 자체 법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26%에 머물렀다. 소속 직장의 강당과 인근 사찰의 법당을 이용하고 있다. 인근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들은 장소 대여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만 해당 사찰 신도가 아닌 불자들에 대한 관심은 직장·직능법회 내의 신행활동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리공부와 사찰순례가 신행형태의 중심을 이룬다. 수행과 기도를 통해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사찰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원찰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불교법우회의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직장·직능법회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도법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교원은 직장·직능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올해 안에 직장·직능법회 지도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절된 각 법회간의 교류의 단초를 마련하고 종단적 관심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각 법회를 종단에 등록토록 해 관리하며, 지도법사는 포교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는 각 교구별로 직장사목 전담부서를 두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의도 종로 마포 등 직장 밀집지역 5곳의 성당에 직장사목 사제를 배치, 중점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예비자의 입문도 직장 내에서 이뤄진다. 직장 신우회가 천주교 신앙조직의 최소 단위인 공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법회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도 과제이다. 직장법회는 단순한 신앙단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주)일홍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과 불교윤리는 서로 배치될 때가 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학적 연구,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직장법회는 "소속기업의 목적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법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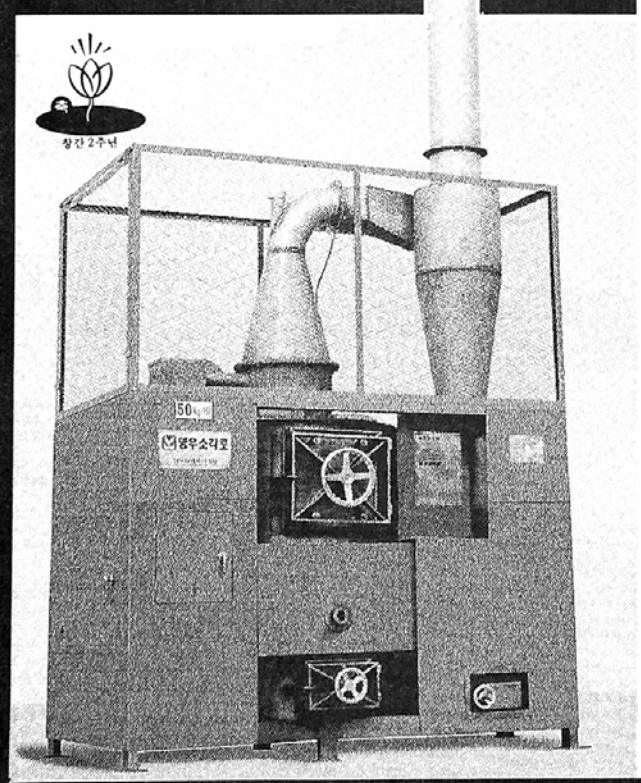
전국 직장법회

구분	단 체 명	소속직장	회장	전화번호
부산	대우자동차법우회	대우자동차	김석홍	051)811-4087
	부산대병원불교법우회	부산대학병원	황보선	051)240-7752
	부산시립의료원불자회	부산시립의료원	이장수	051)850-0243
	부산시청법우회	부산시청	최익두	051)460-3518
	부산백병원불교법우회	백병원	이영애	051)890-6552
	부산농협반야회	부산농협	조공제	051)514-2540
대구	반야회	한국은행대구지점	이알이	053)429-0282
	법우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청	정의락	053)740-0290
	일심회	대구동구청	이종수	053)955-9676
	진여회	한국통신	신홍준	053)352-0800
	정각회	한국담배인삼공사	강성걸	053)251-7004
	대구경찰청법우회	대구경찰청	조구이	053)423-9881
	불심회	대구교도소	이무양	053)632-4501
	영불회	영남의료원	강복수	053)620-4372
	석불회	대한중석(주)	김동목	053)760-7476
	유마회	대구광역시청	장재윤	053)741-1351
	법륜불자교수회	영남대	정희돈	053)810-2942
대전	대전기관차법우회	대전기관차사무소	박청배	042)253-7457
	대전교도소불자회	대전교도소	정진우	042)544-9301
	삼연불회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이태호	042)866-5394
	성불회	한국원자력연구소	윤청모	042)868-8279
	정각불자회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진희	042)860-6247
	성불회	국방과학연구소	이관구	042)939-5452
	성불회	한국화학연구소	양명섭	042)821-4506
	대원회 (충남대교수불자회)	충남대학교	류우석	042)868-2441
			이윤재	042)821-5385
경기	농불당	서울대학교	전재근	0331)290-2114
	국불회	국토개발연구원	김선희	0343)80-0156
	성불회	LG전자	변춘연	0343)52-2182
	LG전자불심회	LG전자	류성근	0333)740-3102
	불심회	서울구치소	유영군	0343)23-6100
	경찰대학직원불자회	경찰대학	이관희	0331)284-5266
충청	고려인삼창불교신도회	한국담배인삼공사	곽병출	0463)30-3286
	한국통신충북불교연합회	한국통신	김영한	0431)66-1000
	법우회	제천기관차사무소	김혁동	0443)44-5964
	한국조폐공사법우회	한국조폐공사	김재환	0475)32-9811
	보리수회	국제종합기계(주)	도기향	0475)32-1151
	충주산업대학교교수불자회	충주산업대	이선복	0441)841-5482
	법우회	한국담배인삼공사	박동훈	0431)220-0233
	충북불교교수회	서원대학교	김용한	0431)61-8722
경북	동국대경주병원불교회	동국대경주병원	김수성	0561)770-8108
	농협불자회	경주농협	김덕수	0561)748-9501
	팔동회	경주소방서	주도만	0561)771-6484
	풍산불자회	풍산금속	최인식	0561)761-2121
경북	문수회	울진원자력발전소	성락술	0565)80-2470
	금강회	한국조폐공사	김관헌	053)812-1241
	월성반야회	월성원자력발전소	윤재환	0561)779-2227
	상주산업대교직원법우회	상주산업대	김명환	0582)30-5128
	문수회	동국대학교	정성호	0561)770-2053
	교수불자회	동국대학교	김용택	0561)770-2180
	동국대포항병원불교회	동국대포항병원	박기흡	0562)73-8111
경남	삼성정밀불자회	삼성정밀	우진석	0522)96-3781
	카프로불심회	한국카프로	정영오	0522)60-7131
	현대미포조선불자회	미포조선	강청수	0522)50-3226
	풍산금속불자회	풍산금속	윤선진	0522)73-5489
	현대자동차불자회	현대자동차	강호돈	0522)219-2459
	경상대학교교수불자회	경상대학교	곽종형	0591)761-5244
	선우회	진주시청	최도상	0591)749-2114
	진주교도소불자회	진주교도소	이동춘	0591)41-2181
	보현회	진해해군부대	서정수	0553)42-8033
	연등회	진해해군부대	김미애	0553)49-4141
	삼불회	삼성종공업	홍경복	0551)69-2195
	대우중공업불교법우회	대우중공업(주)	이상록	0551)80-6687
	현대정공(주)불교법우회	현대정공(주)	한용복	0551)82-1341
	LG연꽃회	LG전자	차기철	0551)69-3247
	효성직장법우회	효성중공업	이종숙	0551)68-2594
	한중법우회	한국중공업	황명성	0551)69-9644
	월영사법우회	마산국군통합병원	박홍필	0551)71-9761
	삼미특수강직장법우회	삼미특수강	강만호	0551)41-4219
	마산중부경찰서불교회	마산중부경찰서	이관삼	0551)55-3133
	선재법우회	삼성항공2공장	강현선	0551)47-7382
	기불심	(주)기아기공	성기태	0551)47-7382
	한일법우상조회	한일합섬	황용수	0551)41-8590
	대우불교청년회	대우조선	이석태	0551)681-5781
광주·전남·전북·제주	무심회	한국은행	정영숙	062)220-1414
	전남대교수불교모임	전남대	김현곤	062)520-6857
	조선대교수불자협의회	조선대	조 징	062)230-7153
	덕림회	전남대	이상채	062)520-6147
	금호불교연구회	(주)금호	김원식	062)940-2452
	염등회	LG전자	정미숙	062)951-0041
	목탁회	화천기공	윤규종	062)950-1643
	전북대학교교직원불자회	전북대	윤석조	0652)70-2161
	연우회	전북도청	권두삼	0652)226-7878
	무불회	전북경찰청	윤광심	0652)230-2391
	연지회	정읍전화국	조영환	0681)32-1200
	연지회	북전주전화국	나용만	0652)72-0200
	성불회	전주교도소	구병원	0652)224-4361
	선우회	영광원자력본부	김종민	0686)357-3310
강원	원주시청법우회	원주시청	최춘길	0371)41-2270
	쌍용양회선우회	쌍용양회	권철진	0373)72-9800
	무문관	강원대	강영옥	0361)50-6715
	KBS원주방송국법우회	KBS원주방송국	정규웅	0371)764-6332
	법우회	한국담배인삼공사	박신영	0371)41-4728
	강릉경찰서불자회	강릉경찰서	김태식	0391)653-0115

전국 지사법회

구분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교수불자연합회	오상환	02)720-6618
	국회정각회	서석재	02)784-3280
	대한불교약사회	홍성용	02)856-3674
	BBS교통통신원불자회	염한기	02)705-5151
	불교법조인회	김홍근	02)536-9543
	세무사불자회	송호승	02)598-7300
	대한변자가수회	김홍국	02)713-2905
	전국교사불자회	박중현	02)3411-6168
	한국불교기자협회	하춘생	02)734-0777
	한국연예인불자회	송 해	02)739-8163
	한국불교예술인협회	박규채	02)655-0533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김학성	02)781-2310
	한국불교미술인협회	박찬갑	0336)638-2751
부산	부산불교운전기사회	고영호	051)624-2207
	부산불교약사회	박정자	051)256-3381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태	051)466-7174
	부산불교문인협회	최낙현	051)622-1204
	청림회(교사)	김정란	051)262-7478
	아리회(교사)	서민자	051)514-3698
	보리회(교사)	이연수	051)521-3022
	자림회(교사)	장영선	051)248-0472
	반야회(교사)	최경희	051)753-9593
	부산불교법조인회	안석태	051)244-1441
	부산의사불자회	오양호	051)441-5071
대구	교사불자회	하재웅	053)324-6147
	대구개인택시정법회	김주본	053)764-0766
경기	성불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	오희창	0343)52-2182
충청	청주불교실업인회	김현배	0431)272-5001
	대전운전기사불자회	문영호	042)626-6463
경북	포항불교교사회	권순박	0562)44-0342
	상주교사불자회	김용재	0582)535-2881
	경북도의회정각회	주기돈	0565)83-0300
	김천교사불자회준비위	대 혜	0547)463-3799
	구미불교교사불자회	김해룡	0546)461-1683
경남	교사불자회	김원찬	0522)74-4990
	서부경남교사불자회	조병구	0591)41-0108
	가야불교바라밀교사회	김진호	0525)32-8807
	교원불자회	오봉환	0551)46-8393
	동부경남교사불자회	김원찬	0522)74-4990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주불교운전자회	유기근	062)266-4991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	김진택	062)525-8662
	광주·전남교수불자연합회	안진오	062)520-7663
	불일교사법우회광주지회	정은석	062)373-5552
	남보국안단월명회	신경환	062)227-2624
	전주교사불자회	김종하	0658)83-0722
	제주불교운전기사회	고승학	064)51-0108
강원	불심회(교사)	최병옥	0391)41-1103

소형 소각로의 선두주자
영우실업 Z형 소각로



쓰레기 고민, 깨끗이 태워드립니다

Z형 소각로의 4대 특장

1. 조작이 간편합니다.
소각시 대기 인력이 필요없는 자동 제어 장치 부착

2. 공해 발생의 염려가 없습니다.
매연 1도 이하(기준 2도 이하)
진여재 0.73%(기준 2.0%)의 청정 소각로로 소각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3. 가격이 저렴합니다.
시간당 30kg, 50kg, 100kg의 소각 능력을 가졌으며 다른 소각로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4. 수명이 깁니다.
소형이면서도 내화벽돌 및 캐스타블 시공으로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깁니다.

영우 소각로의 푸른 세상 만들기

이젠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태울 수밖에 없지만 소각 방식엔 매연 처리가 또 문제입니다.

매연공해 완전해결!
그러나 싸이클론 원리(제트기류 방식)를 채택한 '영우 소각로'가 매연문제를 일거에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Z형 소형 소각로는 무공해 청정 소각로입니다.
영우실업의 Z형 소형 소각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업계 최초의 소형 소각로입니다.

이미 2백여 대의 관납실적이 있습니다.
개발 1년 여에 각급 단위의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등에 2백여 대를 납품했으며 고양시, 성남시 등의 97년도 소요분중 90%를 이미 수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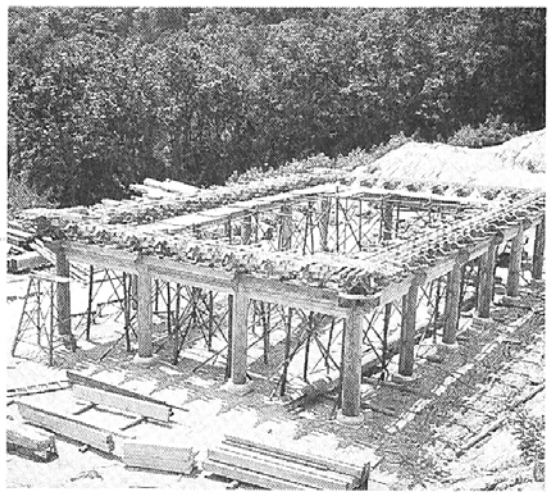
'영우실업'을 꼭 확인하십시오.
(유사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 1년 간 AS 보장
- 사찰, 국립공원 등에 꼭 알맞는 규격입니다.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공장: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TEL:(0344)64-7236, 62-3488
FAX:(0344)62-7012



◇성불회원들은 연 2회에 걸쳐 '각 연구소에서 우리차 시음회'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법 포교와 성불회원들의 신행의 장으로 사용하게될 태전사(6천여평 부지에 115평 5층 규모)는 오는 11월2일 상량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연구소별 지부화 '10년째 초발심'

탐방

대덕연구단지 **'성불회'**

법주사지원·4백여회원 합심 법당 태전사 건립
정기법회·회보발간등 신행활발…'가족불자화' 실천

한국과학기술의 산실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불자들의 신행모임인 성불회(회장 류우석)는 조직체계와 신행활동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성불회는 지난 87년 불법창달과 연구원들의 포교를 목적으로 표준연구원, 화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8개 연구소가 주축이 돼 일초스님(동학사 강주)을 지도법사로 구석진씨(화학연구소)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해 창립됐다. 특히 성불회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을 성불회원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각 연구소별 조직작업을 서둘렀다. 이는 연구원들이 바듯한 시간을 할애해 신행활동을 하는 만큼 각 연구소의 특성을 살린 조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성불회는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들이 창립 당시 초발심의 자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회원수도 배가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같은 결과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구도부, 포교부, 총무부, 사회부 등이 조직돼 있고 각 연구소의 특성화 일환으로 연구소를 지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지부장 및 부서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성불회만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스님들조차도 어렵게 여기는 도량건립불사를 회원들 스스로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탄탄한 조직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성불회가 법당건립을 발원한 것은 '한국화학연구소 성불회'로 첫 출발을 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시작된 법당건립불사는 88년 불사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92년 법주사에서 사찰건립불사를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연구단지 부근인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산27-15번지 총 6천여평의 부지에 불사중인 태전사는 1백15평의 법당을 비롯 5층 규모의 불교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성불회는 현재 30여개의 연구소중 7개소가 정식지부로 등록됐고 현재 지부가입을 추진중인 연구소도 7개소에 이른다. 약 4백여명의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정기법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LG화학, 화요일 전자통신, 수요일 인삼연초, 금요일 원자력연구소가 각각 자체적으로 조석예불을 올릴 정도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성불회회원들은 봄가을 정기적인 사찰순례를 비롯 수련법회, 특별법회, 어린이 한문교실, 회보 〈인연〉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또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각지부 임원회의를 개최해 회원확보, 태전사불사, 신행활동 등의 성불회 활성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회원들로 구성된 연꽃회는 서예, 꽃꽂이, 다도, 합창단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은 신행활동을 펴고 있다. 이는 성불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가족의 불자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몇몇불자들이 중심이돼 어렵사리 활동하다가 퇴직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단체조차도 유명무실해지는 신행단체에 비하면 성불회조직의 건실함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 2일이면 성불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태전사불사의 서곡을 알리는 상량식이 봉행된다. 4백여 성불회원들은 태전사불사를 시작으로 정법포교와 대전권 불교활성화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용맹전진한다는 금강과 같은 원력을 세워 놓고 있다.

〈근〉

김중근 기자

타종교사례 가톨릭 서울대교구 직장인 전도

2백여 단체 등록…특별본당설치 평신도운동 전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지난 93년 직장인 사목부(담당 이기양·이재열신부)를 신설 '직장인 사목 특별본당', '직장 사도직 소공동체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직장인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대교구 내에는 많은 직장 교우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직장사목부에 등록된 단체는 2백여곳에 이른다. 이들 직장인 사도직 단체들은 '복음묵상 나누기' 등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또 직장내에서 예비자들을 모으고 인근 성당에서 신부나 수녀를 초빙해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미사와 예비자교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사목부는 지난 3월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이용한 소공동체 운영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는 피정은 프로그램과 장소 등 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직접 준비함으로써 바쁜 업무와 적은 인원으로 피정을 망설이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 본당이 인근 직장인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례를 위해 늦은 저녁미사를 신설하고 예비자 교리를 원하는 직장 사도직 단체에는 교리교사를 파견하는 등 직장인 사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에 직장사목을 위한 특별본당과 전담신부를 임명하고 직장인을 위한 미사개설, 예비자 교리지도, 교육장소 제공 등을 돕고 있어 직장교우회가 결성된 직장뿐 아니라 기타단체들의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

김중근 기자

직장이란 우리 일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삶의 터전이다. 직장인들은 꿈을 꾸어도 직장과 관련된 꿈을 꾸니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삭막한 직장생활이라면 그 괴로움이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단위의 취미활동이나 신행활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 있어 종적 횡적으로 윤활유가 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극대화 시켜



국토개발원 법우회 김의식씨

매일 점심시간 이용 좌선삼매
회원마다 '재적사찰갖기' 전개

가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개발연구원 불교법우회(국불회) 회원에게는 직업상 연구를 위한 사회과학적 수단과 집중적인 연구두뇌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는 교리적인 연구와 머리를 식혀갈 참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발기되었다.

국불회는 지난 11년간 매월 정기법회와 분기별 야외법회를 추진하여 왔으며 하루도 거름없이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 몇명의 회원들이 '좌선삼매'를 나누고 있다. 나는 이 좌선모임에서 큰 힘을 얻어 사찰(보림사)내에 시민선방을 개설하게 되었고 일요일마다 도반들과 함께 선정을 즐기고 있다. 그동안 국불회에서는 법문한 내용을 모아 〈반야심경〉〈금강경〉〈화엄경〉〈십우도강설〉〈보리살타의 지혜〉등을 비롯 〈국불회 10년사〉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불회에서는 직장법회의 한계성을 느껴 회원 개개인의 한 사찰갖기 운동을 잠정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그 이유는 교리연구의 한계와 좌선위주의 한정성을 기존사찰에서 상호보완해야겠다는 의지에서 였다. 사찰에서도 사찰내에 직장인법회를 주선하여 주었으면하는 바램이 있다. 이와같은 관계정립이 된다면 직장법회에서는 생활불교, 사찰에서는 수행불교가 진작되어 가리라 본다.

직장·직능법회 동참불자 신행이야기



부산불교문인협회 김문숙고문

경전서 얻은 감동 그대로 글로
'실상과문학' 발간등 문서포교

부산불교문인협회가 창립된 것은 1989년이었다. 돌연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시인 원광스님의 발원으로 불자문인들은 모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모인 1백여명의 문학도들. 그들의 정진은 오직 글쓰는 일이었다. 경전은 모두 시(詩)이고 문학이고 철학임을 나도 공부하고 만인에게 전하고자 함이다.

"천장을 외운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구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법구비유경)

〈실상과 문학〉 발간은 우리 회원들의 수행의 산물이었다. 1년에 4권, 못하면 3권을 빠짐없이 발간하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도를 해냈다.

부산에는 우리 마음의 고향인 대사찰이 많다. 삼남의 으뜸인 통도사를 필두로 범어사, 내원사, 부남사, 장안사와 대소 수백을 헤아리는 절이 우리 수도의 장이며, 큰스님들이 우리의 스승이다. 수도의 장이 있고 스승이 계셔 우리는 정진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러나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 우매한 중생의 무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칭 불자문인도 많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글쓰기를 권하고 경(經)읽기에 열중한다. 불교문학세미나도 열고 사찰순례도 하고 보시의 실천도 한다.

우리 불교문인협회 여성클럽은 여성의 상담실 '여성의 전화'에서 무외시(無畏施) 보시를 하고 있다. 미약한 힘이지만 고민하는 여성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무외시보시를 아무 바램없이 행하고 있다.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은 글을 통하여, 이타행의 실천행을 통하여 겸손한 불제자가 되기를 발심한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창간2주년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 · 발송 · 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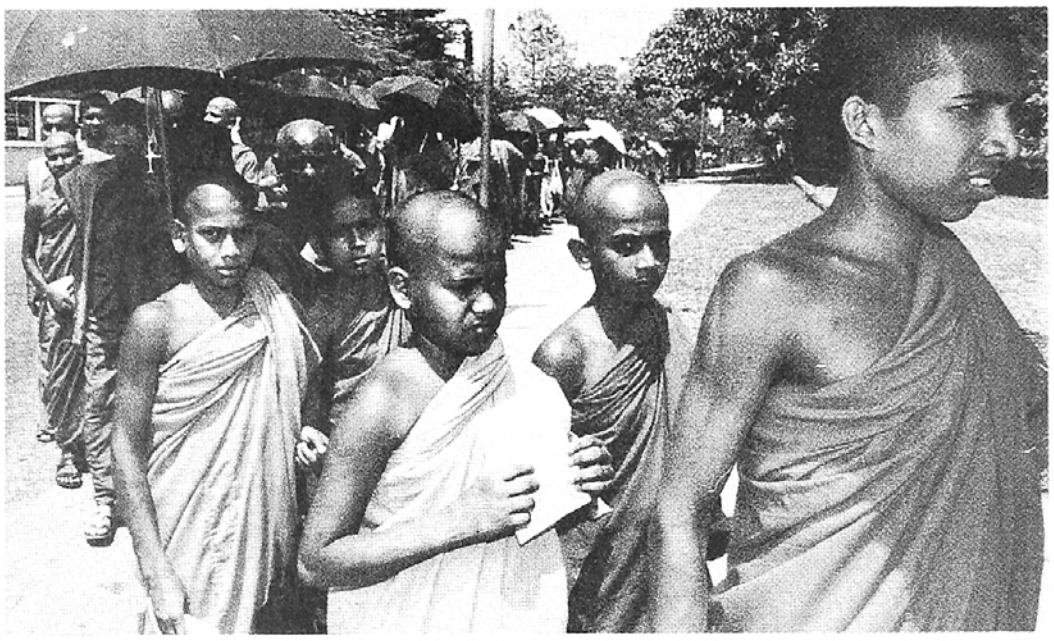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

현대에 이르러 불교는 개인이 얻은 깨달음을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유지하려는 경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속에서 사부대중과 공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후자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답을 찾는 참여적인 불교 경향을 가리킨다. 19세기 이후 종교학을 통한 학술적인 접근으로 불교를 이해한 서양에서는 '불교윤리'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동시대 참여불교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환경·여성·인권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의 참여경향은 '해체'와 '재구성', 즉 정치적 독립·승가 개혁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K. 크래프트 교수(미국 리하이大 종교학)는 "세계의 모든 문화와 융합해 나아가고 있는 불교의 참여적 성향이 동시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인류의 삶에 불교의 사회적 참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세계의 불교는 한 개인의 깨달음을 사회로 다시 회향하는 참여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스리랑카 1천4백여명의 스님이 스리랑카의 정부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침묵시위로 맞서는 장면. 스리랑카는 불교와 힌두교의 분쟁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결의했다.

'모두의 자각' 운동 인류행복 찾는다

식량은행·비폭력·지뢰추방등… 정치·경제·사회적 불균형 조율

'참여불교' 각국의 움직임

태국 '현실에서의 수행'이란 모토를 내건 태국불교는 식량증대와 에이즈(AIDS) 퇴치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Turning Wheel(대법륜, 96 여름)에 따르면 수세기에 걸쳐 농경사회인 태국은 최근 8~10% GNP 성장을 매년 거듭하면서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태국승가단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보급시키는 기술정보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태국불교의 고질적인 정치적 종속과 승가의 현대적 교육부재로 이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승가에서는 자성의 소리를 높이는 한편 재가불자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서 수행'이란 모토를 내건 프라 사키야 다마는 승가·재가의 연합회로 현재 태국 불교운동에 전환기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농민의 빈부차를 줄이고 농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식량은행' 운동과 에이즈 환자의 치료·장례에 헌신한 '불교간병인' 운동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태국의 에이즈 환자는 급박한 사회적 현안으로 총 인구 1.6%에 해당하는 1간여명이 양성보균자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참여불교는 '비폭력 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신하라(Shinhala)와 타미르(Tamil) 두 종족으로 구성됐다. 신하라인은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불교도인 반면 20%에 불과한 타미르인은 힌두교도이다. 이로인해 두 종족간의 빈번한 마찰은 항상 유혈충돌로 발전해 스리랑카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살보다야 쉬라마다나'는 스리랑카의 승가단에서 유혈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초로 전개한 비폭력 운동. '살보다야'는 '모두의 자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쉬라마다나'는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교육·경제·환경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꾀한 이 운동은 스리랑카를 분쟁없는 사회로 재구성하며 종족간의 정치·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조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7년 스리랑카에서는 재가불자가 주축이 되어 '인류평화공세'(People's Peace Offensive)란 단체가 구성돼 '진실과 비폭력'이란 모토를 내걸고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캄보디아·대만 캄보디아와 태국의 참여불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는 전역에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지뢰를 제거해 황폐해진 국토의 안정을 되찾고 환경보호 등이 당면한 과제. 현재 캄보디아 승가단은 최고 원로인 마하고사난다 스님을 주축으로 범세계적인 '지뢰추방운동'을 전개하고 국내·외를 통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지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묻혀 있는 지뢰는 약 80만~1백만개로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과 국경문제로 최근 경색국면을 맞이한 대만에서도 승가단이 앞장서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국외 불교계에 알리는 한편 정신적 연대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교교우회(FOB)가 대만의 불교평화운동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역시 대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서구·아프리카 서구의 참여불교는 제3세계의 인권옹호와 불교윤리를 토대로한 '비폭력 운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질적으로 부족간의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는 서구의 참여불교의 장(場)이다.

자이레는 후투족과 투트시족 간의 유혈분쟁이 빈번히 일어났고 최근에는 후투족의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됐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있다.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은 최근 수천명이 수용된 르완다 난민 수용소에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칼루나센터와 국제조정교우회 등과 공동으로 르완다 난민에서 비폭력 정신을 교육 시키기 시작했다.

교육 내용은 르완다 난민이 불교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 현재 이 교육은 난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불교평화협회 사절단은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비폭력 평화사절단'을 결성해 문화와 예술의 교감을 통해 비폭력운동을 더욱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구불교의 참여적 성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며 종교학계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세계 불교인구

우리나라 불자수는 일반적으로 1천만여명으로 꼽고 있다. 세계 불교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계 불교인구는 약 3억4천여명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인터넷 웹사이트 서방불교도교우회(http://www.fwbo.org/)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불교인구 산출이 가능한 90여개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여기에서 미주·유럽 지역은 불교인구를 기타 종교인구로 분류하고 있어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불교 강세지역인 동아시아의 잠재적인 불교인구를 가산하지 않아 정확한 세계불교인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브리태니커에서 정확한 불교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인도 4백만여명('91) 스리랑카 1천2십6만여명

3억 4천여명… 미주·유럽·중국 등 제외

잠재적 신도 포함 10억여명 추산

('90) 미얀마 3천7백5십만여명
('90) 태국 4천6백2십6만여명
('93) 라오스 2만5천7만여명
('91) 캄보디아 7천7백3십2만여명('90) 일본 8천6백8만여명
('91) 등의 7개국의 불교인구를 더하면 이미 3억여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지역과 중국등 공산지역의 근거자료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현재 세계불교인구의 증가추세가 분명한 현실인점을 감안 세계불교인구는 약 10억가량 된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통계에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불교인구가 주목된다. 유구한 불교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전체인구의 0.1%만이 불교인구로 파악되는 반면 호주는 1989년 인구조사 결과에 비해 1995년도 불교인구가 13만여명으로 집계돼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국제 불교단체

전법·우의 앞장 '세계불심 하나로'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 가장 먼저 세계불심을 하나로 모은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는 1950년 말라 레세케라 박사가 스리랑카 콜롬비아에서 설립한 단체로 승가와 재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국에 본부를 둔 W·F·B는 현재 37개국 120개 지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차례의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산하조직으로 WFBY(세계불교청소년우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는 불기(佛紀)를 통일하는 한편 룸비니를 비롯 부처님 4대성지 개발 및 성역화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국제불광회 세계총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 Asocciation)는 국제포교활동을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교육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1992년 5월 미국 L.A.에서 성운스님(대만, 불광산寺)에 의해 설립됐다.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B·L·I·A에는 중화총회(대만, 타이베이)를 비롯해 세계 90여곳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 1978년 미국 버클리에서 설립된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 회장 알랜 세네크)은 '열린 마음'이란 연맹의 모토를 내걸고 미주, 유럽 그리고 제3세계에서 인권, 독립, 여성, 환경 등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에 본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영국 일본 캐나다와 동아시아 등지에 총42개 지부가 설치됐다. 산하기구로 조정연맹(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을 두어 인종 또는 국가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B·P·F는 인터넷에 웹사이트(http://www.igc.apc.org.bpf.)를 개설해 국제참여불교통신망(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태국)과 인권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제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한다.

○… 호주불교회의(Buddhist Concil of New South Wales)도 비중있는 국제불교기구다. 1970년 호주의 '다민족 정책'에 따라 호주정부가 적극 지원해 설립된 호주불교회의는 초창기에는 호주에 산재한 불교단체의 대외 창구역할을 수행했으나 1980년대 동아시아로부터 호주 이민이 급증하면서 호주불교회의는 성격과 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여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불교도가 뒤섞인 다원화된 국제불교단체로 서유럽을 대표하게 됐다.

현재 서유럽 지역 포교, 동아시아와 유대강화 등의 국외적인 활동과 청소년 교육과 이민세대의 복지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유럽 광역 네트워크(http://www.zip.com.au/~lyallg/)를 개설해 유럽 불교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이밖에 1966년 창립된 세계승가회는 출가승려들만의 모임으로 본부가 있는 대만에서 3년마다 대회를 갖고있다. 유럽불교도연맹과 몽골에 본부를 둔 공산권불교국가들의 모임 아시아불교평화회의도 있다.

WFB 불기 통일·4대성지 성역화
불교평화연맹 제3세계 인권·여성등 관심
국제불광회 90개국 지부 사회복지사업
호주불교회의 서유럽 포교·청소년 교육

「동의보감」 名品베개 "신침"

건강.장수베개의 神話
신비로운 잣나무베개
허준『동의보감,원방신침』(神枕)
이 베개가 바로 동의보감中에 약침으로 「풍사(중풍-뇌졸중)가 침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잣나무베개 神枕

인체공학적 방법으로 설계된 자연항균방지 가공베개



KBS-TV
1TV 7시저녁뉴스 보도('96.8.13)
1TV 7시아침뉴스 보도('96.8.9)춘천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방영('96.1.29)

추천의 말씀

이 신침을 관찰한 바 동의보감 원방대로 제품화하였으며 「풍사와 모든 질환을 막아준다는 건강베개」로 두통, 불면, 순환기장애, 만성피로, 경간완증후군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 9. 10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 신 현 대

• 특허원 제 12587호 • 의장원 제 2668호
• 실용원 제 6594호 • 상 표 제 45703호

최고의 선물

正統元方神枕 신침(神枕)의 좋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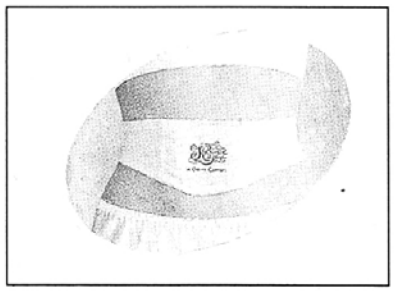
* 무병장수의 근원인 바른자세를 원하시는 분
* 혈액순환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
* 수면중 코골이, 무호흡,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시는분
* 풍사(風邪)가 염려되거나 목, 어깨, 팔이 아프고 저리시는 분
* 심장이 허약하거나 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氣道正常化로 호흡이 원활해져 건강에 좋습니다.
* 이 베개는 頭寒足熱(두한족열)로 심신이 안정되며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실력배양에 지극히 좋습니다.

「신침」이란 천혜의 잣나무로 만든 베개 통속에 32종의 약초를 넣고 베는 절묘한 방법으로 「이 신침을 베면 풍사(중풍)가 침노하지 못하며, 약초를 사용하면 알콜빛이 광택이 나고 일년을 사용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사년을 사용하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귀와 눈이 밝아진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장수하고 고령에도 머리카락이 희지 않는다」라고 동의보감 내경편에 실려있다

육산기업 신침문의 전화 : (02)277-8727~8
주소:서울·중구 을지로5가 273-10 (우성B/D 303호)
男·女엘리트 영업사원모집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현대불교 창간2돌

"붓다정신 오롯이 숨쉬는

한 시대의 굴곡(屈曲)이 모두 투영된 유적을 답사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장엄함에 도취되고 숭고함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곳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유적과 유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지난 79년부터 '세계의 문화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은 물론 과학적인 복구를 통해 세계인의 보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469건의 세계유산 중에서 불교유산은 1983년 아잔타 석굴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1995년 지정된 한국의 해인사 팔만대장경(판고포함)과 석굴암을 포함해 총 13건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은 최근 가야산의 골프장 건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우리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불교관련 세계유산을 살펴보고 그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편집자 주〉



아유타야 유적지

타이의 중부인 방록 북방 약 6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유적지. 이 아유타야 유적지는 7세기부터 8세기까지 조성된 불교유적지이다. 1424년에 발굴됐다. 아유타야 건축은 크메르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 모양의 큰 탑과 여러 층의 높은 테라스로 된 기단 그리고 기단에서부터 솟아오른 둥근 천정 등이 성스러운 옛 불교사원의 면모를 암시하고 있다. 벽화로 장식된 아유타야 사원의 기단은 현재 중요한 매장물을 안치한 예배소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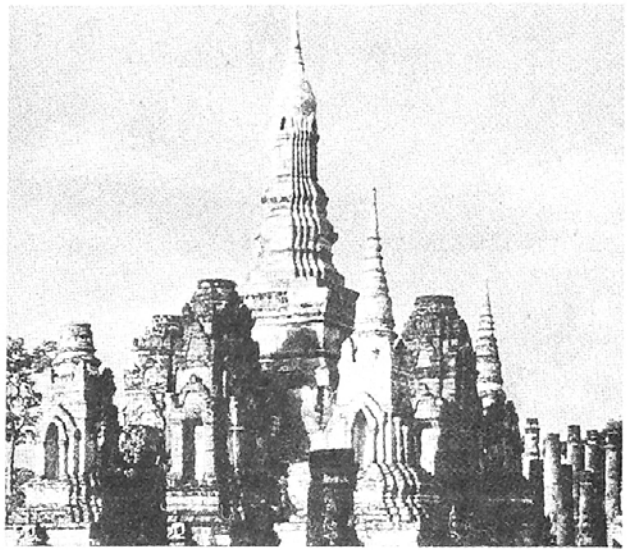
〈태국 · 1991년 지정〉



호오류우寺

호오류우(법륭사)寺는 일본의 나라시대인 600년경에 조성된 사찰이다. 법륭사의 불교유적들 중에는 고구려의 승려이며 화가인 담징(579~631)이 그린 금당벽화 '사불정토도'와 623년경에 제작되어 금당에 모셔진 '석가모니불과 두 보살' 등이 가장 돋보이는 불교유물이다.

〈일본 · 1993년 지정〉



수코타이 유적지

타이 북서부 메남강 지류에 있는 유적지. 수코타이 왕조가 13세기 중엽부터 융성해지면서 건축했던 불교사원이다. 이 유적지의 형태는 성소와 탑의 복합체의 중심의 높은 바닥에 봉헌된 꽃의 형상으로 건축됐다. 그리고 꽃의 형상 정상에는 8개의 다른 봉헌탑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봉헌탑 중심에는 수코타이 예술의 특징인 연꽃 봉우리가 조각됐다. 또한 수코타이 유적지 정면 입구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회반죽으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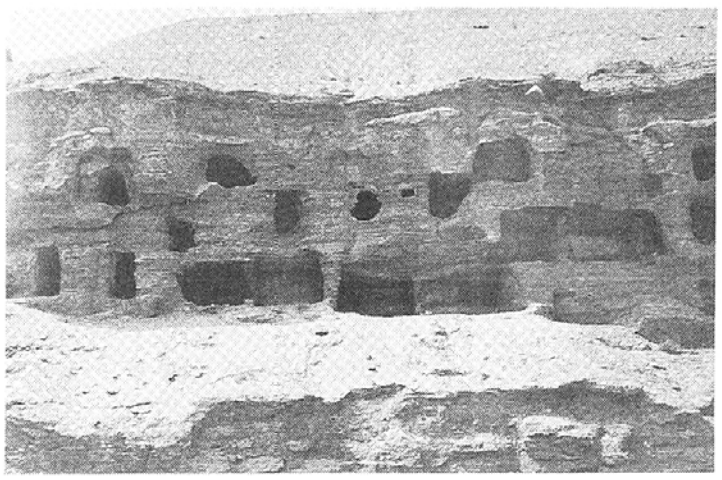
〈태국 · 1991년 지정〉



파할푸르사원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발전했던 불교사원 초기 유형. 파할푸르 사원은 언뜰을 중심으로 수행승들이 거주하는 벽이 트인 방들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 출입구가 있다. '비하라'로 불리는 이 사원은 원래 인도에서 우기 동안 유행(遊行)생활을 하기가 힘들게 된 승려들이 거주하도록 세운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하라의 안뜰에 성스러운 유물을 안치한 작은 탑과 여러 불상들이 놓이게 되면서 비하라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승려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비하라, 탑 그리고 불당 등으로 이루어진 마하비하라(거대한 사원)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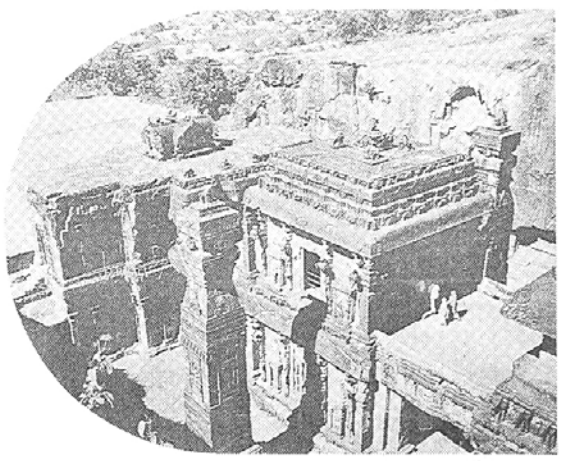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 1985년 지정〉



몽골토굴

고비 사막에 있는 몽골 토굴은 돈황 근처에 위치해 있다. B.C.366년 30여개의 토굴로 시작해 600여개의 토굴로 발전했다. 이 토굴은 절벽을 깎아들어가 만들었다는게 특징. 토굴은 처음에는 수행승의 기본적인 생활만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불교관련 장엄물과 조각 등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했다. 원나라 시대에 이르러 토굴의 형태는 더욱 발전해 중국 불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1368년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몽골 지역의 토굴이 주춤거렸으나, 청나라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 사원지대로 각광받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장엄물과 조각은 원·청시대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 · 1987년 지정〉



엘로라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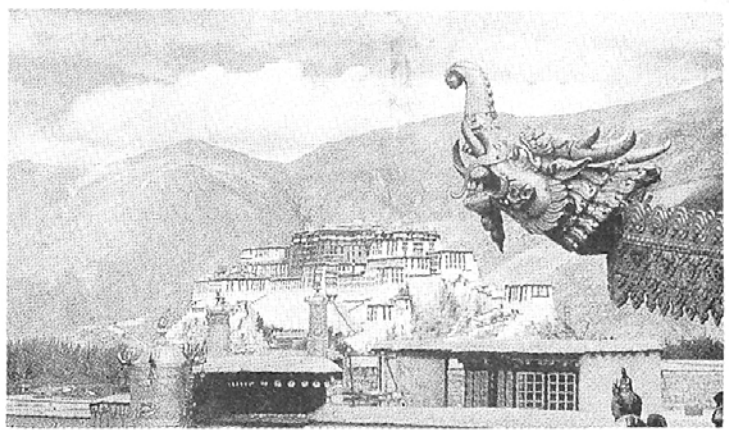
인도 봄베이의 북동 약 3백킬로미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석굴. 엘로라 석굴은 전장 3킬로미터에 걸쳐 불교·힌두교·자이나교 등의 다종교 석굴군으로 유명하다. 총 34개인 엘로라 석굴은 동굴사원의 집단으로서 가장 큰 것이다. 이중에서 불교굴은 제1굴에서 제12굴까지 3세기부터 7세기경까지 조성됐다. 석굴 내부는 갖가지 조각과 장엄물로 장식됐다.

〈인도 · 1983년 지정〉

포탈라궁

중국 시짱 자치구(티베트) 라싸에 있는 유명한 궁성. 1645년 제5대 달라이라마 때 처음 건축되었고, 그후 증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궁성은 남북 길이 2백미터 동서 길이 3백미터이고 동·서·남쪽 각각에 3층 높이의 누각이 딸린 성문이 있다. 중앙 누각에는 대전, 달라이라마의 침궁, 섭정자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묵는 방 등이 들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건물은 동서로 총길이 360미터이고 높이가 110미터로 백궁, 홍궁, 사원 및 4개의 큰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궁은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는 궁전. 이외에도 사당, 불전, 영탑전 등과 청황실이 달라이라마를 책봉한 금책과 금인, 대량의 진귀한 유물 등이 소장되어 있다.

〈중국 · 1994년 지정〉



사진으로 보는 경전

벽화를 통해 경전을 읽는다

경전의 구절이나 내용에 맞게 벽화나 사진을 결합시켜
경전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석가모니불 500대원
지장경
장수멸죄경

완전 칼라판

모든 사진을 칼라로 처리해
경전을 더욱 알기 쉽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천수경 ·
관세음보살보문품(근간)
불 · 보살의
원력과 발원문 (근간)

학림 엮음/신국판 칼라화보/
값 각권 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군승장교 요원 선발

군포교를 짊어지고 나아갈 군승법사님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선발일시 ■

원서교부/접수	96. 10. 18 ~ 10. 24
면접시험	96. 10. 25.(금) 14:00
신체검사/합격자발표	추후통보

■ 응시자격 ■

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후 2년 (학사학위 이상 : 95년도 졸업생까지)이 경과하고 군포교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2. 일반 4년제 대학(학사학위 소지)을 졸업한 조계종 스님으로서 군포교 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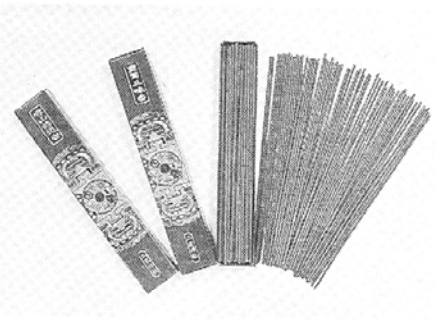
■ 임관시 연령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이나 육·해·공군 군승단(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불기 2540(96)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이성타

二軌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불교용품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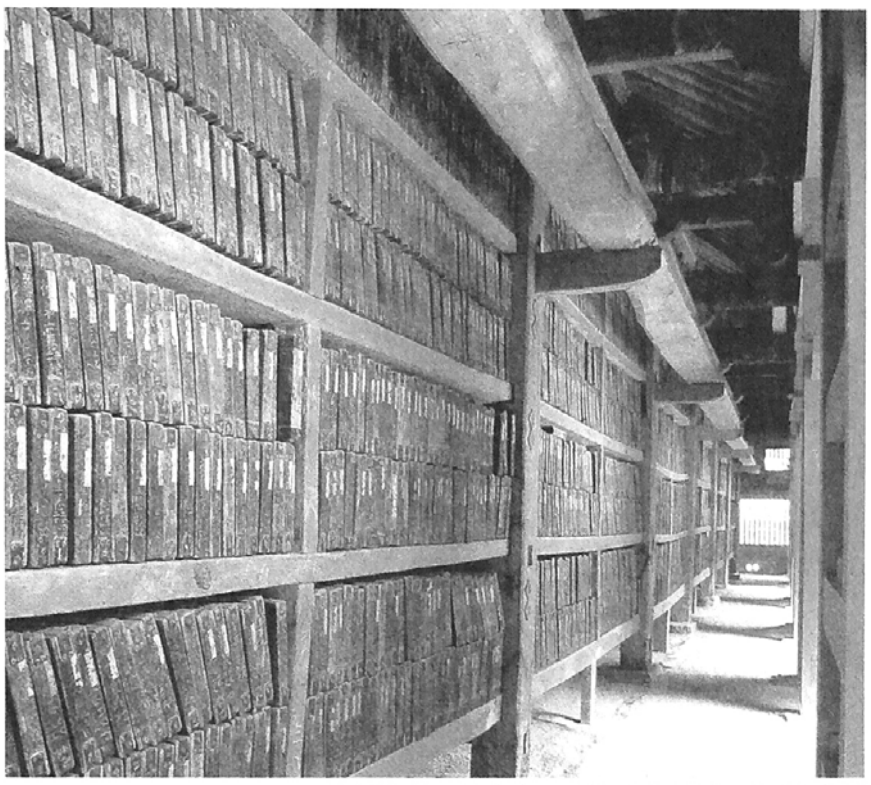
二軌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인류의 寶庫"

특집 Ⅱ 불교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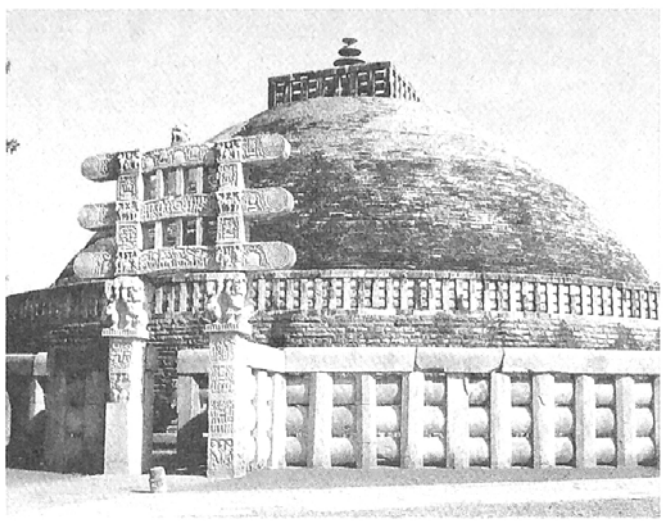
세계불교문화유산 13곳 그림으로 본다

현대불교 창간2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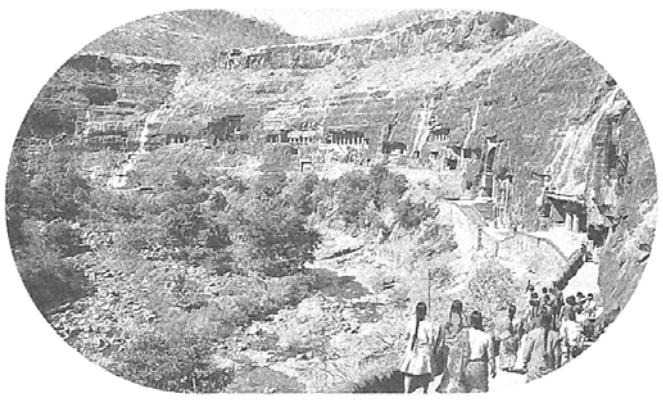


팔만대장경 판고 고려 고종 24년(1237)부터 39년(1252)까지 16년 간에 걸쳐 판각됐다. 대장경(大藏經)은 경·율·론 삼장이나 여러 고승의 저서 등을 모은 총서를 말한다. 달리 '일체경(一切經)'이라고도 한다. 이 대장경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 판고는 바닥에는 흙과 소금과 숯이 켜를 이루도록 쌓여 있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도를 취했다. 또 벽에는 통풍을 위한 창을 내 어떤 조건에서도 별도의 인공적인 시설 없이 배기·환풍·제습·가습이 가능토록 과학적으로 축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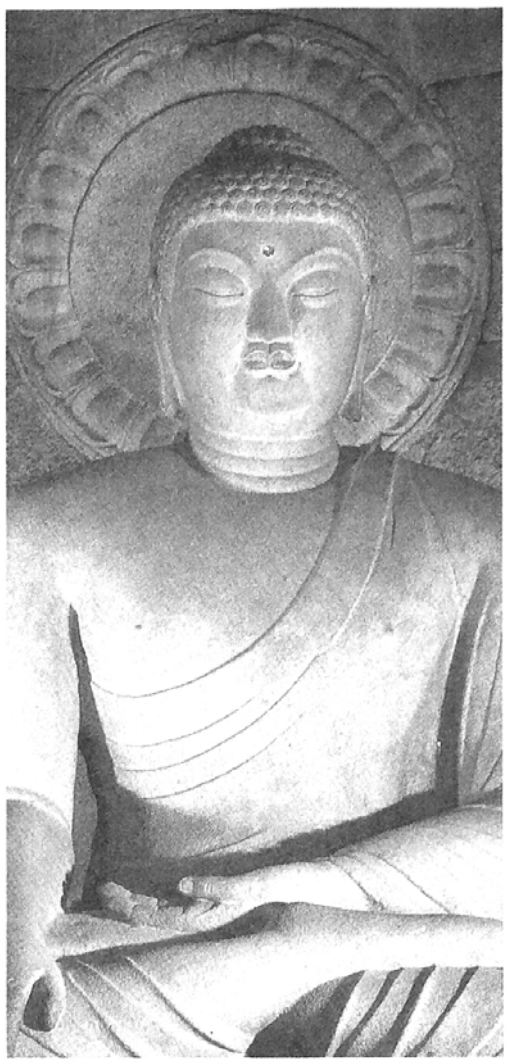
〈한국 · 1995년 지정〉



산치대탑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 주 중서부에 있는 유적지. 이 유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818년에 발견된 산치대탑으로 B.C. 3세기 중엽 아소카 왕이 건설했다. 산치대탑 건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을 나타내는 반구형의 돔을 기본형태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꼭대기에는 세계의 산을 의미하는 정4각형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솟아 있는 높은 기둥은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 〈인도 · 1989년 지정〉



아잔타석굴 인도의 서부 봄베이 북동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불교 석굴사원군. 기원 전후부터 기원 7세기에 걸쳐 계곡의 만곡부(彎曲部)를 중심으로 침식단애를 파서 건축한 29개의 석굴로 연장 5백미터에 이른다. 건축장식·벽화·조상(彫像) 등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불전굴(4개)과 승려의 수행을 위해 머무르던 '비하라'라는 승원굴(25개)로 각각 나뉜다. 이중에서 승원굴인 8번부터 13번까지의 석굴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기원전 2세기에서 굽타시대인 5세기까지 각각 만들어졌다. 1818년에 우연히 발견되어 일약 유명해졌다. 〈인도 · 1983년 지정〉



석굴암 화강암의 자연석을 다듬어 인공적으로 축조한 석굴사원이다. 통일신라시대인 751년에 김대성이 왕명을 받아 건축했다. 석굴암은 석굴길이 14.8미터, 굴실지름 7.2미터, 굴실높이 9.3미터, 본존상 높이 3.26미터 그리고 대좌높이 1.58미터의 규모로 조성됐다. 굴실의 천장부·밑바닥·둘레가 모두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본존상 둘레에는 여러 보살상이 꽃잎과 조화를 이루며 조각됐다. 〈한국 · 1995년 지정〉



앙코르와트 캄푸차 크메르 왕국시대인 12세기경에 앙코르 톰의 남쪽 11킬로미터 지점에 사암(砂岩)을 사용해 건축됐다. 와트란 사원이란 의미. 크메르 미술의 대표로 꼽히는 앙코르와는 동서 1천여 미터, 남북 8백여 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둘레에는 폭 2백미터의 큰 인조호가 있다. 그리고 서쪽 정문에 있는 탑문으로 들어가면 폭 8미터 길이 475미터의 두드러진 부석의 선도(羨道)가 뻗어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불법 경작과 건축으로 위협받는 앙코르와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캄보디아 정부에게 규제조치를 요청하고 감시위원단을 파견했다. 〈캄보디아 · 1992년 지정〉

보로부두르사원 인도네시아 조크자카르타에 자리잡고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로 약 8세기경부터 1백여년에 걸쳐 건축된 고대 사원. 문화사학의 거장 토인비가 "이곳에서 평생 살고싶다"고 극찬하기도 했던 보로부두르 사원은 하나의 작은 언덕 위에 펼쳐져 있는데, 언덕 밑으로부터 차례대로 높아지면서 작아지는 5층의 4각형 단(段)과 3층의 원형 단 둘레로 한가운데 중앙탑 세워진 형태로 건축됐다. 높이는 약 30미터에 이른다. 보로부두르사원은 현재 유네스코의 재정과 기술을 지원받아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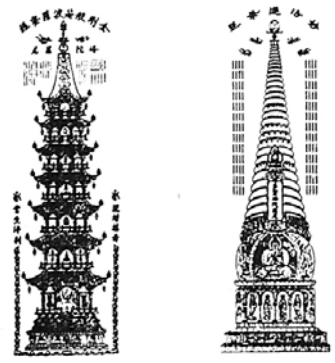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 1991년 지정〉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❹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본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줄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장·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잔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심한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하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십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시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시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시도 충분히 쉽고기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기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베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학,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수행-포교 둘 아닌 하나 '깨달음 향한 길'

가을이 익어가고 있었다.

서울 삼청동 칠보사 조실당의 열려진 창가에서 석주스님은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노사(老師)의 독서 내용은 무엇일까.

"스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숭산스님은 석주스님께 예를 표하고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다.

"어서 오시오."

"이 아이는 제 미국인 제자인데 무심이라 합니다."

넙죽 삼배를 올리는 벽안의 젊은 선승을 석주스님은 짧지만 긴 여운의 인사로 맞았다.

"무심(無心)이라… 무심해야 공부가 되는 법이지."

국내에서 한글경전보급과 어린이 포교에 힘써 온 석주스님과 해외를 돌며 전법의 행로를 넓혀 온 숭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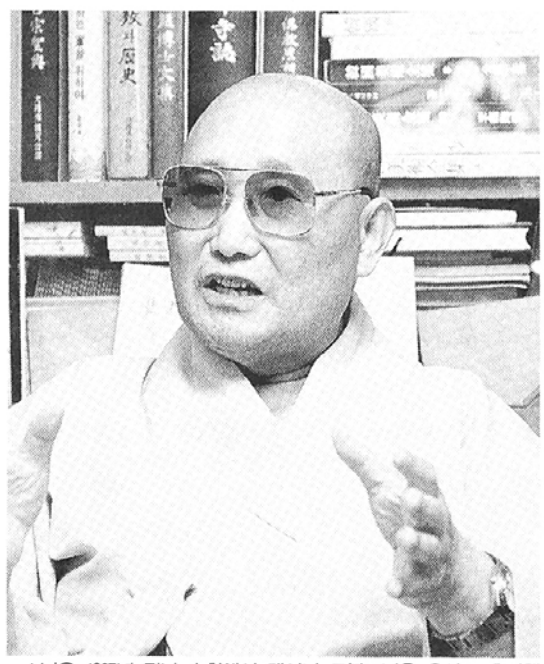
두 대덕(大德)의 만남은 순탄치 못했던 현대 한국불교사를 지켜 오며 차곡차곡 쌓아 이룬 수행의 결정(結晶)을 활인(活人)의 검(劍)으로 벼르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곤긍을 양식삼아 공부에 매진하던 시절에의 회상,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사에 대한 근심과 희망을 나누는 지혜의 법석이었다. 중추가절의 넉넉함을 수미산의 한가위 달로 띄워 올리는 두 대덕의 법담은 서로의 건강을 물으며 시작됐다.



스님은 1909년 안동에서 태어나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역경과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스님은 청교련 총재, 역경원 이사장, 조계종 포교원장, 총무원장, 중앙승가대학장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 불교전법에 기여해 왔다.

석주스님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마곡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쳤다. 수덕사 선원에서 정진한후 조계종 총무원, 종앙종회, 동국학원등에서 주요 소임을 맡았으며 66년 일본에 홍법원을 개설한후 30여개국에 홍법원을 세우며 세계일화에 매진하고있다.

숭산스님

"칭찬제일 혜암스님 법담 틀리면 용서 안했죠"

가르침 정신마저 한글화해야 진정한 역경

숭산:스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석주:하루 세끼 끼니 잘 챙기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책 읽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나가고… 나야 이렇게 살지 뭐.

숭산:건강하신 법체를 뵈오니 기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 뵙게 되어 면목없습니다.

서로 할일 잘하면 되지

석주:자주 만나는 것이 대숩니까. 서로 할 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스님이야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하는 최고의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종종 소식은 들었어요.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십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 포교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숭산:정화시절에 스님의 뒤를 이어 종무를 걱정하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주:그때 스님이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 시대적 혼란과 노력들이 오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숭산: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서 모든게 정신 없이 돌아가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분명한 중생계의 실상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스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여러 절을 다니시며 공부하셨는지요.

석주:나야 어려서부터 선학원에 살다가 범어사에서 나이 스물에 계를 받고 한 6년 공부하고 다시 선학원으로 와서 오래 머물렀지요. 그때 적음스님이 원장이셨는데 나는 그 스님의 일을 많이 거들었어요. 참, 숭산스님이 수덕사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나도 수덕사의 정혜도량에서 밥을 한 철 먹은 적이 있어요. 만공 혜암 효봉 금봉 고봉스님들이 다 살아 계실때였어요.

숭산:저도 오래전에 그런 얘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조금 전의 일인 것 같군요.

석주:(눈을 지긋이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참 그 시절이 좋았지.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는 정말 공부 잘 하는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숭산:공부만 잘 했습니까. 일도 잘 했지요. 일도 공부였그 하루에 무와 잡곡으로 쑨 멀건 죽 한그릇 먹는 것도 공부였지만 말입니다. 정말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런 대중 생활에서는 베게도 없어서 목침 하나를 놓고 다투는 경우마저 있었습니다.

석주:그때야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죽 한 그릇이라도 줬나요. 내가 정혜사에 있을때 효봉스님이 입승을 보셨고 나는 그 스님에게 무서운 감명을 받았어요. 아, 효봉스님이 말이지, 설달 그믐께였는데 목아래에다가 칼을 세워 두고 혼자 정진을 하시더란 말이예요. 참 무서운 열정이셨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레를 그렇게 용맹정진 하시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아래 칼 놓고 정진

숭산:영운스님이란 분은 한 겨울에도 문을 열어 놓고 참선을 하셨잖아요. 추위를 못이기면 자기를 이길 수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석주:그랬지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 한가락씩 특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스님도 다 잘 알고 있을겁니다.

숭산:알다마다요. 거 왜 혜암스님은 남의 칭찬을 잘 해서 '칭찬제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석주:맞아요. 혜암스님이 '칭찬제일'이었지요. 그 분은 무조건 남을 칭찬하며 일생을 사셨는데 고암스님도 칭찬에는 매우 후하신 분이었어요. 그 스님들은 칭찬하면 죄인도 그 죄를 뉘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혜암스님이 절대 칭찬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공부를 점검할 때, 그러니까 누구하고 법담을 하다가 틀린 말이 나오면 용서를 안했어요. 한번 걸리면 두고두고 까는데 참 매서운 면모였어요.

숭산:청담스님은 '인욕제일'이었습니다. 참 잘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지요. 인욕에 큰 도가 베어 있음을 청담스님은 많이 보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은 누가 찾아가서 이러니저러니 흉을 잡고 욕을 해도 묵묵히 다 듣고 계시다가 끝에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그게 "스님 왜 그러십니까?"였지요. 그러면 흥분해서 떠들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기 일쑤였고요.

(두 대덕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석주:춘성스님은 욕을 잘하기로 일등이었잖아요. 참 욕 한번 걸팡지게 잘 했지요. 그런데 그 스님의 욕은 더러 욕이 아니라 법문 같았다니까요. 공부를 잘 하는 스님이 많은 시절엔 그렇게 재미있는 일화도 많은가 봅니다. 설봉스님이나 '방울스님'이라 불렸던 홍도스님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숭산스님도 해외전법의 제일인자가 아니십니까.

숭산:그럼 석주스님께서는 어린이 포교와 역경의 제 일인자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치열한 공부와 무애의 법력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스님,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주:시대가 바뀐 것 뿐이지 부처님 법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용맹정진 하는 스님이 한둘이 아니예요. 우리가 다 가고 난 뒤에도 큰 스님들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숭산:그런데 들기민망하게도 요새 공부하는 스님이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수행환경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바른공부는 방편 초월해

석주:세상이란 언제나 변하는 것이지요. 요새는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시로 나와 포교당을 운영하는 스님들도 많고 혼자 토굴을 마련해 정진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게 다 공부하는 환경이 변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걸 두고 좋다 나쁘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디건 어떤 환경에서건 자기가 수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스스로 거스름이 없이 불법을 닦고 대중을 포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겠지요. 수행과 대중교화는 따로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수행 가운데 포교가 있고 포교하는 가운데 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숭산: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참선이건 염불이건 사경이건 그것이 자기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잘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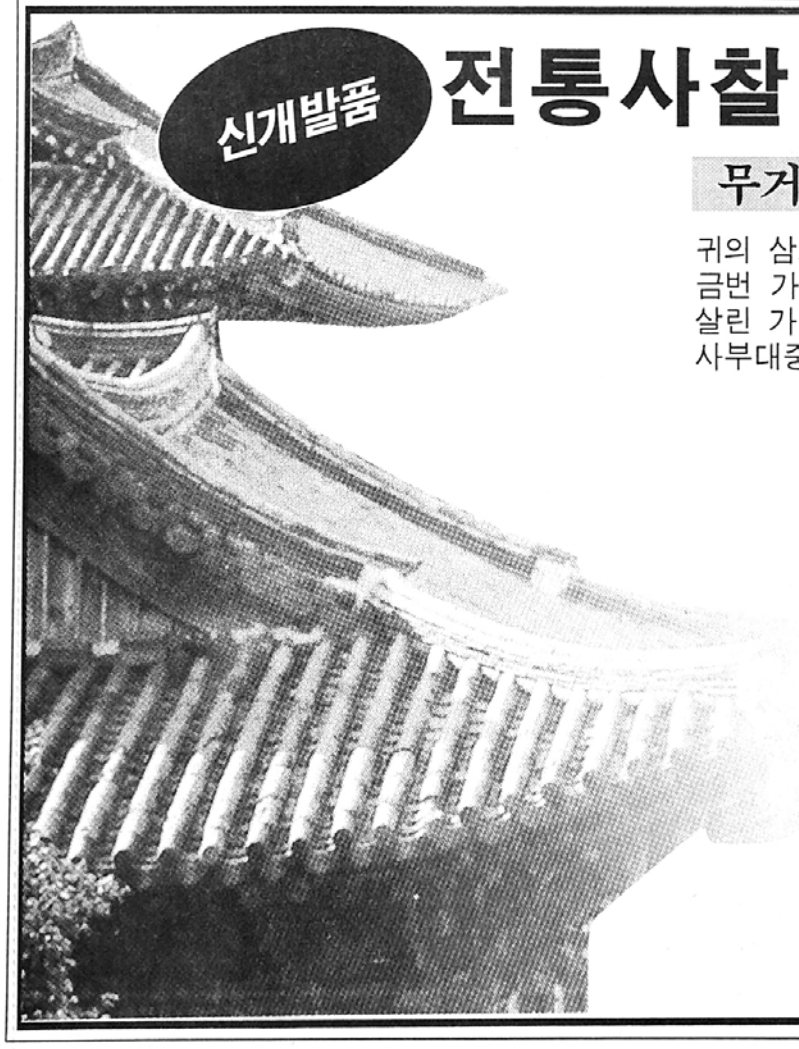
"멀건 죽 한그릇 먹는 것도 공부였는데…"

세계인 불교정보 욕구 늘어…교계대책 세워야

석주:우리나라 불교를 통불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효스님이 그랬고 성철스님도 "종단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통불교라고 해야한다."고 말했었지요. 법계의 진리를 체득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부처님 재세시나 다를 것이 없어요. 법계의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증득하는 공부가 된다면 방편에 끄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숭산:'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배는 버려야한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의 공부도 강을 건너는 것이지 배를 타는 것에 목적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스님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난립해 포교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스님 생각에 불교의 포교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주:외국에 나가 제일 포교를 많이 하신분이 그런 질문을 하니 뭐라 할말이 없군요. 우리나라 불교의 포교는 점차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교승과 포교법사가 다니면서 포교하는 것만 포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가 여러 방면으로 발전하는 것 그게 다 포교거든요. 요새 조계사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무거운 흙기와에서 천년가람을 가람동기와가 보호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철주야 불음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합장 향배 올립니다.
금번 가람 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미를 되살린 가람 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니다.

불기 2540년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 암갈색 →흙갈색→ 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

원로 한담 〈석주스님 : 숭산스님〉

현대불교 창간2돌

"불자라면 누구나 성불 큰 원 세워야죠"



◇ 어린이 포교와 해외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매진해 온 석주스님과 숭산스님은 칠보사에서 만나 대담을 나눈후 법당 앞을 거닐며 담소했다.

석주스님

"불교는 보살행의 종교이니 진정한 평화위해 나서야지요 전법현장 넓어질수록 사회 정의는 바로서야 하는데…"

앞에만 나가봐도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불교책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이 포교가 잘 된다는 증명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야 참 책도 몇권 없었어요. 용성스님이 몇가지 책을 펴내 읽혔고 한자에 음만 달아 놓은 송주들이 책으로 만들어져 읽히던 시절에 비하면 요새는 불교책의 풍년이 아닙니까. 글 모르는 사람도 없는 시대인데 이만하면 포교도 잘 된다고 봐야지요. 역경불사도 매우 잘 되고 있는데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역경은 경전의 의미만 한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의 정신마저 고스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역경에 능한 인재를 많이 길러야 합니다. 외국의 포교는 어떻습니까.

숭산:외국은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자의 벽을 뛰어 넘는 것부터 서로의 습성과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을 융화 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도 불법은 마음의 법이라서 조금만 마음이 열린 사람이면 쉽게 선(禪)공부에 매력을 느끼고 불법에 귀의 합니다. 여러나라에 홍법원을 세웠지만 다 마음의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교육시설 많아야

석주:서울의 각황사(조계사)나 대구 보현사 강릉포교당 등이 포교를 주로하던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발전된 겁니까. 한국불교가 국내외에서 커져가고 있잖아요. '1면1사 운동'까지 거론되던 때도 있었잖습니까. 어린이 합창단의 경우도 그래요. 내가 칠보사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할 때만 해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건 해서 뭐하느냐는 것과 말하기 우습지만 애들이 무슨 시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절 문 앞에다 애들을 모아 놓고 노래를 부르게 한 적도 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새는 거의 모든 절에 어린이 법회가 있고 합창단도 있거든요. 아예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절도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교가 나름대로 잘 홍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개신교가 더 활발히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숭산:사실입니다. 불교의 포교가 잘 되려면 조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가는 승가대로 재가는 재가대로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스님들 조직이 강화 되어야죠. 다시말해 법계(法階)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초심자나 노장님들이나 다 같이 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수행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법계를 철저히 품수하고 그에 따른 기강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신도조직도 지금처럼 중앙에서만 몇사람이 움직이는 체계로는 안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탄탄한 조직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불교계의 조직이 새로이 정비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가는 수행과 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주:그렇게 잘 된 조직이 운영되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대중의 수행도 훨씬 잘 되겠지요. 그래야 불교도 바로 서고 좋은 세상도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숭산:스님께서 성불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대 중생들은 정말 성불의 큰 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중생이나 다 그렇겠지만 성불의 서원이 절실하기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禪)에서야 견성을 하면 거기서 다 끝난다고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발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석주:교학적 입장에서는 견성이 곧 성불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견성을 했어도 3아승지겁을 더 닦아야 성불을 한다고 하거든요. 더 닦는다는 것은 곧 보살행인데 이 세상은 그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숭산:그렇게 해서 온 중생이 평상심을 누리게 되면 일체의 성불이 가능해 지겠지요. 평상심이란 '나'라는 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없는 곳의 모든일이 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내가 있다고 나를 내세우니까 모든 일에 끄달려 집착을 낳고 중생계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 속에 살며 진리를 모르는 것도 나를 내세우는 탓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은 속세이고 속세에서는 모든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 실체를 벗어난 곳이 실상의 세계이며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실용의 세계를 펼 수 있는데 바로 이 실용의 세계를 펴는 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수용하되 혼자하면 소승이고 대중에 회향하면 대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진리로 남을 이롭게 하면 보살의 세계가 이뤄지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죠.

석주:생각이 현재를 낳고 고통을 낳는 것이니 그걸 뚝 잘라내고 진리의 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이 모든 불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수행에도 여러 방편이 있고 계율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계율을 벗어나서 이룰 수 있는 도란 있을 수 없지만 그 계율에 집착을 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못하거든요. 계율에 집착하면 그 본래의 뜻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니까요.

숭산:그렇습니다. 계율의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불변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걸 바꿔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기에 앞서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알고 공부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 한 수행자가 건너편의 여자를 업어 건네 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른 수행자가 "자네는 계율을 어겼으니 함께 갈 수 없네"라고 하자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구먼"이라 답해서 깨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율이라는 것도 잘못 알면 집착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마다 불교의 자세가 오롯이 서있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숭산스님

불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외국사람도 마음이 열리면 언어·문자의 장벽 뛰어넘어 쉽게 불법에 귀의 합니다

석주:우리나라의 불교도 그런 면에서는 반성해야할 것이 많아요. 일제때도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저히 안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각자의 노력과 정진력에 달린 것이 계율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허용한다 안한다 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승가의 육식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계 구별 엄격해야

숭산:외제개혁을 두고 요즘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승단의 복식은 매우 정확한 구분을 가졌었지요. 아까 얘기한 법계의 구별이 옷으로 매우 엄격히 구분 되었던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전통이 있으므로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일 만큼이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정보화 시대라서 정보교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것도 우리불교의 자세를 다잡는 일이겠습니다. 여기 무심스님의 경우 방에서 컴퓨터로 세계에 퍼져 있는 홍법원과 의견을 나누고 지시사항을 전하고 그쪽의 일들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불교계도 이런 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컴퓨터야 포교하기에 썩 좋은 것이라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불교의 세계화가 컴퓨터 포교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뭔가를 알리려고만 해서는 안되고 그걸 통해 세계인이 뭘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시 컴퓨터 불교가 할 일이겠지요. 올 가을은 북한의 무장공비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숭산:제가 보기에 북한은 현재 스스로 혼돈의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공산당의 입장과 군사력을 장악한 실력파 그리고 페밀리 파워의 갈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뿐입니다. 저렇게 군사도발을 하는 일이 어제오늘 저질러진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정부도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체계를 갖고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만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전국민의 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정신이 강조 되기 전에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이 더 큰 걱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성 바로잡는 교육을

석주:나는 그 원인을 두가지로 봐요. 잘못된 교육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외면이 그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인성을 바로 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출세하는 기계 만드는 쪽으로 치우친 잘못이 오늘의 사회범죄를 만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반성도 필요해요. 전법의 현장이 넓어 질수록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로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뭔가 잘못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아까 말한대로 불교는 보살행의 종교인데 과연 오늘의 불교는 얼마나 보살행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많은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해요. 바른 복지 사업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지 않고 '나'를 비우고 보살행을 하는데 있어요. 그 보살행의 현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하고요.

숭산:종단이 스님들의 특기를 살려서 그 특기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뭘 하든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공부를 겸한 교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님들의 활동이 커지면 사회의 병폐도 저절로 치료가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적 타락은 휴전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평화는 타락된 평화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국민의 정서마저 외국의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융화해 내기 보다는 좋지 못한 풍속을 너무도 빠르게 받아 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적인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거기에 불교가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주:그렇지요. 호국불교란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바른 정신을 이끌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시키는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숭산:스님 오늘 문득 찾아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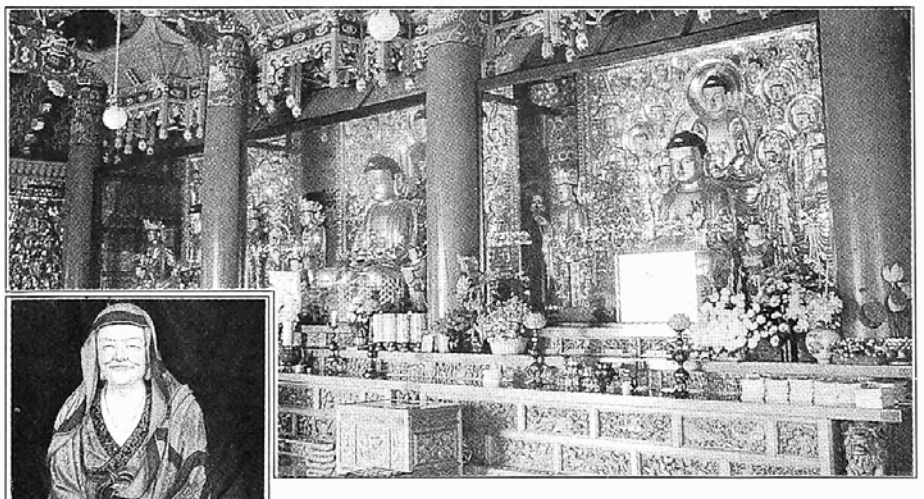
석주:내가 할 말을 먼저 하시는군요.

(두 대덕은 조실당을 나와 큰법당 앞을 거닐며 잠시 가을 풍광을 쏘이고 총총히 작별의 합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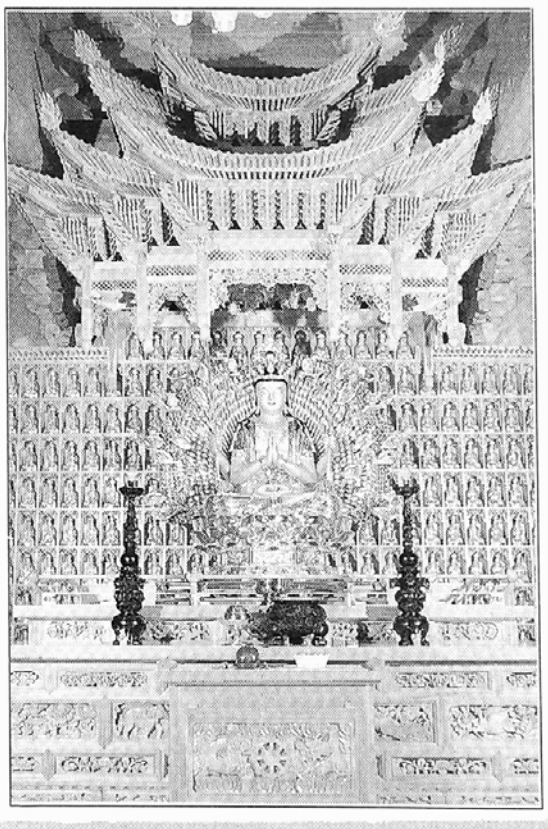
진행·정리=임연태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무욕도량 만원

인담 우녀 대해 소식 두 소년행자 우식 만우에 이어 효영 명오 상수 상을 박월 길성 순풍이 더하였다. 거기에 다시 수월이 건너오게 된 것이다.

대중 14명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녀는 생식조차도 저녁은 건너뛰는 것으로 양식을 아껴야 하였다.

효영 일행들에게는 무욕도에 닻을 내린 뒤 며칠이 지나서 따라야하는 생식에 몸시 낯설었다.

특히 사공 박월 길성 순풍이는 아예 생식으로 한 웅큼 받은 생쌀이나 물에 불린 보리를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따로 삼발의 화탕기로 죽을 끓여 먹으니 약탕기에 남은 약찌꺼기까지 나는 죽을 먹다가 인담에게 들키기까지 하였다.

인담이야 그런 일을 못본척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생식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따로 죽을 끓이는 일이 그대로 이어지겠는가.

하루 지나서 우녀가 말하였다.

"가마솥 하나를 몸 가운데 걸고 거기에 밥도 짓고 죽도 쑤어 만반 진수로 잡수시지… 어디 바다 한복판의 대장부들이 좀도둑인양 몰래 감초도 없는 약을 달여 먹다니요."

박월들이 이런 우녀의 말에 벙어리 밖에 될 줄 몰랐다.

"한번 생식을 해보셔요… 꼭꼭 씹으면 그 단물은 제호미(醍醐味)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성이 순풍이가 꾸벅 고개를 숙여 말하였다. 박월이 물었다.

"제호미가 무엇입니까?"

제호란 우유를 정제하는 다섯가지 과정 가운데 마지막의 제5 과정을 거친 가장 정밀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유미(乳味), 낙미(酪味), 생소미(生酥味), 숙소미(熟酥味) 그리고 제호미에 이르는 우유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이다.

이 맛을 천태종에서는 법화경 열반경에 적용하여 제호경(醍醐經)이라고까지 하거니와 그것은 그 경전들이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우유음식과 같다는 뜻이 된다.

이런 설명이야 인담이 거들어야 하였다.

그러나 순풍이가 돌아서서 혼자 투덜댔다.

"우리를 소나 말로 아는 모양이로다…."

이 투덜대는 사공 순풍이의 소리를 그들의 선주였던 효영이 들었다. 효영이야 진작 공부의 절반에 들어온 경지였다.

"자네가 소도 된 적이 있고 말도 된 적이 있지. 나도 또한 마찬가지였지."

"……."

"어디 자네나 나 뿐이겠는가. 이 삼의 어른들이나 동문 수학의 벗들이나 다 소였고 말이었지… 소와 말만이 아니라 갈치였고 조기였지… 신선이기도 하고 잡귀이기도 하였지… 누구나, 무엇이나… 다 그 무엇이 되어본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 무엇들이 될 것이야…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수억만번이나… 이것이 과거이고 이것이 미래라 하겠지…."

"……."

"일러… 중생(衆生)이 그런 세계를 채워왔지… 중생이란 궁극적으로 다 부처를 이루면 없어지지… 그렇게 되면 부처라는 것도 없지…."

"……."

"내가 자네들과 함께 여기 스승을 찾아온 것은 그런 중생을 부처로 바꾸기 위함이겠지만 그러나 그 중생이 그대로 부처일 때는 그저 함께 사는 자비 속의 이웃이라는 뜻도 결치고자 함이었네… 그렇지. 중생이란 곧 공생(共生)이고 나 하나하나의 그것이 아니라 공(公)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이지…."

어느덧 인담이 이런 말을 막힘없이 하드름이나 긁어주어야지…", 우식은 "만우의 죽은깨나 크게 만들어 주어야지" 하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효영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인담이나 우녀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효영 자신이 명오 상수와 세 사공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에게 바로 발심장 따위를 익히는 일도 없었다.

인담이 효영에게 말한 것이 있다.

"공부란 조사(祖師)들의 헛바닥에서 나

오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에 닿는 것들이 다 스승이니 그 공부나 하며 실컷 놀아보아."

말하자면 공부에 어떤 틀을 만들어 그 틀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스스로 제 공부를 발견하도록 하는 자율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러기에 인담은 무욕도에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가 분주히 여기저기 살펴야 할 처지가 아니어서 모 심은 뒤의 논에 앉은 왜가리처럼 한가하기까지 하였다.

상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상수는 그의 누이 상을과 함께 온 것만으로는 이번의 무욕도 귀의가 흡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와 다른 형제들 그리고 종형제 재종숙부와 재종형제들과 노복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다. 송도 교외의 산야와 염전 들의 부(富)도 깡그리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벗 효영과의 동행이야말로 기쁜 일이었고 그런 기쁨에 누이 상을이 따라준 것이 더욱 기쁨을 곱절로 만든 터였다.

시간이 가면 욱뜸 냄새가 사그라들었다.

"오늘은 이만 하세… 그래도 자네가 잘 감당하고 있네."

"스님!" 하고 상수가 그 서늘한 눈빛에 깊은 감사의 뜻을 비춰내고 있었다.

"내일은 좀더 뜸자리를 늘려야겠네… 뜸질도 살림이라 부지런히 하면 늘어나는 것이겠지…."

"스님, 공부도 그래야겠지요."

"암… 자네가 익은 곡식이로세."

"황송합니다. 아직 뜨물도 들지 않은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도 겨는 남기는 법이니…."

인담은 법채의 간병실에서 나왔다. 늘



> 눈이 소리를 보는 것처럼
> 차의 맛을 귀로 듣는 것처럼
> 섬사람들의 마음은 몸이었다



"중생이란 共生이고 私 아닌 公에 이르는 삶이라네"

그러자 어린 행자 우식이 냉큼 끼어들었다.

"불법도 이 맛 저 맛이 차별됩니까?"

"허어."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의 5경(五境)을 다 없애야 하는 공부에서 하필 맛을 말하다니요. 지금 우리는 맛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몸을 끌어가기 위해서 공부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되었어!"라고 인담이 당돌하기까지 한 우식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린 행자의 뜻밖의 날카로운 말에 놀라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이렇게까지 줄줄 나올 수 있는 공부였던가. 인담 자신이 가르친 원효의 발심장(發心章)조차 다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대해가 산등성이와 숲 바다에 내보내어 시키는 자연법이(自然法爾)의 공부가 훨씬 저 두 행자의 안목을 키운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박월 등의 사공들 세사람도 루 똑똑한 표정, 씁쓰레한 표정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송충이를 씹은 것 같은 그 표정들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생식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굳이 입안이 싱거우면… 저 해안삼매(海印三昧)의 바닷물 한 모금 입에 넣으면 그것이 갖은 양념 아니겠는가" 라고 대해가 그들에게 너털웃음을 보내며 얼러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금맛이야 실컷 바다냄새로 대신하고 정작 수행자의 음식이야 무염식(無鹽食)이 으뜸입니다" 라고 우녀가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효영에게 몇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효영을 더없는 자랑꺼리로 삼고 있었다. 마치 재 속의 불씨가 숯을 불기운을 내다가 마침내 시뻘겋게 되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닥친 눈송이 몇개가 떨어져 속절없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 소멸이 효영의 마음 속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우녀와 대해들은 진작 아래쪽으로 갔다. 이제 후원은 소석과 상을이 맡았고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가 소석을 졸래졸래 따르며 돕고 있었다.

후원의 일이라고 하지만 밥짓는 일과 찬꺼리 만드는 일이 없으므로 첫째 후원은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이나 생식 쌀을 불리거나 물 갈는 일 말고는 손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만우는 "후원에 오면 우식이 여

이렇게 한가한 몸이 바로 조실이나 방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일을 마친듯이 한가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조사가 되는 것인가. 인담은 최근 그의 곧은 앉음새에도 불구하고 한두번 빠끗거리던 허리에 며칠 동안 아픔이 있었다. 이제 나도 늙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이 생긴 것이다. 바로 상수가 앓아눕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침을 놓아야 하고 뜸의 심지를 태워주어야 하였다.

정작 그 자신의 요통 따위에는 침을 꽂거나 쑥뜸을 태우는 일이 없다가 새로 온 제자의 가슴 두근대는 정충(怔忡)을 치료하는데는 열심이었다. 다행히 몸의 지방질이 많지 않아서 애기(艾氣)를 잘 빨아들이는 편이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혈수(穴數)는 5개 이상을 넘기지 못하였다.

"천천히 낫게 해주지… 병앓는 것도 공부니까…."

그가 보기에도 상수행자의 정신은 거의 효영과 맞먹을 정도인데 몸이 허약한 것이 답답했다. 인담의 말은 그런 약자에의 격려만이 아니었다. 실지로 그가 개심사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의 한 선덕(禪德)은 늘 뒷방에서 앓아누워 있는데 한밤중의 어둠속으로 한줄기 빛살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그 뒷방에서였다.

그때 인담은 그 뒷방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다만 그 절의 다른 스님에게 물어보았을 때의 대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노장 아른께 아니여… 용맹정진하기 위해서 아픔을 불러들인 것이여."

그렇듯이 이 섬의 도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온몸으로 반기는 것은 파도소리였다.

오늘따라 먼 데 난바다의 파도소리까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아주 풍부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두 귀로만 들기에는 택도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눈으로 보아야 하였다. 관세음보살의 눈이 온세상 중생의 소리를 보는 것처럼. 아니 오묘한 차의 맛을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처럼.

과연 섬의 대중은 생식의 나날로 심신이 투명해지는 것이었다. 5경(五境)에 집착하는 바를 쉬는 중이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다.

그림 · 조향숙

· 고 · 객 · 만 · 족 · 홈 · 쇼 · 핑 ·

마 — 트
LOTUS MART
밝은쇼핑, 맑은마음, 자연건강

*통신판매업 신고 제96호(불교용품전문점)

■ 주문 및 문의전화
●대표주문전화 02)3141-1011
●무료주문전화(전국)080-789-1011
●전용주문텔스 02)3141-1711
●전화 한통화로 편리한 쇼핑을 즐기시고 생활의 만족을 만끽하세요.

■ 주문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 스피자보호 및 A/S(고객센터) (02)3142-4497
■ 대금결제는 온라인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주 : 연 마 트 이 희 재
☛ 온라인 현금결제시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확인후 즉시 주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주문시 성함과 송금시 성함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 우체국 : 013433-0046119 · 농 협 : 038-01-053152
· 국 민 : 069-21-0590-397 · 상 업 : 472-04-101306
· 신 한 : 328-02-105834 · 외 환 : 079-22-01784-5
· 한 일 : 008-040022-13-101 · 서 울 : 21508-5941507
☛ 신용카드 결제시는 먼저 전화주문 접수후 해당 카드의 전표를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표에 싸인하신후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부쳐주시면 전표가 연 마트로 도착 즉시 주문 상품을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 발송방법 : 입금확인 및 카드승인후 택배나 등기소포로 3-5일 이내에 전국 어디나 무료로 받아 보실수 있도록 보내 드립니다
■ 취소 및 교환 : 주문하신 상품을 받아 보신후 이상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7일 이내에 전화주십시오. 취소 · 교환 · 반품 및 환불등 100% 철저한 사후조치로 완벽한 고객 서비스를 공개 약속드립니다.

맛은 소박, 멋은 해탈, 자연 건강

성명의 근원인 경물이 만물을 상서하는 모하로 탄생시킨다는 지고한 정학을 탄력하는 연화화상관(蓮花化生館)에 입각하여…
저희 蓮 마트는 불교계 최초로 유통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물론 불교계로부터 일반 불교를 찾아온 많이 사랑의 지혜의 · 후와 및 고급화를 실현하여 스님분들과 불자님께 주신 무한사랑을 " 내려주신 혜정 지혜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신뢰하고 편리한 구매를 통한 참된 스토, 성심수행 주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한 참된 마음, 대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식을 통한 자연건강을 추구해 하여 신앙의 여망을 뿌리는 물과 마음으로 여러 스님분들과 불자님께 바른 정량이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蓮 마트는 모든 스님분들과 불자님의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

蓮 마트 임직원 일동

대자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생명식



◆불자생식의 효과◆
• 자연인이 된다
• 머리가 맑아진다
• 지혜가 생긴다
• 피곤하지 않다
• 피부가 고와진다
• 체중이 적당해진다
• 각종 성인병이 예방 및 극복된다

(한봉지를 200cc냉수에 타서 흔들어 마실 수 있는 용기 제공)
● 지난 4천여 동안 신사에 거친 스님들께만 공급해 드렸던 생식을 이러 스님들과 불자님께 권해드립니다.
● 불자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해조류, 부추, 구기자, 솔잎, 마, 과일 등 30가지의 원료를 동결건조시킴으로 인체에 해로운 어떠한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되었습니다.
● 성인병, 다이어트, 어린이 이유식으로도 훌륭하며, 특히 수험생이 드시면 머리를 맑게하고 기억력을 증진 시킵니다.
● 내용량 70g
● 30포를 기본 단위로 판매

불자생식 | LT-101 | 蓮 마트 특가 99,000

■ 佛子生食 대리점 · 취급점 모집
대자연과 신사인류가 가르쳐준 生食, 자연의 정기를 가득 담은 生命食,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正食의 보급에 참여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특이한 물품관련용품을 찾습니다
물품에 관련있는 뛰어난 상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고 있으나 판매망이 미진하여 빛을 못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蓮 마트와 의논해 주십시오.(문의전화 : 02-3142-4497)



호신진언
"옴마니반메훔"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면서 장수, 행복, 건강을 기원하십시오.
· 장인정신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순수저
· 함량 : 은 92.5% 25돈

옴마니반메훔 은수저 | LT-107 | 蓮 마트 특가 48,000원

● 상품 결품의 경우에는 연 마트 홈피에 공지해 드리오니 주문하실때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님 분은 주문하실때 법호와 본사 · 본사를 꼭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확인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



(축소형 복제품)

가격파괴
"국보중의 국보 최고의 걸작 완벽한 재현"

● 국보 제287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7세기 중엽에 제작된 백제금동대향로를 1,300년만에 완벽한 재현.
● 원형 그대로 재현된 복각향로는 귀하 가정의 가풍과 품위를 격상시켜주고, 조상의 은덕을 받아 모든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보가 될것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엄정한 기술지원 및 감리를 받았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 복 제 품 | LT-102 | 蓮 마트 특가 350,000원

자연의 김치 맛을 찾아드립니다 (Zeolite佛石)



각종 음식물 냄새, 냉장고 냄새, 독성물질까지 싹 제거 !

실험결과 입증

지오라이트란 학명으로는 불석(佛石), 그리스어로는 " 비등석"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수필터, 화장품, 도자기, 난분, 바이오 BOX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광물입니다.
● 김치를 담구어 적당히 익힌 다음 지오라이트 김치독에 넣어 냉장고에 두시면 10여일 동안 바로 그맛, 그향기와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마치 스폰지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 흡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사용후 끓는 물에 넣어 헹군 다음 말린후 사용하십시오.
●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살아있는 지오라이트 김치독은 사랑받는 주부로 여러분을 반들어 드립겁니다.

※ 연마트특가 상단 사진참조 ※ 용량 : 7, 4.5, 3, 2리터

귀하신 분들의 최고의 선물



"호신불은 자석팔찌"

기도! 건강! 해전!

●가운데에 호신불상, 양옆에 연꽃, 양끝에 옴마니반메훔 진언이 양각되어 있어 항상 기도도 하시고 건강을 체크하여 11개의 구슬에서 나오는 자기를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두통, 생리통, 불면증, 정신집중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 은함량 92.5%

호신불 은 팔찌 | LT-108 | 蓮 마트 특가 70,000원

기도에서 건강까지 일석이조



● 몸안에 이상이 있으면 색이 변하는 옴은 몸의 불순물을 없애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 순수으로 제작된 혈주 · 단주 등으로 혈심히 기도하시어 건강을 지키십시오.
● 어느곳에서나 염불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혈주 지갑 반지는 건강증진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이중구조로 안쪽면에는 돌출된 침구가 있고, 바깥 돌아가는 면에는 판매음보살, 옴마니반메훔, 지장보살을 양각되었음.

반지+염주주 LT-109	24,000	반지 + 팔찌 LT-110	21,000
단 주 LT-111	43,000	염 주 LT-112	86,000

온갖 번뇌를 기도 · 등불 · 향으로 털쳐 버리십시오



1 Set 구성 : 청개구리 연일촛대 2개, 청개구리 연일향꽂이 1개, 청학동 향1통, 크리스탈 불상

● 연일 촛대로 등불 밝히시고 전통 향 내음에 젖어 투명한 삶의 질을 살찌워 명상 수행 정진하십시오.
● 안심할은 전통적인 전해법으로 지피신 청학동에서 수작업으로 비작되었습니다

1 SET | LT-113 | 45,000원

퇴경당 권상로스님 미발표 유고발굴

본지 창간 2주년 기념 황천오씨 제공

근대 한국불교학의 거두 퇴경당 권상로(退耕堂 權相老·1879-1965)스님의 유고(遺稿)가 운데 발표되지 않은 방송원고와 문집, 필사본 등이 발견됐다.

이 원고는 권상로스님의 상좌이자 제자였던 황천오(黃天午·미국 LA거주)씨가 본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유고가운데 일부를 본사에 제공함으로써 알려졌다.

황씨가 소장하고 있는 권상로스님의 유고는 방송원고 '수양강화(修養講話)' 38편 3백51매, 가송집(歌頌集) 2백31편 2백50면, 화제(畵題)를 모은 〈서화방(書畵帥)〉필사본등 방대한 양이다.

이가운데 본사에 보내온 유고는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방송한 라 세시풍속,인생관 등 생활전반에 걸쳐 강의한 내용이다. 1939년 10월28일 방송한 '불교윤리관'에서 스님은 "불교에서의 윤리는 은(恩)을 중심골자로 한다"며 '부모 중생 삼보에 보은하는 실천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오의 명절'(1946년 5월5일 방송)에서는 단오의 기원과 어원, 전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의 풍속을 소개해 당시 민속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있다.

황씨는 이외에 방송원고로 '육방예배(六方禮拜)' '복을 아껴라' '식(食)에 대하여' '졸업과 수양' '오대산사찰 이야기' '가정불교' '사찰제도에 대하여' '부모의 길' 등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 권상로스님

새로 발견된 권상로스님의 유고에 대해 심재열씨(원효사상연구소장)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유고를 접할수 있게되어 후학으로서 감회를 느낀다"며 "빠른시일내에 스님의 유고가 널리 일반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로스님은 불교학뿐 아니라 전학계의 거봉으로 불화 단청 산수 묵화에도 뛰어났다. 불교중앙총무원 기관지 〈불교월보〉사장을 역임하는등 불교언론의 선구자이기도 하며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불교사와 불전을 강의했다. 저서로 〈한국사찰전서〉 등 30여종 90여책이 있으며 90년 후학들이 스님의 미발표유고를 모아 〈퇴경당전서(退耕堂全書)〉전 10권(이화문화사 刊)을 발간했다.

한편 황씨는 미발표 유고와 함께 '참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본사에 보내왔다. 황씨는 "미국 이민중 〈퇴경당전서〉를 발간하면서 소장하고있던 자료를 보냈으나, 93년 서울에 남겨놓았던 책속에서 이 원고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내용의 편지의 말미에서 "전서 발간때 원고를 보내 빠짐없도록 하지 못한 불민(不敏)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2주년 특집호에 목차와 원고 일부분을 보낸다"며 "보유편이라도 출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불교윤리관' '단오의 명절' 등 방송원고 '38편'

'가송집' 231편도…전서체 결들인 '서화방' 눈길

'불교윤리관'과 '단오의 명절'이 있으며 〈가송집〉에서 歌 3편, 詩 2편, 頌 2편을 선별해 보내왔다. 또한 〈서화방〉 필사본 표지와 화과부(花果部)일부, 세조의 원각사불사동참문과 원각사 배관기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굴된 〈가송집〉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歌와 頌을 모은 문집으로 '지족가(知足歌)' '부설거사 열반송' '부설거사 오도송'과 옛 선사들을 찬(讚)한 일엽스님의 글이 다수 있다.

〈서화방〉은 권상로스님의 출가본사인 금룡사산내 화장암(華藏庵)에서 필사한것으로 화제(畵題)를 인물(人物) 화과(花果) 금수(禽獸) 산석(山石)등 4부로 나누었으며 스님의 자(字)가 지일(之一)임을 밝히고 전서체를 결들여 다양한 스님 글씨를 보여주고있다.

이들 유고는 대부분 중앙불교전문학교원고용지(10×25)에 만년필로 한자한자 정성스럽게 씌어져 있어 스님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937년부터 해방 이듬해까지 방송한 라디오 방송원고. 수양강화(修養講話)라는 주제로 약 1시간짜리 방송분량인 이 원고들은 불교뿐아니라 서지학의 권위자로 활동하던 황씨는 동대 퇴임이후 문공부 전적담당 분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고 83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황씨는 이민생활중에도 연구를 계속해 지난 90년 '90 불교도서전'에서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본 〈두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의 파멸 훼손된 글씨를 복원하기도 했다.



◇ 황천오씨가 본사에 보낸온 권상로스님의 유고 일부분. 이 원고들은 권상로스님이 직접 원고지에 쓴 것으로 90년 〈퇴경당전서〉 발간때 빠져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다.

유고집 소장자 황천오씨는

서지학자 … 해방전 만주서 포교사

다라니경 파멸훼손 글씨 복원동참

퇴경당 권상로스님의 유고를 본사에 제공한 황천오(黃天午)씨는 1918년 경북 문경생으로 김용사에서 권상로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38년 김용사 불교대교과를 졸업했다.

41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41년 만주 무순포교당에서 포교사로 활동했으며 해방후에는 동국대도서관에서 근무했다.

수양강화-불교윤리관 (1939년 10월 28일 경성중앙방송 원고)

불교는 실천주의… "도덕실행 근본 報恩"

불교는 그 범위가 호대(浩大)하고 이취(理趣)가 심오(深奧)하니만큼 엇더한 일문제(一問題)를 들드래도 간단하고 용이하게 설명할 도리가 업습니다. 그럼으로 지금(只今)에 말슴하랴는 불교윤리관이라는 것도 그 요지와 이론과 실천을 분문적(分門的)으로 말슴하자면 도저히 한 시간에 말슴하기 불가능한 것임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대략 말슴하랴 합니다.

불교의 윤리를 3문(三門)에 분(分)하야 하나는 이론문(理論門) 또하나는 실천문(實踐門)이라하야 이 이론과 실천 두가지의 요지를 잠간(暫間) 말슴하고 그다음 실천하는 방법을 말슴하랴 합니다. 이론과 실천과는 둘(二)이면서도 둘(二)이 아님니다. 이론문이란 것은 불타의 도학(道學)으로 오인(吾人)을 대(對)하야 교시(敎示)하신 것이니 환언(換言)하면 절대계(絶對界)로부터 상대계(相對界)를 향(向)하신 현시(顯示)이고 실천문이란 것은 오인(吾人)으로부터 불타의 지위에 도달하랴는 진로(進路)임니다. 그럼으로 이 두선(二線)은 곳 일선상왕반(一線上往返)에 지내지 못하는 것임니다.

불타가 상대계의 오인(吾人)을 절대계로 호환(呼喚)하시는 교시에 따라서 상대계의 오인(吾人)은 절대계로 추향(趨向)하는 진로를 거러가는 것임니다. 그러나 불교윤리를 설명하랴맨 불가불 먼저 보통윤리(곳 東西洋윤리)와 비교부터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슴으로 지금에 잠간 두어마듸로 간단하게 불교윤리와 보통윤리의 통국(通局)과 경중여하(輕重如何)를 비교하야 말슴하겠슴니다.

서양윤리는 개인적의 입장에서 발달이 된 것이고 동양윤리 즉 유교논리는 가족적의 입장에서 조직이되엇지마는 불교윤리는 사회적 세계적 우주적 입장에서 된 것임니다. 서양윤리는 우리 습관상에 대단(大端)이 점염(點染)되지 아니하엿슴으로 아직 여게서는 설명을 약(略)하기로 하고 오인(吾人)의 습관상에 만이 저저잇는 동양윤리를 말슴하건대 군의신충, 부자자효, 형우제공, 부화부순(君義臣忠, 父慈子孝, 兄友弟恭, 夫和婦順)등등이 가족제도로 되어서 국가도 한 대가족으로 볼 뿐아니라 오륜(五倫)을 혹은 오상(五常) 곳 윤상(倫常)이라 하야 일용(日用)에 상행(常行)하는 평상범상(平常凡常)한 관념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기식 갈음 곤면 한구 서갈(飢食 渴飮 困眠 寒裘 暑葛) 등 행사와 가치 조곰도 특수한 관념을 가지지 안케하여서 평범하게 설명할 때에는 대단히 용이하게 가르치고 용이하게 행할 것 갓지마는 기실(其實)은 엇더한 중심골자와 엇더한 구경목적(究竟目的)이 엄슴으로 도리어 넘어 굉범한데로 떠러지고 말어서 결국 고금인류(古今人類)를 따지어 본다면 충신효자 열부신우(忠臣孝子 烈婦信友)보다 불충불효(不忠不孝)하고 무정조 무신의(無貞操 無信義)한사람이 더 만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리의 중심골자를 '은(恩)'으로 하야 심지관경(心地觀經) 가튼데는 국왕은(國王恩), 부모은(父母恩), 중생은(衆生恩-社會恩), 삼보은(三寶恩)의 사종(四種)으로 설하엿고 유가론(瑜伽論)에는 모부 처자 노비 붕우 형제 친속 제신(母父 妻子 奴婢 朋友 兄弟 親屬 帝臣)의 오종(五種)으로 설하엿고 그외에도 6종은설(六種恩說)도 잇고 7종은설(七種恩說)도 잇습니다마는 대개는 4은(四恩) 오은(五恩)에 넘지안코 그 구경목적은 성불도생(成佛度生)에 두어 불교의 전생명(全生命)이라 할 오계(五戒) 십계(十戒)등이 전부윤리의 조직인데 범망경(梵網經)에서는 '계명위효(戒名爲孝)'라하고 열반경(涅槃經)에는 '중생어아 유은자 약무중생 불능성아보현행고(衆生於我 有恩者 若無衆生 不能成我普賢行故)'라하고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에는 '여래위효 양부모 지은보은 고 금득속성아뇩다라삼막삼보리(如來爲孝 養父母 知恩報恩故阿耨 今得速成 多羅三藐三菩提)'라 하고 종밀선사(宗密禪師)도 '대효석가 존누겁보친은 적인성정각(大孝釋迦 尊累劫報親恩 積因成正覺)'이라 한 등등 이모든 경전에 한량업시 만습니다.

얼핏 생각한다면 '은(恩)'이라는 골자와 '성불'이라는 목적에 의하야 윤리를 말하는 것은 마치 무슨 타산적(打算的)인 듯 하지마는 일례를 든다면 동양윤리에 잇서 말위(末位)에 잇는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할지라도 그저 평평범범(平平凡凡)하게 '붕우(朋友)에는 신(信)이 잇서야 한다'고 교시하는 것 보담 붕우 사이에는 책선보인(責善輔仁)하는 은(恩)이 잇다. 그럼으로 붕우의 은(恩)을 갑기 위하야 신(信)이 잇서야 하고 붕우간에 신이 잇스면 그 신을 말미암아 모든 신심이 견고하여서 필경성불(必竟成佛)하는 이라 하야 보은원념(報恩怨念)으로 신을 직히고 수도하는 정진으로 신에 불퇴하게 되는 것임니다.

요지는 이에 그치고 이론과 실천으로 말할지라도 서양철학자들 윤리학은 대개가 이론에 치우지고 실제에 소홀한 듯 하며 동양의 윤리 곳 공맹(孔孟)의 도덕설 가튼 것은 실제에는 적절하다 할지라도 이론에는 결핍한 관(觀)이 잇지마는 불교의 윤리관으로 말하면 이론이라도 이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실제에 적절합니다.

이론문(理論門)의 명목만을 간단히 말할지라도 불교에서는 윤리, 도리, 학술등등 모든 방면을 통하야 선(善)과 악(惡) 두가지로 분(分)합니다. 칠불게(七佛偈)에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이란 것이 불교의 유일한 법문임으로써 선악으로 일체처(一切處)에 표준을 삼으며 선악을 혹은 사정(邪正), 혹은 염정(染淨), 혹은 흑백(黑白), 혹은 복(福)과 비복(非福), 혹은 도(道)와 비도(非道), 혹은 묘행(妙行)과 비묘행, 혹은 유루(有漏)와 무루(無漏)등으로 명명하고, (-중간 생략-)

이론문으로는 이러하지마는 실천문으로 두가지 행법(行法)이 잇스니 하나는 이상적(理想的) 실천이고 또하나는 사실적(事實的) 실천이라 이상적 실천에는 좌선 관념(坐禪 觀念)등의 성도문 자력교(聖道門 自力敎)와 신심안심(信心安心)등 정토문 타력교(淨土門 他力敎)가 잇스니 지의선사는 이것을 이선(理善)이라 하고 이 이선만으로는 부족함으로써 예의언어(禮儀言語)에 의한 사실적 실천이 필요하니 이것도 둘에 분(分)하야 하나는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대한 행위요, 또하나는 일반인류는 동물에 대한 행위니 지의선사는 이것을 사선(事善)이라 하얏는데 앗가도 말한 바 이지마는 동양윤리 곳 유교윤리는 그 실천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 혹은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사이의 친의별서신(親義別序信)의 오륜의 명목을 세웠지마는 불교 윤리의 실천요목은 5계, 8계, 10중계, 48경계, 250계 등으로 책려(策勵)하엿스니 곳 이른바 3천위의(威儀)와 8만세행(細行)의 전부가 이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실천의 전제는 지은(知恩)이오 실천의 정로(正路)는 보은(報恩)이니 군주나 부모나 삼보나 중생이나 사장(師長)이 나에 대하야 지은 보은을 말슴한 것은 하도 만흐닛가 짤분 시간에서 인증할 엄두도 내지도 못합니다. (-중간 생략-)

이러한 문구가 불전에는 재재처처(在在處處)에 산견(散見)하엿습니다. 이런 문구를 독(讀)하면 보은이 도덕실행에 원인됨이 명저(明著)하게 될 것입니다. 보은의 사상이 잇는 자는 도덕을 실행하는 것이오 보은의 관념이 업는 도덕을 실행 못하는 것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무엇이냐가 모다 결국에는 감사적 보은사상(感謝的 報恩思想)을 고동(鼓動)하면 자연(自然)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명문이양(名聞利養)을 구하는 위도덕(僞道德)이나 가윤리(假倫理)는 도리어 업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슴하는 동시에 불교는 무엇이던지 실천주의이라는 것을 겸하야 말슴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동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3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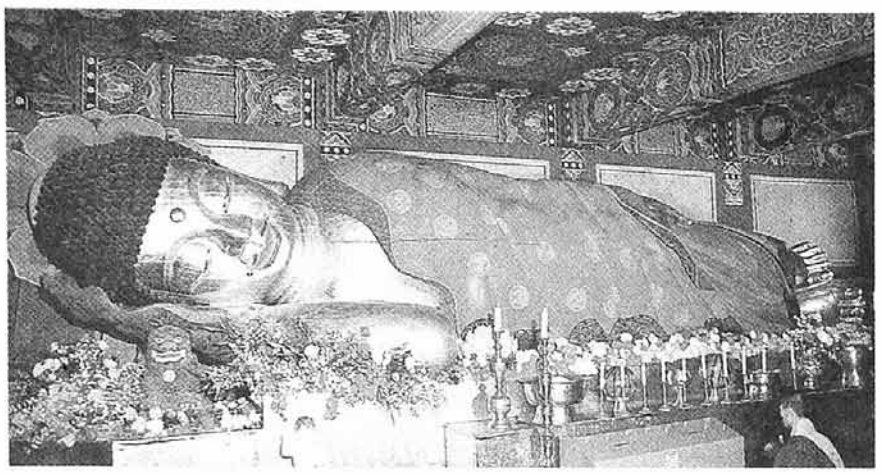


<파워침 종합셋트> 300,000원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땡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파워-침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 6944(대)



◇열반중 와우정사의 본존불로 모신 열반상. 길이 12m, 높이 3m에 이른다.



◇태국 미안마 인도 등에서 보내온 불상. 현재 2천여구가 있으며, 1만불을 채우면 만불전에 모셔진다. 사찰측의 안내를 받아 참배할 수 있다.

지구촌 부처님 모셔 연화정토 발원

열반상·고행상·미륵보살상등 '명품 수두룩'
노천법당 5존좌불상등 현재 2천여구 봉안

경기도 용인 시내를 벗어나 원삼면으로 가다보면 사람져수지 못미처는 지점에 꼽든재라는 자못 험겨운 고갯길이 나온다. 이 고개를 품고 있는 산이 연화산이다. 이곳의 어느 봉우리에서라도 올라서서 바라보면 사방으로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둥글게 이어져 있다. 마치 꽃송이를 연상케 해준다. 그런데 하필이면 연화산(蓮華山)이라 했을까. 선조들의 가슴에는 너나없이 불심이 담겼던 것일까. 이 고개길 초입에서 왼쪽으로 꺾어들면 바로 와우정사(법사 김해근)가 눈에 들어온다.

사찰 초입에 조성된 우람한 불두상이 예사로운 사찰이 아님을 예감케 해준다. 석가모니 불두상은 지긋이 눈을 감고 계시며, 마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지를 몸으로 삼고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어른키의 3배에 가까운 크기와 섬세한 조성솜씨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이 불두상이 일주문과 사천왕문의 역할을 한다.



◇사찰 초입에 조성된 어른키 3배의 불두상

국내보다 동남아서 유명

마침 초가을의 햇살아래 4만여평에 이르는 와우정사 경내 전체가 환하게 빛난다. 와우정사는 국내보다 외국 특히 동남아에 더 잘 알려진 사찰이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보내온 6백여구를 비롯 인도 티벳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에서 보내온 2천여구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높이 20cm에서 크게는 3자에 이르는 부처님이 즐비하다. 재질도 금동 청동 유리 옥 나무 돌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장승과 같은 투박한 모양의 것부터 미얀마의 부처님처럼 온갖 보화로 장식된 정교한 조각 솜씨의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습의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가히 찬탄과 환희의 세계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행상의 부처님. 파키스탄에서 보내온 것으로, 나오로박물관에 모셔진 고행상을 원본으로 조각한 것이다. 덥수룩한 수염과 율쭉한 배, 고행으로 드러난 갈비뼈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첫눈에는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자아낸다. 수행의 고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어 절로 고개가 꺾여진다.

각국의 부처님은 현재 요사채와 종무소로 쓰이는 건물에 임시로 모셔져 있다. 사찰측에 참배를 요청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각국의 부처님을 모시게 된 연유는 2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2년 10월 한국에서 세계불교고승대회가 열렸다. 청담 경산스님을 비롯해 베트남의 틱탈차우 태국의 담마난다스님 등 각국의 고승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때 와우정사를 창건한 김해근법사는 이 고승대회의 홍보 극장을 맡았다. 이 대회가 계기가 되어 40여 나라들이 참여한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가 탄생되었다. 이때 태국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해 한국에 세계만불전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2천불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16국 가운데 유일한 불교국가. 전쟁을 겪은 한국에 부처님을 모셔 평화를 기원하자는 뜻이었다.

24년전 태국정부 제안

이곳에는 각국의 불상말고도 노천법당의 5존좌불상, 통일대종,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열반전의 열반상, 대각전의 고행상 순례로 이어진다.

5존불상은 노천법당에 모셔져 있다. 인도에서 들여온 황동 8만근으로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5존불상은 일정기간 비바람속에서 녹이 다 빠지면 대웅전을 건립해 모실 계획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불로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좌상으로 모셔져 있다. 2m에 이르는 높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거니와 원만한 상호 또한 뛰어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위원인 미국의 코넬박사가 "현대에 가장 잘 조성된 부처님은 와우정사 5존불상이다"고 했던 찬사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대종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88서울 올림픽 때 개회를 알리며 울렸던 종이다. 부드럽고 긴 여운이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는다. 줄곧 취재안내를 맡은 김해근 법사는 금을 다량 함유한 것이 부드러운 음향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열반전으로 오르는 길목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좌대를 포함한 높이가 6m에 이른다. 국보 제78호 미륵반가사유상의 모습이다. 앞으로 올린 머리의 무게 때문에 지하로 땅을 파서 거꾸로 조성하고, 다시 세웠다. 10여년의 세월이 걸려 78년 조성에 성공했다. 좌대에서 올라온 연꽃봉오리에 문수동자가 앉아 미륵보살에게 합장하는 모습이 순례객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번 오래도록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은 열반전. 길이 12m, 높이 3m, 와불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열반상이 모셔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통향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수 사이에 누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쟁쟁하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타인을 등불로 삼는 일 없고, 또 법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등불로 삼는 일 없이 수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열반상은 와우정사의 본존불이다. 와우정사는 대한불교 열반종의 총본산.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총무원장 김해근법사는 "열반종은 서기 623년 고구려 보덕지법화상께서 창종한 한국 최초의 종단으로서 해암해곡 삼장법사께서 중흥하시어 그 전통과 법맥을 1400년간이나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총본산인 와우정사에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들여온 석가모니 진불신사리를 봉안하고 있으며, 상좌부의 팔리어 대장경과 산스크리크어 장경 등도 봉안되어 있어 승려와 함께 불교의 삼보가 다 봉안되어 있는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와우정사는 여느 사찰에서와는 다른, 언뜻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이게 하는 당우들과 부처님들이 계신다. 열반전의 열반에 든 부처님이 그랬고, 대각전이 그렇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열반전 오른쪽 능선에 동굴로 조성되는 대각전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유례가 없는 당우이거니와 부처님 고행상이 모셔져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30평 남짓한 동굴입구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각전의 고행상은 파키스탄 나오로국립박물관의 고행상을 원본으로 삼아 백옥으로 조성했다. 대각전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여느 사찰의 선원처럼 엄격한 자기절제를 생명보다 무겁게 여기는 수행처소이기 때문이다.

각국에서 보내온 불상은 연화산의 정상 아래 5백여평의 부지에 조성된다. 지금은 진입로와 터만 닦아놨을 뿐이다. 김해근법사는 "우리 대에는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줄 불사를 시작했을 뿐 완성은 언제일지 몰라도 후대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다. 연화산의 연꽃봉오리들이 멀리 붉고 푸른 석양빛에 그 윤곽을 더욱 또렷히 드러내고 있다. 땅거미가 몰려오고 와우정사 불빛이 밝기를 더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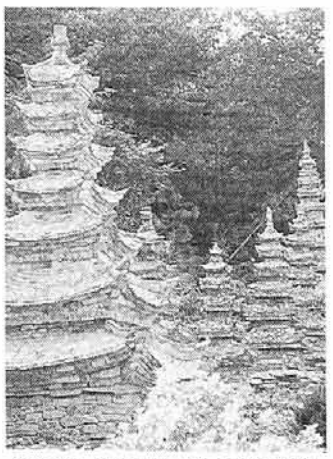


◇노천법당에 모셔진 5존좌불상. 인도에서 들여온 황동 8만근으로 10년동안 조성.

용인=정성운 기자

남북평화 기원 '통일의 탑'

인도·백두산등 세계 곳곳 돌로
광운스님 8년째 홀로 조성



◇하찮은 돌멩이가 모여 통일의 염원을 품은 '통일의 탑'으로 솟아올랐다.

와우정사의 또다른 명물은 '통일의 탑'. 전국 사찰의 큰스님들과 신도들이 가져온 돌멩이로 조성된 탑이다. 주먹만한 것에서부터 어른 머리 크기의 돌멩이 수십만개가 탑재로 쓰였다.

부처님 4대성지와 불상기증국의 돌멩이는 물론 백두산에서 가져온 돌과 무너진 베를린장벽의 한 귀퉁이도 들어 있다. 통일기원의 뜻을 담는다는 소식을 듣고 각계에서 보내온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고상돈씨도 그곳의 돌멩이를 기증했다. 3~9층 탑 7기 가운데 마지막 7층탑이 조성되고 있다.

김해근법사는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마침내 우뚝 솟은 탑이 서듯이 통일도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80년부터 돌을 모으기 시작해 최초의 탑을 쌓기 시작한 때는 88년. 광운스님(68세)이 8년째 탑쌓기를 하고 있다. 1년에 1개씩 쌓은 셈. 설계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기단부터 층수에 맞게 네모낳게 돌멩이를 쌓아 기초를 만든다. 그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 층의 지붕을 이어간다. 시멘트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 전통한옥의 결구기법처럼 돌멩이를 일일이 끼워맞춘다. 그래야 땅의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 탑의 1층을 조성하고 있지만 광운스님은 "이 탑을 모두 쌓기 전에는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생에는 명산고찰을 찾아다니며 큰 바위로 탑을 쌓고 싶다는 발원을 매일 부처님께 기원하지요.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탑쌓는 것 밖에 없어요."

하찮은 돌멩이 하나가 생명으로 변화해가는 것처럼 통일도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기적을 "전통 쑥 좌욕기 탄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 · 대하, 변비, 치질 원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혈증 및 현혁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 · 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 · 가슴 군살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변비, 관뇨, 소변근란, 배뇨통 등



★ 엉덩 피부가 키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엉덩을 좌대위에 놓고 벌점하십시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칼,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아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좌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적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며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이성대가 오래되면 온갖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경,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철색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이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신담력이 상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청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갖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 · 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기성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1 좌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분청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불편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체(陶磁體)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뻗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3 약쑥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디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4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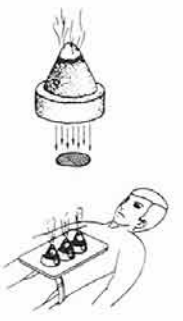
5 내열탕기에 약쑥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방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6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전장요법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 · 군 · 구지회 미개설지역 · 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야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서울(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83 노원:942-6430 마포 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평:(032)516-9846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66 서구:534-4211 동구:253-6446
경남지역: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0)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전주:(0652):75-6733
경북지역: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일타스님 一家 출가기

친·외가 41명 출가 '수행의 귀감'

외증조모 7일장내내 '방광'…가족불심 태동

큰외삼촌 첫 출가…외조부 自火葬 '이적'

"해인사 가면 해인차사"…머슴가족 6명도 출가

누나 응민스님 '정진제일수좌'로 유명

동곡 일타(東谷 日陀)스님.

우리나라 불자들중 '일타스님(67·조계종 원로의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지낸 대 율사요, 자유자재한 언설변재로 듣는 이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를 심어주는 대 법사며, 젊은 시절 태백산 깊은 골에 들어 6년 동안의 수선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룬 대 선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은 스님을 '자비보살'이라 칭한다. 가슴에는 태양을,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를 띠우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십여 종이 넘는 주옥같은 저술로써 뭇 불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타고난 문장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님 친가·외가 전가족 41명이 모두 출가해 부처님 될 종자를 심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는 부처님 열반 이후 한 집안의 출가 기록으로는 단연 최고이다. 그야말로 '기네스 북'에 오를만한 사실이다.

일타 스님 가족·친척은 어떻게 이토록 지중한 불연(佛緣)을 맺을 수 있었던가. 그 연원은 스님의 외증조할머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글에서의 모든 가족·친척 호칭은 일타스님을 기준으로 삼아 붙이기로 한다.)

외증조모 죽음과 방광

스님의 외증조할머니인 안성 이씨 평등월 보살은 충청도 공주 땅에 자리잡은 광산 김씨 영인(永仁)에게로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다. 평등월 보살은 늙으막에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만수(萬洙)·완수(完洙)·은수(恩洙) 세 아들의 효성은 지극하였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온.정성을 기울였다.

어느 날, 비구니스님 한분이 탁발을 하러 왔다. 비구니스님은 집안에서 가장 큰 바가지에 쌀을 가득 담아 바랑속에 부어주는 할머니를 향해 불쑥 말을 걸었다.

"할머니, 요즘 세상사는 재미가 좋으신가 보지요?"

"아, 좋다마다요…."

할머니는 신이 나서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자 자랑을 일사천리로 늘어 놓았다. 스님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할머니, 그렇게 세상 일에 애착을 많이 가지면 죽어서 업(業)이 됩니다."

"업?"

충청도 사람들은 '업이 된다'고 하면 구렁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이라는 말에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낀 할머니는 스님께 사정을 했다. '제발 업(구렁이)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할머니의 간청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정녕 업이 되기 싫거든 오늘부터 바깥 출입을 금하고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시오."

말이 끝나자 비구니스님은 바랑과 삿갓을 방에 놓아 둔 채 홀연히 사라졌다. 할머니는 방의 가장 좋은 위치에 스님의 삿갓과 바랑을 걸어 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몇 차례 절을 올린 다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뒤 할머니는 20년



◇일타스님

가까운 세월을 하루같이 염불기도 하다가 88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7일장(七日葬)을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방광(放光)을 하는 것이었다. 낮에는 햇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밤만 되면 그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통을 들고 달려오기를 매일같이 하였다. 그리고 문상객으로 붐비는 집안 역시 불을 켜지 않아도 대낮같이 밝았다.

이어지는 외가의 출가

외증조할머니의 장례를 마친 일타스님의 외가 식구들은 그때까지 생각하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외증조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저 노인장이 삶의 끝에서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 염불을 하는 쯤 알았는데, 눈앞에서 이변이 일어나자 절실한 신심으로 변한 것이다.

가장 먼저 출가한 이는 일타스님의 큰외삼촌인 김학남(金學男·1902~1955)씨다. 4형제중 맏이였던 큰외삼촌은 부인과 하나뿐인 아들을 남겨둔 채 천진도인 혜월(慧月) 선사의 제자로 출가하여 법안(法眼)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뒤 법안스님은 오대산 금강산 천성산 지리산 등지의 이름있는 선방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참선정진하였다.

두번째로 출가한 사람은 일타스님의 외할아버지 김만수(金萬洙·1878~1947)씨로서, 어머니의 방광과 아들의 출가이후 수년동안 거사의 신분으로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 송광사 삼일암 등의 이름있는 선방을 전전하다가, 셋째 아들인 용학(容學)이 장가를 들자 불러 물었다.

"애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갔으니 어른 아니냐? 내가 없어도 머슴들 데리고 농사지을 수 있겠느냐?"

"예."

젊은 혈기에 아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 길로 출가하여 '추금(秋琴)'이라는 법명으로 용맹정진하였다.

세번째 출가자는 일타스님의 막내 외삼촌인 김용명(金容明)씨였다. 막내 외삼촌은 일본 명치대학(明治大學)을 다닌 수재로서 온 집안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끊어진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 3일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그때 병실에서 〈불교성전〉을 보다가 홍법대사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시를 읽고 발심하였다. 193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배를 타고 귀국한 용명은 고향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양산 통도사로 가서 윤고경(尹古鏡) 대강백을 은사로 모시게 되었고 '진우(震宇)'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때 힘이 빠진 것은 셋째 외삼촌 용학이었다. 큰형은 스님이요, 둘째형은 방랑자, 일년내내 백마지기가 넘는 넓은 땅을 농사지어 그 비싼 학비를 보내었건만, 믿었던 동생(용명)마저 스님이 되니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며칠 동안 바람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찾아간 곳은 큰형님 법안스님이 계신 해인사 백련암이었다.

법안스님은 '혼자서 대가족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드니 하산하여 집안을 맡아달라'는 동생의 말을 한쪽 귀로 흘리고 오히려 출가를 권유하였다.

"무엇하러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가? 스님되어 절에서 살아보게. 이 절이 바로 극락일세."

거듭되는 권유와 한달 남짓 절에 머물면서 느낀 매력때문에 셋째 외삼촌 용학도 마침내 자운(慈雲)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보경(寶瓊)'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어지는 아들들의 출가로 집안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게 되자, 크게 상심한 외할머니 강씨(姜氏)가 직접 백련암으로 향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오히려 두 아들의 권유에 못이겨 해인사에 눌러앉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수년동안 만주로 러시아로 떠돌아 다니다가 막 귀국한 일타스님의 둘째 외삼촌인 김용남(金容男·법명 靈泉)씨였다.

"해인사만 가면 함흥차사가 아닌 '해인차사'가 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가서 백련암을 불태워 버리고라도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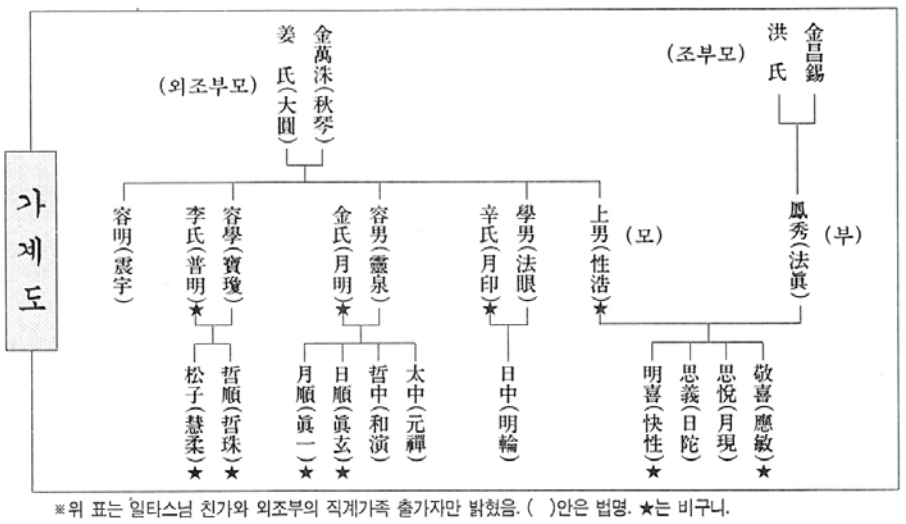
남은 가족들에게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선 천하한량 둘째 외삼촌이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또 설득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가족들에게 선언하였다.

"요즘같은 험난한 세상에는 중이 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옛사람들이 무릉도원 찾아갔듯이 우리 모두 해인사로 떠납시다."

1940년, 마침내 외가의 모든 식구들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해인사로 향하였다. 그때 법안스님의 장인·장모와 아들 둘도 함께 출가하였고, 집안을 돌보던 머슴들 가족 6명도 따라서 출가함으로써 일타스님의 외가쪽 35명은 모두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일타스님 통도사行

일타스님의 친가 식구는 모두 6명이었다. 아버지 연안 김씨 봉수(鳳秀)와 추금스님의 맏딸인 어머니 김상남(金上男) 사이에서 경희(敬喜)·사열(思悅)·사의(思義)·명희(明喜)가 태어난 것이다.



※위 표는 일타스님 친가와 외조부의 직계가족 출가자만 밝혔음. ( )안은 법명. ★는 비구니.

스님의 친가에서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은 맏딸인 경희였다. 1940년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는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직 공부만 하고 싶어 외할아버지인 추금스님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다.

"그야, 스님이 되면 되지."

이 한마디에 아무도 모르게 출가하여 금강산 법기암에서 대원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응민(應敏)'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맏딸 다음으로 출가한 사람은 일타스님의 형인 사열, 곧 월현(月現)스님이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외할아버지의 한 말씀에 팔만대장경을 배운다며 해인사로 출가하였다.

맏딸과 맏아들이 출가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가 해인사로 들어가자 일타스님의 어머니도 출가를 결심하였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사의(일타스님)가 걱정이었다. 1941년,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마련한 다음 막내딸 명희(쾌성(快性)스님)를 데리고 문경 윤필암으로 들어갔다.

1942년 일타스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김봉수)는 수덕사 만공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고, 사의(일타스님) 역시 외할아버지 추금스님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로 향했다. 마침내 일타스님의 친가·외가 41명의 대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로 떠난 것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 경이로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중노릇'을 아주 열심히 한 참된 수행자였다는 점이다. 외할아버지인 추금스님이 비록 늦게 출가하였지만 젊은 수좌들의 귀감이 될만큼 열심히 정진하여 견성하였고, 말년에는 전라도 태고사 조실로 추대되어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스스로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인 다음 올라가서 자화장을 하는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

큰외삼촌인 법안스님 또한 오직 발우 하나, 누더기 한 벌로 살면서 10여년 동안 용맹정진하였고, 35세가 넘자 해인사 백련암으로 옮겨 9년 동안의 지장기도를 통해 오도를 하신 분으로, 1955년 서울 삼각산 도선사 석불 뒤의 바위에 앉아 입적하였다. 둘째 외삼촌 영천스님은 속리산 경업대 토굴에서 7일동안 선정삼매에 들어 걸림없는 경지를 이루었고, 셋째 외삼촌 보경스님은 세속에서도 살림을 잘 살았지만 출가 후에도 역시 살림을 잘 살아서 부산 감로사 창건 및 사찰 중건 등 많은 불사를 행하였고, 기도정진과 함께 선방살림을 말아 수좌들을 돌보는 소임을 헌신적으로 행하였다. 막내 외삼촌 진우스님은 전국의 선방을 전전하면서 도를 닦아 운봉(雲峰)·경봉(鏡峰)·전강(田岡)선사 등 여러 고승들로부터 정진력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지은 오도송을 전국의 선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타스님의 아버지 자응당(慈應堂) 법진스님은 1986년 입적하는 날까지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속에서 만져보아도 스님'이라는 말을 들을만큼 묵묵하면서도 깊은 자비심을 품었던 분이다. 누나 응민스님 역시 '중노릇 잘하여 만공선사로부터 '정진제일 수좌'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생동안 '비구니스님의 귀감'으로 살다가 1984년 12월 15일에 7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앉은 채 입적했다.

이제 이 41명 중 우리들 곁에 남아있는 분은 일타스님과 여동생인 쾌성스님, 외사촌동생인 혜유스님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41명 스님들의 행적속에서 '정녕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들 모두의 발심을 위해 영원히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로 남을 것이다.

글·김현준

·도서출판 효림 대표
·불교신행연구원장

맑고 향기로운 삶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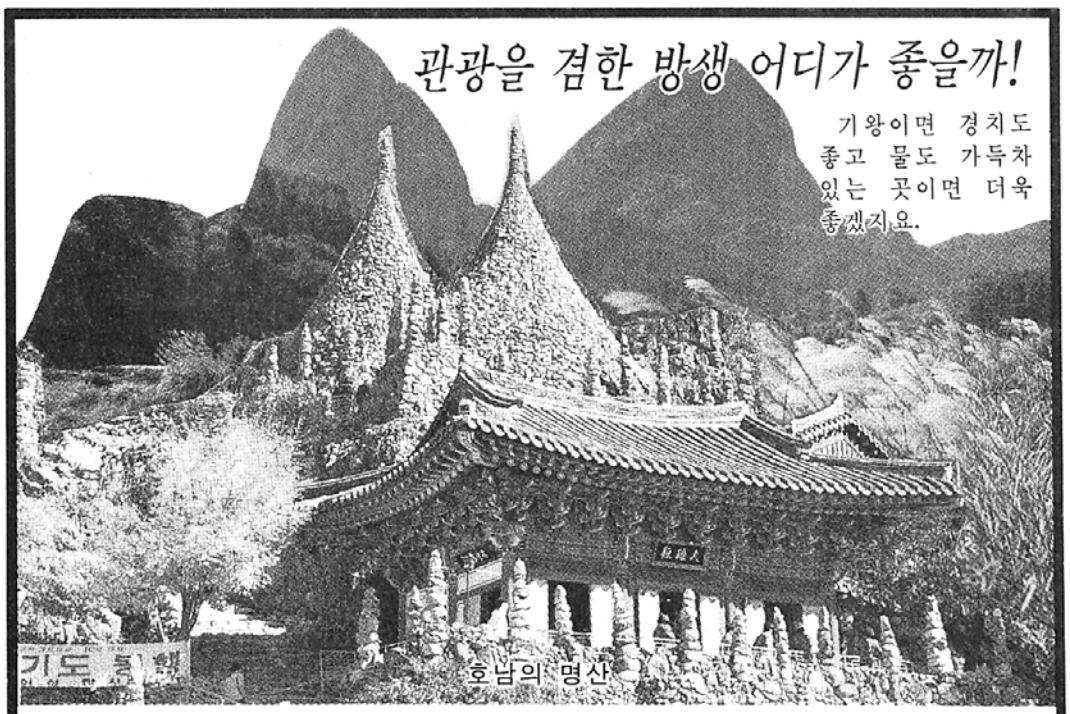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 해드립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 (바라밀 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주 최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보급처 : 부산지부 (051) 633-6412~3 진주지부 (0591) 758-6611 서울 (02) 597-20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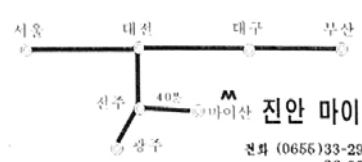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200불자 동참 … "탑돌이하듯 진지"

다섯살 꼬마도 백발노인도 '한마음 발길'
목·손 훼손 불상 대할땐 안타까운 탄식

겨레의 성지인 경주 남산으로 가족과 함께 향하는 날은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개천절. 한 두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나 성지순례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염원 덕인지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싸늘한 날씨가 산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를 연출했다.

오전10시. 집결장소인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출발한 독자를 비롯 경향 각지로 부터 2백여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일행중엔 엄마손을 잡고온 다섯살박이 꼬마도 있었고 몸빼바지에 다리를 저는 아저씨와 백발이 근사한 할아버지도 눈에 띄었다. 한 중년부부는 김천에서 직접 차를 몰고와 성지순례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산자체가 큰 법당

강당에서 경주남산을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상영됐다. 진행을 맡은 사람은 '경주남산사랑모임'의 김구석씨(경주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근무). 20년간 안방 드나들듯 남산을 오르내린 토박이의 설명에는 책에 나와 있지않은 내용도 많았다. "남산에 있는 모든 마애불상 탑 절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최소의 인공을 가해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모습과 그 바위가 본래 하나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행도중 간간이 탄성이 배여 나왔다. 1시간30분에 걸친 슬라이드상영이 끝난 후 일행은 삼릉골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두팀으로나뉘어 각각 삼릉골과 용장골에서 등반을 시작했다.

경주의 산치고 불상과 탑이 없는 산이 있을까마는 남산은 그중에 으뜸으로 꼽는다. 불국토를 염원했던 신라인들은 절을 짓고 불상을 모시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숫제 산전체를 법당으로 만들어버렸다. 남산은 곧 큰법당이요, 자신이 사는 집은 요사채가 되도록 했다. 그리하여 고개만 돌리면 언제라도 불보살의 자비로운 미소와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상 불법의 진리 가까이에 머물기를 희망했다.

탑돌이하는 이의 합장한 두손에는 어떤 원(願)이 숨쉬고 있을까? 남산 자체가 바로 하나의 거대한 탑이고 그곳을 오르는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탑돌이가 되는 산. 현대불교 창간 2주년을 맞아 경주남산성지순례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탑돌이를 하듯 산에 올랐다.



◇본지 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된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에는 2백여명이 참가, 불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해솔이네는 식구들끼리 만오기 아까워 사촌이모네 가족까지 함께 참가했다.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이 끊이지 않아 냉골이라고도 하는 삼릉골을 따라 오르다보니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의 석불좌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자비한 미소는 볼길이 없다. 머리부분이 잘려나간 채로 계곡에 파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징검다리로 쓰이다가 지금의 자리에 옮겨졌다는 설명이다. 산입구에서 단순한 산행쯤으로 생각하고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 무언가 의미가 실리기 시작했고 산을 오르며 만나는 바위나 수목들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리면 어디서든 둥그런 부처님의 미소를 만날 것 같고 자애로운 음성이 들릴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목없는 불상을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마애선각육존불상. 병풍처럼 펼쳐진 두개의 바위면에 선각된 모습은 마치 도화지에 그린 듯이 부드럽고 정교하여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동쪽면에 새겨진 석가삼존상은 결가부좌한채 설법하는 모습이며 좌우에 협시보살이 선채로 옹립하고 있다.

발길마다 부처님 미소

서쪽면에 새겨진 아미타삼존상은 무릎을 꿇은채로 꽃공양을 올리는 관음과 대세지 두 협시보살 가운데서 선채로 벽면을 걸어나오는 모습이다. 아미타여래부처님이 서 있고 보살들이 앉은 자세로 있는 특이한 모습을 내영아미타여래(來迎阿彌陀如來)라 하여 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마중나오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옛 신라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빌며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부처님은 여기로 와서 이승의 부처님인 석가모니부처님의 인수인계를 받아 고혼을 극락으로 데려 갔으리라….



◇훼손된 부처님 얼굴을 시멘트로 보수한 삼릉계곡 석불좌상 앞에서 참가자들이 안내를 맡은 김구석씨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의 불적을 복원하는 것은 불자들 스스로가 자비보살행을 펼치는 것입니다."

마애선각육존불상을 지나 한참 가다보니 또하나의 선각여래좌상이 나타났다. 몸체는 선각을 하고 얼굴은 돋을새김을 한 이 불상의 얼굴모습은 위엄이 전혀 없어 의구심마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남산부처의 얼굴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아낙네의 얼굴을 닮아 있다는 안내자의 설명에 비로소 수긍이 갔다. 선각여래좌상을 지나 계곡을 내려가다보니 얼굴 아래 부분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흉칙한 모습의 석불좌상이 나타났다. 남산불적훼손의 극치를 보는듯 했다. 시멘트로 무성의하게 보수한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금오봉 정상을 깎아 만든 미군 헬기장, 남산 기슭에 자리잡은 경주교도소, 무분별한 분묘 등은 남산을 훼손시키는 주범들이다.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1㎞정도 산을 오르니 남산에서 가장 높은곳에 자리잡은 상선암이 나타났다. 베낭을 풀고 약수를 한사발 들이키자니 머리가 희끗한 노인 3분이 연신 땀을 훔치며 올라왔다. 대구에서 이들을 모시고 왔다는 최미리씨는 "아버지와 친구분들인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상선암 윗쪽에는 높이 5.2m, 무릎폭 3.5m되는 남산불상중 가장 크고 조각이 우수한 마애석가여래대불좌상이 반갑게 맞아준다.

마애불을 뒤로하고 능선을 오르다 보니 상사암이라는 영험있는 바위가 나타났다. 높이 13m, 길이 25m쯤되는 이 바위는 옛날부터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정겨운 장소였다. 일행들은 저마다 한 번쯤은 가슴에 품어 보았던 사랑을 떠올리며 얼굴가득 웃음을 머금었다. 상사암에서 금오산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에서 두팀은 반갑게 조우했다. 찬불가를 흥얼거리며 걷는사람도 있었고 가족끼리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넓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탄해진 길을 쉬엄쉬엄 걷다보면 어느새 〈금오신화〉의 고향인 용장사가 자리했던 금오봉에 이른다.

40여개의 골짜기에 1백15곳의 절터, 87구의 불상 그리고 71기의 석탑이 있는 남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화재다. 흔히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할수 없다'는 말이나 '남산이야말로 경주에서 유일하게 신라스러움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말에 실감이 갔다. 남신(男神)이 변해서 된 바위산인 남산은 아담하지만(494m) 짙은 눈썹과 뚜렷한 윤곽을 지닌 미남자에 비유될 법했다.

무성의 시멘트보수 '눈살'

용장사터 마애여래좌상과 석불좌상에 대한 참배를 끝내고 하산을 시작했다.

"경주남산의 불적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불상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고 탑을 다시 세우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불자들 스스로가 사라진 불상의 손이되어 세상에 필요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불상의 사라진 얼굴을 대신해 세상을 굽어 살펴보는 자비로운 미소와 눈을 가지고 보살행을 한다면 진정한 남산복원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김구석씨가 일행들을 향해 던진 화두이다.

남산의 전설을 가슴 가득 담고 남산에서 느낀것 처럼 일상속에 살아있는 불법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돌아오는 길에 자꾸 남산을 보게되는 것은 왜일까?

경주=이윤호·천미희 기자

온가족 참여 해솔이네
12년만에 재등반…민족문화 체험
성당다니는 사촌이모네도 동참

경주남산 성지순례에 온가족이 함께 한 해솔이네(13세·용계초등학교 6년)는 엄마 장영순(39)씨가 해솔이를 가진지 4개월 되던때 처음 남산에 오른후 12년만에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식구가 하나 더 늘어 동생 다솔(9세)이도 함께 왔다.

"늘 한 번 더 오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남산순례의 첫 추억이 너무 좋아 벼르고 벼르다 오게 됐다는 아빠 배광호씨(40·대중금속공고 교사)는 이번에 원을 푼셈이라고 한다. 그동안 불국사와 감포는 자주 갔어도 남산은 늘 지나치기만 했다. 식구끼리만 오기 아까워 성당에 다니는 사촌이모네 가족도 불렀다.

"사전에 슬라이드를 보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탓인지 역사의 숨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듯 했어요." 남산의 유적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미와 조화미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해솔·다솔이에게는 귀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코와 목이 잘려나간 불상앞에서는 온가족이 마음 아파했다. 산행도중 발을 삐었으나 큰 고통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하는 엄마 장씨는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윤〉

15년째 남산 길잡이 김구석씨 남산안내 1순위 "언제든 불러주세요"



본지가 지난 6~7개월(82~87호) 6회에 걸쳐 집중연재한 '남산을 지키자'의 마지막 순서 '남산으로 떠나자'의 일환으로 실시한 창간2주년 기념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의 현장 안내를 맡은 김구석씨(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근무).

고등학교 1학년때 경주불교학생회의 일원으로 남산에 올랐을 때의 가슴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불상이 많은 것에도 놀랐지만, 제대로 있는 부처님보다 파괴된 부처님이 더 많았습니다. 웬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기억이 그를 남산사람으로 만들었다. 15년전부터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남산을 찾았으며, 슬라이드에 남산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남산의 모습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지난 87년에는 '경주남산 사진전'을 경주와 울산 부산 대구에서 열었다. 이때의 사진들은 윤경렬선생의 〈경주남산1.2〉(대원사)과 〈겨레의 땅 부처님 땅〉(불지사)에 제공됐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남산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큰지혜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모든 일의 1순위가 남산안내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0561)773-8077

경주=정성운 기자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字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독자눈에 비친 현대불교

현대불교 창간2돌

내용 알차고 기획 참신 '기다려지는 신문'

'하나 더 있어서 좋은 부처님 기관지'가 되고자 노력해 온 본지가 10월 15일로 창간 2주년을 맞았다. 이시대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행·포교의 향도적인 역할을 자임한 '현대불교' 2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또 앞으로 '현대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독자의 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참된 삶·지혜 일깨우는 신행 동반자
왜곡된 불교현실 예리한 비판 기대

과감하게 불교왜곡 대처

▲도법스님(선우도량 공동대표)=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교교리를 선양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일반신앙인의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현대불교'의 2년은 긍정적이라 본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 비관적인 면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불교사상을 왜곡하는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하고 예리한 비판을 가하는 노력이 지난 2년간의 시간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사상과 정신에 입각해 오늘의 한국불교를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확고한 의지로 '현대불교'가 불자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오늘을 고민하고 21세기 미래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는 진정한 불교언론의 역할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불교현대화' 기획물 기대

▲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장)=기사내용이나 편집 등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특히 '산문밖의 선'이나 1면의 '이렇게 들었다' 등은 매우 훌륭한 기획이라 생각되며 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먼저 눈이 가는 난(欄)이다.

그러나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에 진정으로 걸맞는 신문이 되고 있는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애초 '현대불교'가 의도했던 현대인에게 불교를 밀착시킬 수 있는 구성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현대의 불교를 이끄는 불교인들 탐방과 고승들의 훌륭한 업적 중 감동을 줄 수 있는 일화 연재, 과거 불교사와 현대불교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물 등을 실어 현대인들에게 걸맞는 이미지의 신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는 현대과학문명에 접근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불교가 현대종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현대불교신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식 도량을 탐방해 불교도 현대화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방소식·행사 더 신도록

▲신근식(삼보법회 회장)=우선 한글전용으로 돼 있어 읽기에 편하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쉽고 친근감이 들어 우리 법회 학생들에게 구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 또한 현대감각에 맞게 참신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더러 획일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빠짐없이 실리는 스님들의 법문과 어려운 경전을 풀이해준 해설 등은 불자나 일반인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회안내란을 지역적으로 더욱 폭넓게 실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국의 사찰 법회안내를 통해, 절이란 가끔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가는 곳임을 인식시켜 주었으면 한다. 또 지방소식을 늘려 전국의 모든 독자들이 자기고장 소식을 흥겹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불교계에서도 일간지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이 바로 그 몫을 담당해 나가기를 바란다. 더불어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이땅의 윤리도덕을 바로세우는 당간 지주가 되길 기대한다.

종단행정 냉철한 비판을

▲박두원 (중앙일보 편집부장)=지난 2년동안 매주 즐거운 마음으로 현대불교신문을 읽어왔다.

현대불교신문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싱싱한 신행포교기사로 어느덧 정겨운 포교지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주위의 의견이다.

처음부터 한글가로쓰기 편집을 시작해온 현대불교신문은 참신하고 안정된 편집으로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한층 즐겁게 만들어 왔다. 앞으로 기사내용과 제목이 보다 쉬워졌으면 하고 지면에서 고정코너로 매주 소개되는 교수필진들의 글도 초발심자들이 조금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쉬운 글이 많이 실렸으면 한다.

이같은 포교지의 성격을 보다 쉽고 밝은 경향으로 이끌어 감과 동시에 종단의 행정부분에 대한 애정이 담긴 냉철한 비판기사도 많이 다루어서 불교정론지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어가길 당부하고 싶다.

재가자들의 신행 길잡이

▲김경자(창간독자·서울 연희동)=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 신행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해봤지만, 역시 내 근기에는 쉽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대어로 풀이한 언론 출판물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불교계의 월간지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불교'가 창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창간호부터 읽고있다. 현대불교신문은 특히 재가불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신행지침이 된다. 신행의 교과서라고나 할까. 현대불교신문이 배달되는 화요일 당일에는 1면부터 16면까지 하나하나 마치 시험공부하는 학생처럼 샅샅이 읽는다.

가장 열심히 읽는 기획은 역시 큰스님의 지상법석. 마치 큰스님께서 나를 위해 마주앉으셔서 법문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이끌어 주는 선지식이 되기도 하는 현대불교신문을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하고 있다.

불교정보화 선도에 박수

▲유지원(대불련 지도위원장)=차분한 지면구성과 유익한 기사가 많아 신심이 절로 나게 하는 신문이라 평가한다. 당초 창간 취지대로의 신행중심 지면구성은 불교를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부다피아'라는 정보통신분야에의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또 신행위주의 신문을 만들겠다는 일관된 목적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비판적 사안에는 피해가는 경향도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불교계의 잘못된 부분 역시 모든 불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불교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신문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신문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방면에 걸친 교계정보가 없다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기획도 좋지만 불교계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자들은 궁금해한다. 물론 미래불교의 대들보가 될 대학생과 청년회에 대해 꾸준히 지면을 할애해 주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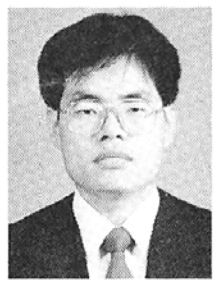


최다 투고 독자

이 한 득 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

"기존의 불교언론보다 '현대불교'는 내용·기획·편집 면에서 돋보입니다. 특히 현대불교가 벌이고 있는 반가사유상 보급운동의 경우, 우리 것을 찾자는 취지에서 불자들 외에도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현대불교'가 불교계를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현대불교' 독자란에 가장 많이 투고한 이한득씨(대구불교산악회 사무국장·32). 송광사 대구분원인 삼덕동 관음사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불교' 구독을 시작했다.

이씨는 내면의 자기 성찰과 불교계의 큰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투고에 열정을 쏟아 △사찰 입구부터는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서 들어가야 △사찰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슬리퍼는 결례 △불자들부터 행락질서의 모범을 보이는 녹색휴가를 보내자 등 무심히 보아넘기기 쉬운 일들을 하나하나 독자투고로써 지적해 왔다. 물론 전부를 지면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불교계의 이슈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한다. 이같은 불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은 홀로 계신 모친과 출가한 동생(묵연스님)을 둔 노총각의 진지한 세상살이에 기인하는 듯하다.

"현대불교가 지방의 불교뉴스와 행사에도 지면할애를 많이했으면 합니다. 서울 위주보다는 '전국 1천만 불자의 현대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발자취따라
地藏道場 九華山
보타낙가산(海中관음도량)
황산(천하제일 구름바다)
상해(임시정부) 양자강 南쪽…
96.11. 4.(월) 출발… 8일
현재접수중 (02)723-9811 (주최) 大佛

현대불교 구독신청:737-8881

생활속의 불교 ⑨③

고향 가는 먼 길, 발걸음은 뜻 깊다

태어나지 않는 것만이 죽음을 면한다. 태어난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라도 반드시 죽는다. 머무는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을지라도 영생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고로 사람으로 치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을 운명을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아놓은 셈이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의 차이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하는가. 시작은 언제나 축복이고 끝은 왜 애도의 대상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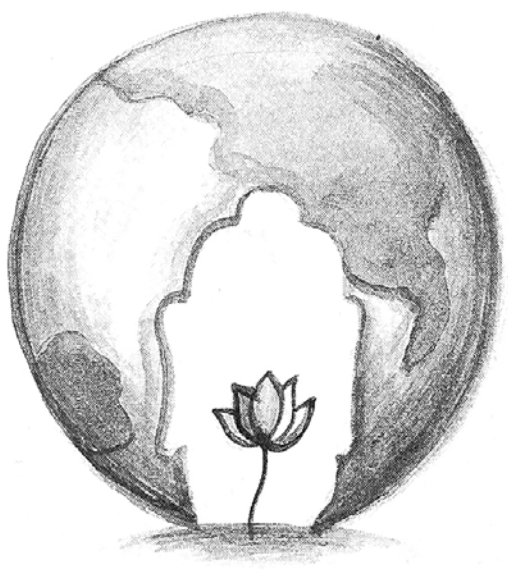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아마도 죽음의 정체를 잘 모르는 때문일게다. 마치 별빛 조차 없는 밤길처럼, 천년미답의 동굴을 들어 갈 때 처럼 발디딜 자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비유하여 말하기를 탄생과 죽음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한다. 탄생은 새 옷을 맞춰 입는 것이요 죽음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리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로 그것은 축복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저 태양이 아침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에 지구 뒤 편으로 숨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다만 드러났다 숨었다하는 부침(浮沈)만이 계속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 부침을 되풀이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어인 까닭에 들락날락 한다는 말인가?

불법에서는 모든 중생의 참 성품을 이름하여 영원한 생명에너지, 불성, 참나, 진여…라고 한다. 그 성품자리에서는 너·나의 구별이 없고 우주의 근본과 한자리 한마음이며 그대로 부처인 채 여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 부터인가 그만 본성을 잊고 너·나를 구별하고 육신에 집착하게 됨에 따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유한의 세계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나고 죽음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따라서 참 성품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부침은 피할 수 없는 속성이 되고만 것이다.

어느 시인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라고 읊었다.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불법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의 대답은 응당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라고 해야 맞는다. 나고 죽는 부침의 세계에서 본래의 성품자리로 되돌아 가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해야 한다.

한 생에 못 마치면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에라도 꼭 고향엘 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한다. 왜냐? 참 성품 자리에 이르지 않는 한 부침은 스스로 그치지 않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고 듦은 진화를 목표한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태어남은 이같은 진화의 먼 길 위에 새롭게 한 걸음 내 딛는 것이요, 죽음은 더 활기 차게 진화하고자 새 몸을 갖춰나오기 위한 중간과정인 것이다

고향 가는 먼 길에 해가 저물면 하룻밤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탄생이요 삶이요 죽음이다.

그러므로 고향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발걸음, 출발과 행진과 휴식은 목표가 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과정이다. 고향집 뒷마루에 걸망을 내려 놓기 전까지는 비록 슬픔이 있고 불안·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만 과정인 것이다. 삶이 곧 진화의 도정(道程)임을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발걸음도 낭비는 아닌 것이다.

협찬 : 한 승 균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한국의 명찰 불기2540년 부처님 오신날기념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 20선 출시!

창간 2주년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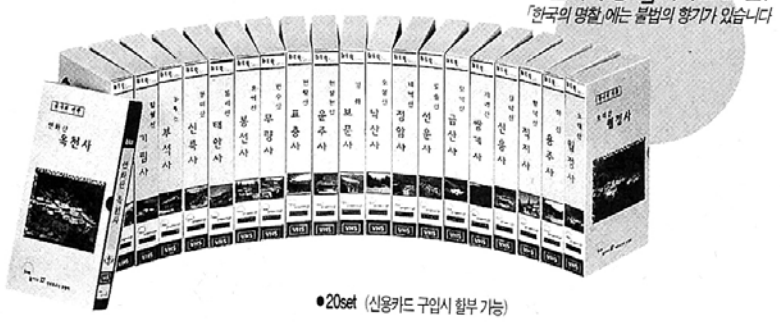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한국의 명찰」 시리즈 20선!
「한국의 명찰」에는 불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20set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불심있는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